금주의 법구-〈유행경〉
태어날 때부터 귀천이 따로 있지 않다.
오로지 그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천하기도 귀하기도 할 수 있는 것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182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12월 8일) 2018년 1월 24일 수요일

조계종 기본교육기관 감축 승가교육 개편 다시 시작

교육원장 현응 스님,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이 기본교육기관 숫자 축소 · 구족계 수지 시기 조정 등을 골자로 다시 한번 승가교육시스템 개편에 들어간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1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사업 기조와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법교화는 승가상 구현'을 목표로 제시했으며,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승가교육시스템 개편을 예고했다. 교육원이 승가교육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2010년 이후 8년만 이다.



조계종 승가교육 개편 과제

- 기본교육기관 숫자 축소
- 교수 적정수 유지책 마련
- 교수 스님 새 역할 부여
- 기본교육과정 학제 조정
- 구족계 수지 시점 조정

2010년 개편 이후 8년만에
기본교육기관 1/3로 감축 추진
구족계 수지 시점 조정 논의도
출가 감소인한 환경 변화 원인

일선 교육현장 스님들 반발 예상
"장기 과제… 충분히 논의할 것"

전법 · 교화 역량 강화 교육은 지속
전법사 · 승가결사체 지원, 첫 시행

출가 절벽 시대의 대응책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승가교육시스템 개편이었다. 현응 스님이 기자회견문에 밝힌 개편 과제로는 △기본교육기관 숫자 축소 △교수 및 연구자 적정수 유지책 마련 △승가대학 축소에 따른 교수 스님 새 역할 부여 △기본교육과정 학제 조정 및 구족계 수지 시점 조정 △기본교육과정 이후 다양한 전법활동 장려 등이다.

이 같은 개편 과제는 모두 출가자 급감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실제, 교육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까지는 한해 출가자 200명 선을 유지됐지만 2016년에는 157명, 2017년에는 151명으로 줄었다. 올해에는 더 사정이 나빠져 120~130명대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출가자가 급감하다보니 기본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인 수도 줄어들었다. 현재 조계종의 기본교육기관은 동국대 · 중앙승가대 · 사찰승가대학 · 기본선원 등으로 분류되며 총 18곳이다. 이 중 상당수 승가대학의 전체 학인이 6~9명 정도로 줄어 교육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교육원 측의 설명이다.

현응 스님은 "지금 기본교육기관 숫자는 연간 출가자가 현재보다 3~4배 많았던 20년 전에 설립된 숫자"면서 "출가자가 20년 전에 비해 1/3으로 준 현실에서 교육기관 숫자와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교육 효과와 예산 상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략적으로 현행 교육기관 중 1/3 가량을 축소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본다"며 "교수 스님 등 교육자 스님들의 역할 문제 등도 논의해야 하며, 해당 사찰의 입장도 있다. 긴밀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장 진광 스님도 "출가자 감소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지금 조정하지 않으면, 향후 5년 내에 없어질 기관들도 적지 않다"면서 "출가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다. 종단도 교육기관들도 유연한 사고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것이 왔다' 면서도…

일선 교육 현장에 있는 스님들의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기본교육기관 축소에 대해서는 '올 것이 왔다'는 입장이다. 출가자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시점에서는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다. 하지만, 학제 조정과 구족계 수지 시점 조정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비구 승가대학의 한 교수 스님은 "출가자 급감 시대에서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하는 상황이자 시점이었다"면서 "기본 교육기관 축소는 교육의 질과 학인 장학 혜택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하지만, 대중 생활이 요구되는 대형 사찰들이 현실적으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다. 사업 추진이 쉽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 비구니 승가대학장 스님은 "기본교육기관 축소는 어느 정도 예정된 수순이라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학제를 조정해, 구족계를 수지하게 하는 방안에는 찬성할 수 없다. 사람이 없을수록 더욱 양질의 교육을 시켜 일당백의 수행자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계종 교육원은 승가교육 개편 사업을 장기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일선 현장과 소통과 대중 여론 수렴도 충분히 진행한다는 것이다. 현응 스님은 "승가교육 개편은 한해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갈 사업"이라며 "추후 일선과의 회의, 공청회 등을 추진하며 폭 넓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법 역량 강화는 '현재진행형'

이와 함께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응 스님은 '전법 교화하는 승가상 구현'이 교육원의 목표임을 재차 천명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전법사 제도와 승가결사체 발굴 및 지원 사업 등은 '전법 교화 승가상'을 위한 대표적 사업이다. 1~5급 승가고시에도 전법교화활동 내용을 확대하고 전법 역량 강화를 위한 장학승도 선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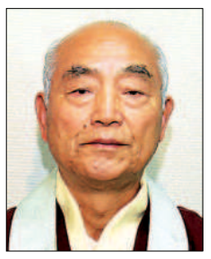
현응 스님은 "한국불교계의 모든 노력의 선두에는 승가가 앞장서야 하며, 승가의 수행력과 교화력도 과거보다 높고 커야 한다"면서 "교육원은 올 한해 승가의 수행과 교화활동을 더 뒷받침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설원의 삼보일배 정진열에 한겨울 추위도 느껴지지 않는다. 조계사 불교대학 총동문회는 1월 14일 강원도 영월 법흥사에서 총본산 성역화 불사 원만 성취를 기원하는 삼보일배를 진행했다. 동참자들은 이날 석가모니불 정근과 삼보일배로 법흥사 금강문에서 적멸보궁까지 올랐다. 사진제공=조계사

총지종 제12대 종령 법공정사 추대

18일 승단총회서 만장일치로 2월 17일부터 6년 임기 시작



총지종이 신임 종령에 법공 정사를 추대했다. 총지종은 1월 18일 총본산 서울 총지사에서 승단총회를 개최하고 12대 종령으로 법공 스님〈사진〉을 만장일치 추대했다.

법공 정사는 추대식을 거쳐 2월 17일부터 6년 임기를 시작한다. 법공 정사는 1983년 출가해 부산 성화사, 정각사 등에서 주교를 거쳐 법장원장과 총지종 제10대, 13대 통리원장을 역임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 앞서 서원당에서는 종단 관계자 및 종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신년하례법회도 열렸다. 총지종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올 한해 일선에서 교화에 앞장서자"며 종도들을 격려했다.

이어 종단 원로 스승을 위한 기로진원식도 열렸다. 기로스승으로 진원된 환수원 전수에게는 사령장이 전달됐으며, 40여 년간 중생교화와 종단 발전에 힘써준 데 감사의 의미로 공로패가 수여됐다.

올해로 창종 47주년을 맞은 총지종은 창종 50주년 준비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종교계 중재로 KTX 승무원 환수금 해결

노사, 종교계 중재안 수용… 승무원 원금 5%만 부담

KTX해고승무원들의 부당이익금 환수문제가 종교계 노력으로 극적 해결됐다. 대전지방법원(조정전담법관 정우정)은 1월 16일 철도공사가 KTX해고승무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과 관련 조정재판서 종교계가 제시한 중재안에 따라 "승무원은 원금의 5%를 3월 말까지 철도공사에 지급하고, 철도공사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승무원은 철도공사의 해외사업 진출 등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ILO(국제노동기구)를 비롯한 UN산하 국제기구와 유럽의회 등에 제소하지 않을 것"도 권고했다. 양측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조정이 성립됐다. 이에 따라 승무원들은 총 1억4256만원(1인당 432만원)을 철도공사에 지급하면 된다.

KTX열차승무지부는 이 같은 결과에 성명을 발표, "대법원 판결로 4년간 지급받은 임금이 '부당이득금'으로 돌아와 해고승무원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상황에서 종교계가 중심이 돼 사회적 중재를 추진했다.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기울여주신 종교계 지도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에 앞서 불교 · 천주교 · 개신교 · 성공회 등 4대 종단 대표자들은 "장기간 투쟁으로 인한 해고승무원들의 어려운 처지와 채무자들에 대한 사회적 구제조치 선례를 고려해 지급된 임금 총액 원금의 5%를 환수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종교계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이번 종교계의 적극적인 중재는 화해와 상생의 가치 아래 진정한 국민통합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모범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박진형 기자

1300년만에 신비의 에밀레종 소리 / 문양 완벽 재현



재현된 에밀레종 (일명 신라대종, 5,300관)

보라! 완벽하게 재현된 에밀레종의 아름다운 비천상

다듬된 비천상 얼굴부터 향로, 천의까지 고증을 통해 완벽 복원

드이어 성종사 기술진이 전매특허공법인 밀랍주조공법으로 신비의 에밀레종을 외관은 물론 소리까지 완벽하게 재현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음향 분석을 맡은 강원대학교 김석현 교수는 "재현종의 600hz 이내의 주파수 성분이 에밀레종과 96~99% 동일하여 실제 에밀레 종소리와 거의 유사할 뿐만 아니라, 여음의 경우 재현된 종이 25%정도 향상되어 오히려 더 오래 울린다"고 평가하였습니다.

聖鐘社 SUNG JONG SA

- 전시관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3 Tel 02)733-6141 Fax 02)733-4840
- 사이트 : www.sungiongsa.co.kr E-mail : sungjongsa@hotmail.com
-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습지길 35 Tel 043)536-2581 Fax 043)536-2582
- 대 표 : 범산 원광식 (중요무형문화재 제 112호 대한민국 명장)



궁금했던 은퇴 출가, 이렇게 준비하세요

Q&A로 살펴보는 조계종 은퇴 출가제도

정리=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올해부터 51~65세 은퇴자들도 조계종 스님이 될 수 있는 은퇴 출가가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은퇴 출자제도는 일종의 특수 출가제도로서 마지막을 출가 사문으로 살아가겠다는 은퇴자들이 산문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호를 연 것이다. 은퇴 출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사회 각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한 경력 증명서와 신상명세서, 건강진단서, 신원 확인서 등을 교구본사에 내야 한다. 특히 '국민건강보험 가입 증명서'와 '연금(공적연금 또는 개인연금) 가입 증명서 또는 연금 수령 예정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수 출가인 만큼 제재 조치도 있다. 실질적으로 속세 관계를 끊지 못했거나, 친권 포기를 하지 않고 이혼 경과기간이 6개월 미만인 행자는 사미·사미니계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은퇴출가한 비구, 비구니에 대해서는 견덕, 계덕까지만 법계가 품수되고,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종무원 및 말사 주지로 임명하지 않는다. 또한 일체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부여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궁금했을 은퇴 출가제도 사안에 대해 Q&A로 정리했다.

출가 자격조건 Q&A

Q. 15년 이상 경력 기산 및 범위는?

은퇴출가 희망자로부터 경력증명서를 받아 교구본사에서 심사한다. 동일직종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직종이라 하더라도 사회경력을 활용해 불교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경력의 합산도 가능하다. 분야 범위는 관련 법령으로 명시한 것 이외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어떠한 경력을 가졌어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Q.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렵다면?

경력증명서를 받기 어려운 자에 대해서는 15년 활동경력 이외에 신심과 원력이 투철해 종단에 기여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교구본사에서 판단해 심사한다.

출가 자격 요건

YES

각 분야 15년 이상 활동 경력
51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녀
국민건강보험 가입·공적 연금 수혜자

NO

감염성 질환·중증 질환자
파렴치범(살인·강도·성폭력 등)

Q. 개인연금·국민연금 수혜 예정자란?

국민연금 또는 개인연금 수급자이거나 연금 수급을 위한 의무를 모두 완료된 사람이다. 국민연금 수혜 예정자에 해당하는 자격조건은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 납부한 자이며, 개인연금 수혜 예정자는 5년 이상 납입 후 10년 이상의 기간을 유지하는 자를 말한다.

등록절차 관련 Q&A

Q. 은퇴출가자 등록 어떻게?

은퇴 출가자는 은퇴출가 등록 신청서 및 각종 증빙서류를 준비해 전국 교구본사로 접수해야 한다. 서류심사는 각 교구본사에서 이뤄지게 되며, 자격조건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접수된 서류의 사본 1부를 교육원으로 보내면 된다. 이후 교육원은 등록일을 등록관리하게 된다.

은퇴출가자 행자등록 절차

은퇴출가 희망자	행자등록신청서 및 증빙서류 ⇨ 교구본사에 신청
↓	
교구본사	서류 심사 및 출가 가부 결정
↓	
교구본사	등록 행자 서류 사본 1부 교육원 제출
↓	
교육원	제출된 서류 1부 관리 및 교육 관리

Q. 은퇴출가자의 수행 사찰은?

'수행 사찰'은 은퇴자가 출가하여 거주하며 수행하는 사찰로 교구본사 및 교구본사 주지스님이 은퇴출가한 자 교육을 위해 위탁한 사찰을 말한다. 은퇴출가한 행자는 교구본사 주지스님이 위탁지정한 수행사찰에서만 생활할 수 있다.

Q. 은퇴출가자 재출가할 수 있나?

은퇴출가한 행자가 자진 퇴방한 경우는 재등록이 가능하다. 하지만 각 본사에서 법 제 7조(퇴사조치)에 의해 강제퇴방당한 경우는 재출가가 불가하다. 또한 재출가하게 되면 이전 사찰에서 생활한 기간은 합산되지 않는다.

교육 및 수계에 대한 Q&A

Q. 종단 행자교육은 언제?

은퇴출가한 행자는 종단이 실시하는 연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원에서 등록이 된 은퇴출가자를 대상으로 공문을 통해 안내가 나가게 된다. 올해에는 4월 중순과 10월 중순에 실시될 예정이다.

Q. 어떤 교육을 받게 되나?

각 본사에 위임한 사항으로 교구본사 및 수행사찰 주지의 책임으로 교육을 시행하며, 일반 행자와 함께 교육할 수 있다.

해당 본사와 사찰은 교육원에서 보내는 월간 교육 일정 프로그램을 참조해 이에 맞는 교육을 시행하면 된다.(시행령 제5조)

Q. 은사는 어떻게 정하나?

은사 스님을 정하는 때는 은퇴출가를 한 행자가 사미·사미니계를 수지하고자 할 때 정하게 된다. 수계교육 입교지원서(소정의 양식)를 작성할 때 기입하면 된다.

이후 은사 스님에 대해 총무부와 호법부에서 신원조회를 통해 이상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은사의 기준은 법계 대덕, 혜덕 이상이어야 한다.

푸에르토리코 복구 기금 3000만원

군종특별교구, 총무원장 신년하례서 동행에 기탁

교구장·대표군승 참석
JSA법당 방문 요청도



군종특별교구는 1월 15일 아름다운동행에 푸에르토리코 복구 기금 3000만원을 기탁했다.

조계종 총무원에 별들이 떴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선묵 혜자)와 국군불교총신도회는 1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2018 총무원장 스님 신년하례'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군종특별교구장 선묵 혜자 스님, 부교구장 남전 스님, 육군 대표 이정우 법사, 해군 대표 한관희 법사, 공군 대표 김용호 법사, 박정이 예비역불자연합회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자리했다.

이날 군종특별교구는 푸에르토리코의 허리케인 피해복구 기금 3000만원을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전달했다.

예방 자리에서 설정 스님은 장성들에게 "불자로 계시는 여러분들이 국가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노고가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는 것"이라고 치하하며 "호국불교로 남한산성과 북한산성을 쌓고 위법망구 정신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많은 포로를 데리고 올 수 있었다. 한반도 안보 위기 속에서 화랑오계 정신으로 평화를 지켜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예방에서 군종특별교구는 설정 스님에게 오는 3월 한국전쟁 참전 16개국 전사자 위패가 봉안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법당 방문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예비역불자연합회는 남산 한옥마을 앞 호국 충정사의 임대계약 문제 해결을 요청, 설정 스님은 종단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노덕현 기자

"문화재 관리 형평성, 국회가 신경을…"

조계종 설정 총무원장
더민주당 의원 예방서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문화재 관리 형평성에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설정 스님 오른쪽으로 홍영표·오영훈·전재수 의원.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방서 국가·민간문화재 관리 형평성에 국회가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설정 스님은 1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오영훈·전재수 국회의원의 예방을 받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홍영표·전재수 의원은 동국대 출신으로, 오영훈 의원은 당 불자회장으로서 조계종을 예방했다.

설정 스님은 문화재 보존관리 등 문화재 관련 현안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스님은 "면단위로 관리되는 국가문화재와 점단위로 관리되는 민간문화재 예산 지원 형평성이 맞지 않다. 만약 관리를 국가 대신 불교계가 맡지 않았다면 엄청난 국가예산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점단위 관리 문화재에 대한 배려를 정부차원서 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써 달라"고 말했다.

배석한 문화부장 정현 스님은 "국가소유 문화재에 1건당 6억9000만원, 민간소유 문화재에 1건당 6000만원이 지원된다. 10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며 "불교의 자주적인 관리는 문화재가 역사 안에서 살아 숨 쉬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화재돌봄사업'에서도 불교는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재수 의원은 "최근 문화재돌봄법을 대표발의했다. 문화재돌봄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각종 규정을 마련했다"며 "스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의견을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전 의원이 발의한 '문화재돌봄법'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문화재돌봄사업의 시책을 수립토록 하고, 중앙과 지역 문화재돌봄센터 운영, 문화재돌봄 종사자 자격 및 전문교육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호섭 기자

〈천태종 성전〉 개정증보판 발간

천태연구원, 2년여 추진 '성과'



천태종의 이념과 실천,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천태종 성전〉의 개정 증보판이 발간됐다.

천태불교문화연구원(원장 이봉춘)은 "천태종이 1971년 〈천태종 성전〉을 발간한 이래, 46년 만에 개정 증보판을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증보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약 2년5개월에 걸친 불사 끝에 나오게 됐다.

개정 증보된 〈천태종 성전〉은 그간 불충분했던 장·절의 체계성과 소략한 내용을 보완하고 달라진 의식 절차를 새롭게 개편했다. 기존의 한문 문장을 한글화한 것도 특징이다.

연구원 측은 "책의 편제를 재정비하고, 그간 종단 발전상을 반영해 새롭게 〈천태종 성전〉을 선보이게 됐다"면서 "종도들의 지혜와 자비 원력이 증장되고 21세기를 이끌 천태종의 역량이 집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謹賀新年

사단법인 해동불교약사종

법인등록번호 284121-0003832

전법도생과 자비공생을 함께 하실 제방의 인연을 모십니다

宗 상구보리(上求菩提)는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하고
旨 하화중생(下化衆生)은 전법도생(傳法度生) 자비공생(慈悲共生)한다.

선교겸수(禪敎兼修) 수행하면서
약사경을 소의경전으로 수지 독송하고
투철한 약사신앙을 실천하는 불교
그 맥을 정립하여

절(寺)에 오고 가는 뭇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겐 고통이 사라지고 심중소구 원만하며
스님을 친견하면 희망을 담아가는 곳.

유구(悠久)한 전법도생 가람으로 만들면서
우리 서로 화합하여 종단으로 맺어지면
안락하고 여유롭고 서로 돕는 자비공생의 사회

이것이 불국정토 아니겠는가!

❶ 약사신앙을 연구하며 전법도생하고 구도자로서 수행하며 자비공생하는 호국불교, 천년의 맥을 이어갈 약사종 종도를 기다립니다.
❷ 한번쯤 출가를 생각 하셨던 분. 또는 부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원만하지 못하고 막연하신 분. 알맞은 길, 큰 길로 인도합니다.
❸ 종파(宗派) 신분(身分)을 초월하여 본 종단의 종지와 사업에 관심있게 일조할 강호제현 인사를 특별자문위원으로 모십니다.

◆ 1차 구비서류
❶ 주민등록 등본 1통 / ❷ 이력서 1통 / ❸ 사진 2매

◆ 종단 사업
❶ 삼보호지 약사신앙 등 불교홍포사업
❷ 불교교학 연수 등 교육사업
❸ 사원 및 포교원설치 관리사업
❹ 교재편찬 기관지 및 출판사업
❺ 사회복지 및 장애인 복지사업
❻ 승려 등 수행자의 복지사업
❼ 장례문화연구 및 납골당 운영사업

(사)해동불교약사종 총무원장 원담 일광 합장

총무원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잠곡로 16-1
전화 031)584-2270 / 팩스 031)584-2269 / 총무원장 010-8981-7908

평등한 공론의 장 'Good' … 피드백 있어야 발전

[점검] 100인 대중공사 3년, 성과와 과제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2015년 1월 조계종 前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역점을 두고 추진한 '종단 혁신과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가 출범 만 3년을 맞았다. 100인 대중공사를 주관하는 백년대계본부는 올해 △사회 △미래 △공동체 △정체성으로 분야를 나눠 대중공의를 수렴해 집행부에 전할 방침이다. 제35대 총무원장 설정 스님 역시 종단 운영기조로 '대중공사에 입각한 종단 쇄신'을 강조한 만큼 대중공사의 중요성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본지는 지난 3년간의 100인 대중공사 성과와 향후 과제 등을 정리했다.

'현대판 결집' 소통문화 확산

100인 대중공사는 첫해 출범을 앞두고 '정치적 이벤트'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지만 점차 자리 잡아가며 교계 소통문화 확산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승속과 지위, 나이를 떠나 모두가 평등하게 논의하고, 집단지성의 안목으로 현안을 해결하는 공론의 장으로서 전국에 확산됐다. 대중공사 문화는 2015년 4월 전북불교계를 시작으로 광주전남 · 창원 등 각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특히 의성 고운사는 도청 포교당 건립을 위해 대중의 지혜를 모았고, 순천 송광사는 대중수행처 건립 불사에 대중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역불교 현안 해결에 대중공사가 활용됐다.

아울러 100인 대중공사는 한국불교 미래를 모색하는 데 불교전통의 열린 광장서 종단 구성원들이 함께 뜻을 모으고, 성찰과 탁마하며 논의결과를 일부 반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100인 대중공사는 다양한 분야서 논의를 거쳐 집행부에 제안, △사찰재정 공개 △미래세대위원회 출범 △승가청규 성안 △서의현 前총무원장 재심파동관련 재심호계위원 사퇴 권고 △주지인사고과 사찰운영위원회 반영 △노동위원회 '사회노동위원회'로 확대 등의 성과를 냈다.

이처럼 입법 · 행정 등 특별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사부대중 조직의 의견이 종단차원의 과제로 도출되고, 종무에 반영되면서 대중공사는 현재 한국불교계 주요 소통수단이 됐다.

제안기능 한계, 미완과제 多

하지만 이 같은 긍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100인 대중공사는 순수하게 '제안'의 기능만 할 수 있어 한계가 분명했다. 특히 정치적으로 연결되는 사안의 경우 당사자들의 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고, 특정 결과를 도출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기도 했다. 입법의 문턱을 넘지 못한 사례도 많았다.

100인 대중공사는 승가청규를 성안했지만 종단차원의 적극적인 시행이 뒷받침되지 않았고, 서의현 前총무원장 재심결정 무효화와 멸빈 등 사법제도 개선안 마련을 제안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100인 대중공사의 총무원장 선거제도 논의는 중앙종회서 '직선제 특위'를 구성하며 기대를 모았지만 현재 '원점 재검토' 중이다. 해종언론 문제와 선학원 대화, 총무원장 선거에 앞선 종단현안 대화의 장 제안도 무산됐다. 이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정책적 피로도가 높아 위원들의 참석률이 낮아진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조계종이 3년간 실시해온 100인 대중공사는 교계 소통문화 확산에 공을 세웠다는 긍정적 평가와 제안에 그쳐 아쉽다는 부정적 평가가 혼재한다. 사진은 2015년 7월 서울 불광사서 열린 5차 대중공사.

'정치적 이벤트' 오명에도
교계 소통문화 발전 기여
사부대중 개개인 지위 떠나
한국불교 미래 함께 고민

집단지성 심도 있는 논의
제안에 그친 사례 아쉬워
향후 권한 확보에 힘 써야

위원회 권위 · 실천의지 관건

따라서 향후 100인 대중공사는 논의결과에 대한 종무 반영을 위한 권위 확보와 종단적 실천의지가 성공열쇠로 꼽힌다. 특히 다수의 위원들이 지혜를 모아 제안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성태용 건국대 명예교수는 "대중공사 결과가 아무리 제언에 불과하더라도 종단차원의 무게감 있는 검토와 피드백이 뒤따라야 대중이 이해하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대중공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의제에 주의하면서 위원들의 참석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산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은 "대중공사는 사부대중이 모여 미래를 고민한다는 게 가장 큰 의미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그들만의 모임'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종단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동력이 한풀 꺾인 것 같다. 정말 좋은 논의의 장을 살리고, 관망하던 사람도 참여하고 싶도록 만드는 데 모두가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년대계본부 역시 그간 종단 정치상황 등의 영향으로 논의에 그친 의제가 발생해 종도들의 신뢰를 잃은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이에 종단서 의제를 공식적으로 제안 받아 100인 대중공사의 권위를 확보하는 방안도 모색중이다.

백년대계본부 관계자는 "올해는 분야별로 풀뿌리 대중공사를 실시해 의제를 마련하는 한편, 최대한 논의결과가 반영되도록 집행부와의 협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양 산불 진화… 古刹 영혈사 피해 없어

강원 양양군 파일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10시간에 진화됐다. 화재 발생 인근에 천년고찰인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 말사 영혈사가 위치했지만, 다행히 피해는 없었다.

강원소방본부에 따르면 1월 14일 오후 7시 53분경 양양군 파일리 인근 주택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산불로 확대됐다가 15일 오전 5시경 진화됐다. 이로 인해 주택 1채와 임야 1.2ha가 소실됐다.

산불진화대와 공무원, 소방대, 군부대, 경찰 등 945명이 밤샘 진화작업을 벌였지만, 야간인 데다 산세가 험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산으로 확대된 불길이 정상을 넘어 동쪽으로 번지면서 영혈사의 스님과 신도 등 30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다. 다행이 산불이 사찰을 피해가 사찰 산림 일부가 불에 탄 것을 제외하면 직접적인 물적 · 인적 피해는 없었다.

영혈사 관계자는 "영혈사 앞 500m 앞까지 불길이 올라왔지만, 맞바람이 불어서 더 번지지 않고 돌아갔다"면서 "사중 스님과 신도들이 밤새워 문화재를 대피 · 이운 시키고 소방작업을 도왔다. 사찰림이 많이 탔지만, 사찰에는 피해가 없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혈사는 689년(신라 신문왕 9) 원효 스님이 창건한 사찰로 알려졌다. 그러나 원효 스님은 686년에 입적했으므로 사찰을 세운 뒤 창건주로 모신 것으로 추정된다. 신성민 기자

조계사가 교회? 십자가 표시 '황당'

종로구청 표지판 오류… "새로 교체하면서 교회와 혼동"

조계종 항의에 전면 교체

종로 한복판, 조계사를 찾아가려고 안내 표지판 약도를 보던 불자들은 당황했다. 조계사가 교회를 상징하는 십자가(十)모양의 픽토그램으로 표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조계종측은 즉각 항의했고 잘못된 표지판을 설치한 종로구청은 전면 수정조치에 들어갔다.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2017년 12월 교체한 관내 보행자 안내표지판 약도 속 조계사가 십자가로 표시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조계종 기획국장 지상 스님, 사회국장 해공 스님 등은 1월 16일 종로구청을 방문해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 현재(1월 18일 기준) 문제의 표지판 십자가 위에는 이를 가리기 위한 스티커가 임시방편으로 붙어있다.

십자가 표시를 한 종로구는 한국표준정보망(KSSN)이 보급하는 공공안내 그림표지가 있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종로구청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사찰과 교회의 픽토그램 혼동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현재 전면 수정을 계획중이다. 시안을 작업하고 있으며, 날씨에 따라 빠르면 1월 넷째 주까지 교체 ·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진형 기자



종로 한복판, 안내 표지판 속 조계사가 십자가로 표시돼 논란이 일었다.

"文정부, 지난 정권 환경적폐 바로 잡아라"

종교환경회의 기자회견서
4대강 · 설악산 보호 등 촉구

불교 등 5개 종교 환경단체들이 문재인정부 지난 8개월의 환경정책이 '정치적 책임회피'였다고 비판하며 지난 정권의 환경적폐를 바로 잡고 환경 정책 실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천도교한울연대로 구성된 종교환경회의는 1월 15일 서울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이제홀에서 문재인정부 환경정책 관련 워크숍 · 총회 및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각 종단 환경단체 활동가 20여 명이 참석했다.

종교환경회의는 4대강, 설악산 케이블카, 핵발전소(원전), 사드를 비롯한 미군기지 환경문제 등 크게 4가지를 지적하며 4대강 재자연화, 설악산 보호, 핵발전소 반대, 성주 소성리 사드 기지 설치 불허를 요구했다.

특히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해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일 스님은 "강물은 흘러야 한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기 마련"이라며 "4대강으로 물에 의지하는 모든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 · 원불교 · 개신교 · 천주교 · 천도교 등 5대 종교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서 환경적폐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기자회견 후 총회에서는 종교별로 2018년 사업을 공유했다.

불교환경연대는 2018년 신년사업으로 △홀수 달 넷째 월요일마다 정기 녹색불교포럼 실시 △4대강 버드나무심기 △녹색 사찰 만들기 △숲 체험교육 · 숲 해설가 파견 △산림 복지 전문업을 계획중이다.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서울국제불교박람회' 3월 29일 개막

2018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3월 29일부터 4월1일까지 4일간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열린다.

조계종이 주최하는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340곳의 업체에서 488개의 부스를 설치해 7만 1000여명의 관람객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살아있는 한국전통문화의 꽃'이란 슬로건으로 제6회 붓다아트페스티벌을 겸해 3월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2018서울국제불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동참 업체와 개인들에게 동기부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불교문화산업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부디즘어워드' 시상도 진행한다.

박람회 조직위원회 측은 "불교 전통문화 홍보를 위한 전시회에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覺皇山雲門寺

雲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교육시스템,
다양한 학인복지 지원의
명실공히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비구니 교육수행도량!



운문사 승가대학 신·편입생 모집

모집대상 _ 2018년 봄 수계자 및 비구니계 수지한 스님도 가능(편입가능)
모집인원 _ 사미니과 ○○명
제출서류 _ 1.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2. 은사스님 추천서
3. 본인 사미니증(승려증) 사본 및 은사스님 승려증 사본
4. 증명사진(장삼 · 만의 착용) 2매(3×4)
5. 준비물 : 만의, 장삼, 사미니증(승려증), 필기도구
모집기간 _ 2017년 12월 ~ 2018년 2월 6일까지
(사전에 우편 혹은 전화, 직접 방문 접수 가능)
전형방법 _ 서류심사, 면접
예비소집일 _ 2018년 2월 5일(음력 12월 20일) 오후 4시까지
전형일시 _ 2018년 2월 6일(음력 12월 21일) 오전 7시
교 통 편 _ 운문사 종무소로 문의

특전사항

1) 해외교류 대학 · 대학원 입학특전 사항 : ① 일본 하나조노 대학 · 대학원 ② 북경 청화대학 인문계열 ③ 태국 국립 마하출라롱콘대학
2) 연수교육사항 : ① 4학년 졸업 후 서광스님 '명상 심리상담사 자격증'취득
3) 재학 중 입학금면제 · 병원비지원 · 전학년 교재 및 도서 지원 · 졸업여행비지원
4) 동국대병원과 MOU체결-매년 무료 종합건강검진 실시

운문사 승가대학 회주 법계 명성 • 학장 일진
주지 진광

운문사 한문불전대학원·보현율원 신입생 모집

모집대상 _ 비구니계를 수지한 스님, 2018년도 봄 수계예정자 포함 통학도 가능함
모집인원 _ ○○명
제출서류 _ 1. 입학원서(본 율원 · 대학원 소정양식)
2. 수행이력서
3.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4. 기본교육기관 졸업(예정)증명서
5. 증명사진 2매(3×4)
모집기간 _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 6일까지 당일접수도 가능
전형방법 _ 서류심사, 면접
준 비 물 _ 가사, 장삼, 승려증
전형일시 _ 2018년 2월 6일(음력 12월 21일) 오후 2시

특전사항

1) 해외교류 대학 · 대학원 입학특전 사항 : ① 일본 하나조노 대학 · 대학원 ② 북경 청화대학 인문계열 ③ 태국 국립 마하출라롱콘대학
2) 학업기간 중 매월 연구비 및 교재지원 3) 각종 장학금 혜택 및 종단 전문 습의사
4) 종단 교육연수비 지원 5) 해외 연수비지원 6)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

운문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명성 • 보현율원 율주 명성
원감 진광

전화문의 054)372-8800, 054)370-7100
홈페이지 www.unmunsa.or.kr ※제출서류는 운문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지사, 사명대사 선양 사업 본격 추진

개산 1600년 맞아 문화대제전 개최

백일장대회 · 문학상 제정
금자대장경 연구 및 세미나
"사명대사 선향은 위상 확대"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직지사는 문화대제전으로 사명대사 선양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직지사 전경.

조선시대 신묵 대사는 참선을 하던 중 김천 직지사 천왕문 옆 은행나무에 황룡이 서려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 자리에 가니 한 소년이 잠을 자고 있었다. 천애고아였던 이 소년의 사연을 듣고 거두어 제자로 삼으니 이 소년이 바로 사명대사였다.

호국불교의 대표적인 인물인 사명대사를 배출한 직지사는 임진왜란 당시 천불전과 일주문 등을 제외한 40개 전각이 소실될 만큼 참사를 겪지만 조선 8대 가람의 위치에 오른다. 이는 사명대사란 고승의 상징성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이런 사명대사를 선양하는 사업이 김천 직지사 개산 1600주년을 맞아 본격 추진된다. 김천 직지사(주지 웅산)는 1월 12일 교구종회에서 사명대사 선양사업을 역점사업으로 펼치기로 결의했다.

사명대사는 임진왜란 이후 직지사를 300여 사암을 거느리는 조선 8대 가람으로 올렸다. 그동안 직지사는 교구차원의 헌양 사업이 필요함에도 이를 추진하지 못했다.

문화대제전 형식으로 열리는 이번 선양사업은 추모다례 및 백일장, 문학상 제정, 금자대장경 관련 연구 및 세미나, 시연회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문화대제전 관련 예산은 2억 여 원으로 구미 도리사의 아도화상 헌양재 등과 연계한 문화 축제로 펼쳐진다. 이번에 직지사가 추진하는 선양 사업은 한국불교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자대장경에 관한 연구와 시연 등이 그 것이다.

금자대장경은 930년(경순왕 4)에 금자대장경 593함(函)을 조성한 기록은 있으나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 해인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고려대장경 판본에 앞서 직지사가 금자대장경을 소장하고 있었다는 기록으로 천묵 대사가 직지사 중창 후 '금자대장경'을 서사(書寫)하고 경순왕이 경명제자(經名題字)를 썼다다는 기록이다. 이는 고려대장경보다 590년 앞서 직지사에서 금글씨로 대장경을 펴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밖에도 직지사는 이날 교구종회에서 재적승 장학금 지급, 군법당 지원, 신행단체 연합법회 봉행, 8교구 승려복지회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직지사 주지 웅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직지사의 위상을 높인 사명대사에 대한 선양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문화대제전을 통해 직지사의 역사와 문화를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웅산 스님은 "직지사 본말사가 수행가풍을 바로 세우고 본말사 사찰들이 지역포교에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The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다 ②

능인 스님 충남대 병원 영적돌봄가

"겸손해지고 '나' 바라보게 돼… 수행자 많이 참여해야"



2014년 충남대병원 임상병원에서 능인 스님은 영적돌봄가 활동을 시작했다. '호스피스공부를 해야 겠다'고 마음을 먹은 적은 없었지만 호스피스는 자연스럽게 스님의 삶 속으로 들어왔다. 스님은 화가 날 때 화나는 마음을 극복하고, 다스리고 싶었다고 한다. 그렇게 심리공부를 하게 됐고, 그것이 임상병원까지 이어졌다.

"2014년 임상병동에 있을 당시 한 환자분이 마지막까지 화를 내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참 많은 생각이 들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화를 내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죽음 앞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참 많았습니다. 동시에 부처님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궁금했어요. 그렇게 정식으로 호스피스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현재 충남대 병원에서 영적돌봄가로 활동 중인 스님은 죽어가는 사람의 힘든 여정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가장 힘들었지만 이 또한 호스피스 활동을 하고 각기 다른 삶을 만나면서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여러 사람들의 임종을 바라보며 스스로 겸손해지고, '나'를 바라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스님도 아직 평정심 유지는 힘들다고 한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닮은 분을 보거나, 화를 버럭 내는 환자를 만나면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계속 노력하며 극복하고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호스피스 일을 하며 큰 보람을 느낀 일도 있었습니다. 환자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노보살님이였습니다. 상담 전 실행한 질문지에서 그 보살님은 자신이 가장 미안하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남편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보살님의 남편은 엉엉 울면서 보살님과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찾아오지 않던 남편분은 그 상담 이후로 마지막 임종까지 지키셨습니다."

스님은 호스피스가 '잘 죽기위한 곳'이나 '특별한 사람만 가는 곳'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호스피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없다며 호스피스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스님은 "수행자들은 수행하고 공부하며 배운 것을 실천해야 인생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다"며 참여를 독려했다.

박진형 기자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는?

말기질환 환자 및 가족들의 생명존엄성을 높이기 위한 불교 호스피스 단체로서 2009년 창립됐다. 각 지역 · 지부 불교호스피스 활동을 총괄하며 조계종 승려연수 일환으로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1기를 모집 중이다.

▶조계종 승려연수교육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1기'

승려연수 30점 인증

①임상과 수행의 만남 ②환자의 심리와 욕구 ③영적 대화기법 ④죽음 현상들에 대한 직관 ⑤임종간호와 영적돌봄의 실제 ⑥불교의 생사관과 정토신앙 ⑦불교적 임종의식과 입관의식 ⑧임종시점에서 西歸直指의 방법론

- **교육기간** | 2018년 3월 27일(화) ~ 3월 29일(목)
- **접수마감** | 3월 19일(월) (선착순 30명)
- **교 육 비** | 25만원(법납 10년 미만 및 학인스님 5만원 감면)
- **접수문의** | 052)255-8522, 8524, 8530 / www.kbha.kr

명상전문지도사 첫 자격시험 열린다

지도자協, 27일 탄허기념관

실력 있는 명상전문지도사를 양성 · 배출하기 위한 자격시험이 처음으로 열린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이사장 혜거)는 1월 27일 오후 2시 탄허기념박물관서 '제1회 명상전문지도사 자격시험'을 개최한다.

이번 자격시험은 협회주관교육과정(명상아카데미 강좌 70시간)과 단체 교육과정 100시간을 수료한 인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참선불교', '명상상담', '초기불교', '통찰치유', '통합' 과목의 검정이 진행된다. 명상전문지도사 자격시험은 한국명상지도자협회 홈페이지(www.kamto.net)에서 접수 가능하다.

한편, 한국명상지도자협회는 시대가 요구하는 명상의 실천체계를 새롭게 확립하기 위해 2016년 출범했으며, 참선 · 명상상담 · 위빠사나 호흡관찰법 · 자비명상 · 하트스마일명상 · 가피명상 · MBSR 등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문의 (02)953-5307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자비실천으로 지구촌을 따뜻하게"

파라미타, 印서 제17차 국제교류협력활동 진행

18~30일 아쌈 주 소나리 마을 1,500여 명에 의료 및 생활지원



인천공항에서 18일 출국전 봉사단이 자비실천을 다짐하고 있다.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심산)는 '자비와 나눔의 실천으로 지구촌을 따뜻하게'를 주제로 제17차 국제교류협력활동을 1월 18일부터 30일까지 인도 아쌈 주 소나리 불교마을 일대에서 진행한다. 이번 국제교류협력활동에는 지도법사에 본회 이사이자 불교중앙박물관장인 오심 스님, 단장에 본회 상임이사인 성진 스님이 참여하며 동국대 의료진을 비롯해 중고등학생 34명이 참여한다.

인도 아쌈 주 소나리 마을은 인도 북동부에 위치하고 가장 가난한 지역에 해당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힘겹게 지켜온 불교마을이다.

노덕현 기자

국제포교사회, 제11회 영어 자타카 암송대회

19개 팀 치열한 경연, 대상에 이현정 · 정성이

아이들이 부처님 전생담 〈자타카〉를 영어로 암송하는 새싹 포교의 장이 열렸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과 국제포교사회(회장 박홍우)는 1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제11회 어린이 영문 자타카 암송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19팀이 참여했으며 200여 대중이 운집해 뜨거운 응원전을 펼쳤다. 행사를 주관한 박홍우 국제포교사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참가한 어린이들이 불심을 증장하고, 국제화 시대 필요한 영어실력도 좀 더 쌓길 바란다"며 "경험을 통해 학창생활을 보람되게 하고 현명하게 사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학년부에서는 진관사에서 온 이현정 어린이, 고학년부에서는 서울 국제선센터에서 온 정성이 어린이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노덕현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8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어학단기반 모 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8년 2월 28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 (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 (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佛法 증장 기원 600년, 티베트 불교 '동력'

[현장] 티베트 전통의식 겔룩파 '묀람첸모'

인도 부다가야=박영빈 객원기자

부처님이 깨달음을 증득한 성도성지 인도 부다가야. 그 중심인 마하보디 사원서 200m가량 떨어진 공터에 1월 8일 붉은 가사장삼을 수한 수천여 명의 티베트 스님들이 모여들었다. 전면 단상에는 2m 높이의 토르마(torma, 색을 입힌 버터로 만든 티베트 불교 전통 공양물)와 불단이 모셔지고, 불단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좌우에 용수보살과 무착보살의 괘불이 걸렸다. 대승불교의 중관과 유식을 함께 익히고 이어나가겠다는 발원을 담긴 괘불 앞에 법주 간댄티파(Ganden Tripa)의 법좌가 놓였다. 법좌 좌우로는 각 본산과 사찰 방장·주지스님들이 법랍에 따라 앉고, 단상 아래에는 대중스님과 재가자들이 자리를 메웠다. 좌석 바깥으론 티베트 재가대중이 불단을 향해 몸을 던지듯 오체투지를 올린다. 600년 넘도록 이어진 티베트 불교의 전통 '묀람첸모(대기원 법회)' 현장이다.


알록달록한 색을 입힌 버터로 만든 토르마(torma). 꽃과 과일을 구하기 힘든 티베트의 전통공양물이다.

부처님 成道성지 부다가야서
3대 본산 8천여 대중 운집
엿새간 기도·토론 탁마하며
부처님 가르침 찬탄과 정진

중국 탄압에 법회 금지되자
인도 망명해 전통 이어나가
"더없이 소중한 기회·인연"

티베트 불교 겔룩파 스님들은 1월 8일부터 13일까지 엿새간 부처님의 성도성지 부다가야서 이 같은 대규모 법회를 봉행했다. 새해를 기념해 열린 법회에는 남인도 티베트 망명촌에 있는 겔룩파의 3대 본산(세라·대풍·간댄) 사원의 8천여 대중스님들이 운집했다. 겔룩파는 티베트 불교의 4대 종파(닝마·사캬·카규·겔룩) 중 하나로 달라이라마가 대표해 이끄는 종파다.

첫날, 법주인 간댄티파가 3대 본산 유나스님들의 영접을 받으며 법좌에 오르자 본격적인 의식이 시작됐다. 간댄티파는 14세기 겔룩파를 창시한 총카파 대사(1357~1419)를 대신하는 소임을 의미한다. 그 지위는 종교적으로 달라이라마와 동등할 정도로 높은 권위를 갖는다.

법회에서 부전스님들은 게송이나 말이 아닌 허밍(humming)으로 고음과 저음을 오가며 대중의 삼매를 돕는다. 이 음성은 삼매의 힘으로 수많은 청정 공양을 만들어 올린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이어 스님들은 관세음보살의 화신인 타라(tara)보살을 찬탄하는 기도를 올렸다. 중생들의 고난이 사라지길 기도하고, 석가모니 부처님과 제불보살을 찬탄한다. 이와 함께 공양과 참회, 길상을 발원하는 기도문은 일체중생의 행복과 부처님의 정법이 증장되길 바라는 내용이 담겼다.

겔룩파의 '묀람첸모'는 1409년 티베트 수도 라싸에서 시작됐다. 총카파 대사가 이 세상에 부처님 가르침이 지속되길 발원하며, 부처님이 외도들을 신통으로 제압한 '사위성의 신변'을 기념하는 의미로 처음 개최한 것이 시초다. 이후 총카파 대사가 입적하고 나서도 제자들이 그 유지를 받들어 매년 새해에 법회를 봉행해온 것이 600년의 역사로 이어졌다. 다른 종파 역시 이 같은 뜻에 공감하고, 새해에 법회를 봉행하면서 대기원 법회는 티베트 새해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워낙 많은 인원이 모이는 탓에 중국 지배를 받는 본토 티베트에서는 문화대혁명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대기원 법회가 금지되기도 했지만 인도로 망명한 스님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부처님 가르침을 향한 기도를 잊지 않으며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 법회는 엄격하고 딱딱한 의례라기보다 사부대중이 한 데 어우러져 부처님 법을 기리는 축제의 자리다. 정해진 경문이 있지만 암송을 기본으로 하는 티베트 승가에서 암송하지 못하는 스님과 재가자들은 또 다른 각자의 소임을 보며 법회에 힘을 보탠다.

법회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단연 '토르마'다. 토르마는 꽃이 귀한 티베트 고원지대에서 색을 입힌 버터로 꽃과 과일 모형을 만들어 공양하던 것에서 기원한 전통 공양물이다. 토르마를 버터로 만든 것은 버터가 티베트서 구하기 쉽고, 필수적인 일상식품이기 때문이다. 이번 법회를 위해서는 일반건물 1층 높이에 달하는 토르마 5개가 세워졌다.

대기원 법회에 참여한 티베트하우스 코리아 원장 남카 스님은 "대기원 법회는 다른 일반적인 기원을 하지 않고 오직 부처님 가르침이 증장되길 바라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며 "이 법회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여러 조사스님들이 직접 예언하고 수희하신 것이다. 1년에 한 번뿐이어서 소중한 기회이자 귀한 인연"이라고 설명했다.

13일까지 진행된 대기원 법회는 매일 오전 6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가행정진 기도를 펼쳤다. 점심공양을 위해 잠시 휴식하지만 부전스님들이 돌아가며 기도를 끊이지 않게 한다. 또한 기도뿐만 아니라 공부의 장인 '잠양쿤최(Jamyag Kunchod)'도 함께 열렸다. 잠양쿤최는 매년 겨울 본산의 대중스님들이 모여 실시하는 인명학 토론이다. 이번 잠양쿤최는 인명학과 더불어 중관6론, 미륵5론까지 추가됐다.

학인스님들의 공부가 얼마나 깊어졌는지 확인하는 문답이 시원찮으면 도반과 강사는 물론, 방장스님과 간댄티파까지 질문을 던진다. 게다가 변변치 못한 질문과 답을 한 스님들은 제아무리 법랍이 높아도 대중적으로 창피를 당해 질문자도, 대답자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재가자들은 토론에 참여할 수 없지만 토론장을 둘러싸고 귀를 기울여 스님들의 문답을 공부한다.

모든 기도와 법회는 미륵불상을 가마에 태워 법회장과 마하보디 대탑을 한 바퀴 도는 것으로 끝났다. 간댄티파와 각 총림 방장, 주지스님이 향을 든 채 앞장서고, 가마 뒤론 승속이 다함께 향과 꽃을 들고 한 목소리로 찬탄하는 게송을 외며 따랐다. 미륵부처가 세상에 다시 올 때까지 가르침이 지속되길, 그리고 미륵부처가 다시 왔을 때 그 제자가 되길 기원하는 티베트 불교의 전통은 세상에 법향(法香)을 전하며 장엄하게 회향됐다.


대기원 법회의 끝을 장식하는 미륵불 행차. 대탑의 동서남북으로 관욕과 길상을 청하는 기도를 올리고, 다음생에 미륵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인연을 짓는 행차로 간댄티파(사진 맨 앞)와 각 총림 방장, 주지 스님이 앞장선다. 행차길 옆으로는 이 모습을 보기 위해 모인 재가불자들이 북적인다.


간댄티파와 대중스님들이 부처님 정법이 증장되길 발원하며 정진하고 있다.


부전스님들의 음성공양 현장. 게송이나 말로 하지 않고 오직 단순한 허밍으로 높은 고음에서 낮은 저음까지 이어간다.



혜법영롭게 비추는 봉은사 법회

계좌 말고 '삶의 잔고' 보라… "시간 살릴 때다"

주제 : 복과 불교의 연관성

원명 스님 봉은사 주지

새해가 되면 자연스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하고 덕담을 한다. 무언가 잘되고 못 되고는 복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달렸기 때문이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1월 7일 봉은사 일요법회서 '복과 불교의 연관성'을 주제로 법문했다. 원명 스님은 "복을 짓기 위해 불자들은 시간을 소중히 보내야 한다. 스스로 공덕을 많이 짓기 위해 노력해야 생기는 것이 비로소 복"이라며 "삶의 잔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허송세월을 보내는 '죽이는' 시간보다 '살리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며 사람들에게 복을 짓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리=박진형 기자



원명 스님은 … 1975년 월정사에서 능혜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7년 탄허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았고, 1979년 고암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용주사 중앙선원, 불국사 선원, 마곡사 태화선원, 고불총림선원, 칠불사 운상선원, 법주사 총지선원, 봉암사 태고선원, 상원사 청량선원 등에서 정진했으며, 삼화사 주지를 역임했다. 2013년부터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장과 조계사 주지, 2015년부터 현재까지 봉은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2018년 봉은사 첫 법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는 새해 인사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죠? 복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의 전체를 봤을 때, 우린 복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다 그만한 복이 있어서 가능합니다. 우리 세상이 험난한데 이런 험난한 세상에서 복이 받쳐주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재물도 있어야 하고, 집 살 돈도 있어야 하고, 우리가 먹고 살 만큼의 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복은 우리 삶에서 절대적입니다. 무엇을 한다 해도 복이 많으면 됩니다. 복이 부족한 사람은 무엇을 해도 안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복불교의 근원

한국불교는 기복불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복을 구하고, 복을 기원하고, 복을 바라는 그런 종교라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부처님에게 복을 달라고 기원하기도 합니다. 사실 복은 부처님이나 하나님이나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복지을만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 행위에 따라서 복을 받습니다. 그만큼 복을 받을 마음을 지녀야 하고, 또 복 받을 그 마음에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내 마음이 얼마큼 복 받을 마음이 되어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절대 내가 복을 받기를 많이 원한다고 해서 복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항상 비워주는 마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자꾸 비워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작게 비운 것보다 크게 비운 만큼 복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혼자 질 수 없습니다. 상대가 있어야 해요. 상대는 우주 만물에 두루두루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있고, 사람과 자연 사이에도 있습니다. 자연을 우리가 잘 살아가게끔 하는 것도 공덕으로 곧 복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힘든 삶을 좀 더 편하게 살게 해주는 것도 공덕을 짓는 것입니다.

한국불교는 기복불교라고 많이들 하는데, 실제로 불교는 기복불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불교를 중시했던 고려시대와는 달리 숭유억불(崇儒抑佛)이라 해서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는 억압하는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특히 벼슬에 나가려는 사람이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불교가 아주 억압받고, 부처님 말씀에 대해 얘기할 수 없었던 시대가 바로 조선시대였습니다. 당시에는 부처님 말씀을 얘기하면 끌려가서 맞을 정도로 불교를 얘기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가 500여 년 지속됩니다. 우리는 500여 년간 불교를, 부처님 말씀을 일반 대중에게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한국불교가 여성불교가 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절은 보살님들만 간다'는 DNA가 500년 간 축적돼 있어요. 거사님들은 유생으로서 불교를 핍박하고, 보살님들이 뒤로 살짝 절에 가서 우리 가족의 평화, 건강, 장원급제를 기원했던 것입니다. 가정의 복락을 위해 기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이어져 지금의 불교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기복불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불교가 있을 수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부처님의 말씀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절에 와서 불공드리고 기도하면 집안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기복을 가졌습니다. 이 세월이 500년입니다. 500년간 기복불교가 자리잡았고, 여성의 종교라고 할 정도로 보살님들만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많이 바뀌어서 거사님들도 오시지만 주로 보살님들이 다녔습니다.

> **"복은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
> **비우고 나눠준 자리에 복 들어온다**
> **허송세월 보내면 시간 죽이는 것**
> **주어진 시간 잘 써서 시간 살려야"**

기복불교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 보건데, 내가 절에 다니고, 절에서 기도한 첫 시작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보세요. 내가 부처님 법을 잘 공부 하고, 부처님처럼 수행해서 도를 통하겠다고 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절에서 기도하고 부처님에게 불공드리면 집안이 편안하다는 마음으로 옵니다. 많은 분들이 복을 구하는 심정으로 절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작이 그렇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불교에 귀의하게 됐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공을 열심히 드렸다는 과정도 중요하고요.

우리에겐 점차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고 알게 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고 처음부터 부처님 말씀대로 배우고 익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복불교가 불교에 입문하는데 좋은 방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한다

우리의 세월은 그야말로 덧없습니다. 어느새 60대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60대를 눈앞에 마주할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관념 속의 시간입니다. 언제 돼서야 '내가 늙었구나' 하시나요? 몸이 안 따라줄 때, 몸이 아플 때, 이럴 때 내가 나이가 들고 시간이 많이 흐르고 몸과 인연이 다 됐다는 것을 압니다. 아파야만 알죠. 시간은 관념 속에만 있습니다. 내가 허송세월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픔을 수행의 벌판으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프고 굶주리는 것이 도를 닦는데 발판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잔고를 생각해보십시오. 내 은행의 잔고뿐 아니라 내 삶의 잔고. 새해에 들어와서 내 삶의 잔고가 얼마 남았는가, 얼마큼 지나왔고 얼마큼 남았는가 하는 것을 한번쯤 되돌아보는 계기가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남은 잔고를 어떻게 유익하게 보낼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젊었을 땐 시간이 안 갔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귀중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잔고를 어떻게 활용할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빠르지 않지만 나중이 될수록 빠르게 지나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속이 붙습니다. 매 순간순간 스스로 시간적 관념에서 나라는 몸이 과연 잔고가 얼마나 남았나 생각해보세요. 은행 잔고가 안 남으면 걱정하잖아요. 몸 잔고 안 남은 것도 걱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공덕을 많이 지어도 살아있을 때 한 순간 깨달음을 위해서 얼마만큼 내가 유익하고 사람답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일일일야 만사만생(一日一夜 萬死萬生)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 낮과 하루 밤 사이에 만 번 죽고 만 번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루 순간순간에 삶과 죽음의 사이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서로 만나서 다른 사람 비난하며 한 세상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불교적 수행을 하고 좋은 덕담을 나눌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쓰면 시간을 살리는 것이고, 잘못 쓰면 시간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잘 살리면 살아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시간을 죽이면 그만큼 허송세월이 많아집니다. 자기 시간을 유익하게, 얼마큼 살릴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이 귀중한 시간을 가치 없이 흘려보내지 말고, 죽이는 시간보다 살리는 시간을 많이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무슨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 그 시간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경전을 독송하는 것은 시간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잡담을 하고 엉뚱한 일을 한다면 시간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시간을 죽이는 삶보다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엄청난 많은 정보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많은 정보를 가졌다고 해서 결코 행복하거나 시간을 살리는 삶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을 단순하게 사는 것이 더 좋을 수 도 있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앎으로 인해서 번뇌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선하는 사람의 불입문자에 대해 알음알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이 알게 되면 거기서 생각이 많아지고 번뇌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행복을 보고 가는 길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남 험담하는 것을 재미있어 하죠. 사람 안에 안 좋은 습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잘못되는 꼴을 아주 고소하게 생각하는 안 좋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히려 시간을 죽이며 헛되이 보내는 삶이 되는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과 행동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유익한 쪽으로 쓸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 한 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순간순간 얼마큼 유익하게 시간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살리는 삶이 복을 짓는 삶이며 시간을 죽이는 삶이 업을 짓는 삶입니다. 시간을 잘 살려서 새해에 복을 많이 받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신흥사 운암승려 노후수행관 입주 안내



사회복지법인 운암원에서는
승려 노후복지를 위한 비구니 전용 노후수행관을 개원합니다.
아래의 혜택으로 안내하여 드리오니 문의 바랍니다.

생활 의식주 (사부대중으로서 공동제공)

- 선원, 화엄학림 운영 (서예실, 화실, 도서실, 다실 등)
- 매월 (음, 7일) 원로큰스님 초청법회
- 전기, 상수도, 냉난방 세탁 (무료제공)
- TV 43인치, 드럼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기쿡탑 (제공)
- 생활 필수품 (무료제공)
- 스님 출입시 부산역, 공항, 고속터미널 (승용, 승합 제공)
- 월 1회 온천 및 성지순례 (제공)
- 유선 전화기 기본요금 (무료제공)
- 월 40 ~ 50만원 및 타선원 방부시 대중공양 일백만원 지원
- 수행관 입주자 일반의료비, 중증의료비, 암 치료 등 (무료지원)
- 수행관 내 노후자 편의를 위한 승강기 3대
- 상시 승복(법복) 무료 제공
- 객실 / 실내 도반과 함께 입주 가능
- 승납(법납) 및 세속나이 관계없이 1차 입주는 가능함
- 수행관 주변 : 백병원(종합) 승용 3분거리 / 지하철 도보 10분 / 시내버스 종점 도보 3분거리 / 공원, 대학, 고등학교, 산책로
- 남덕유산 무위사 심신수련원 매년 거주(한철)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본사 등록예정)
- 사후 사찰내 식장, 무위사 다비장 부도탑 49재, 사중제사 (단, 유언장에 따라 정리함)
- 입주자 : 전국 비구니스님 (60세 외 관계없이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
주지 정일 성범 합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공원로 77-20
사찰전화 : 051-891-3776
문의전화 : 051-895-3400. 010-6783-1208

연모했던 선지식 만난 기쁨을 적다



박동춘의
초의 스님 前 上書

② 신위에게 보낸 초의의 편지


초의 스님이 신위에게 보낸 편지. 지본 묵서로 크기는 32×55cm. 평소 존경했던 신위를 북선원에서 만났던 기쁨이 잘 담겨 있다.

근현대기에 가장 변화무쌍하게 변화된 것은 정보 통신이다. 20세기 초까지도 편지로 서로 정보를 교환했던 시절에 비하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특히 핸드폰의 일반화나 소셜미디어(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한 정보 교류는 상상을 초월하는 신세계를 열었다. 물론 현대적인 소셜미디어(SNS)는 1990년대 이후 월드와이드웹 발전의 산물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런 정보 수단은 편지처럼 눈으로 정보를 교류했던 시대로 회귀한 듯한데 매개체이나 전달 방법은 판이하게 다른 특징을 보인다.

시공간을 압축시킨 SNS가 실로 소통의 방식으로 가장 이상적인 것일까. 물론 현대인의 삶의 방식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정보 통신의 혁신은 사람 간에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정서 공감이라는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다. 손끝으로 전달되는 편지로 전해지는 따뜻한 마음, 진정성 등은 공감의 여운이 크다. 그러므로 편지는 아직도 유효한 정보 교류, 소통의 방법이라 하겠다.

한편 옛 사람들의 간찰, 즉 편지는 정서와 정보를 공유했던 사람들이 남긴 개인사의 편린이다. 이들은 세련되고 의미 있는 내용으로 편지의 행간을 채웠다. 따라서 편지에는 잔잔한 일상사나 요청 사항, 도움을 구하는 내용이나 기쁨과 슬픔, 분노와 한탄까지도 숨김없이 드러냈다는 점에서 시문과는 다른 특성을 지녔기에 상황에 따른 긴장감과 생동감이 행간에 오롯이 담겨 있다. 편지가 시대를 담고 있는 정보의 보고라는 점에서 당대의 정치, 경제, 사회, 민속, 사회 흐름 등이 편지를 통해 조명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편지가 미세사(微細史) 연구에 중요한 사료가 되는 연유는 여기에 있다하겠다.

이번 소개할 초의스님의 편지는 1833년경에 신위(申緯1769~1845)에게 보낸 것으로 보여진다. 피봉(편지봉투)에 단정한 해서체로 '본 관청에 올립니다. 모시는 사람은 열어 올리시길(本衙上 侍下人 開上)' 이라 썼으며 좌측 하단에 '초의 승려 의순이 삼가 감사를 표하는 글(草沙門意恂謹謝狀)' 라고 썼다. 글씨체는 정형적인 초의 글씨이다.

특히 편지의 첫머리에 '병상합하(兵相閤下)' 라고 쓴 글자를 다른 글자보다 한 칸 올려 쓴 것이 눈에 띈다. 대개 옛 편지나 문서에 보이는 용례로, 자신보다 학문이나 관직이 높은 사람에게 보내는 문서에 나타나는 형식이다. 상대방에게 극진한 예의와 존경을 표한 것이라 하겠다.

한편 이 편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지난번 한양(洛下)에 있을 때 해붕 선사에게 처음으로 합하께서 높고 원대한 뜻을 품어 탁연히 속세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한 번 뵙고자하는 바람을 마음 속 깊이 품고 있었습니다"라고 한 점이다. 이는 초의가 처음 상경했던 1815년경에 학림암의 해붕 선사에게 '병상합하, 즉 신위의 이야기를 듣고 한번 만나고자하는 뜻을 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의지와는 달리 이들이 만난 것은 1831년경이다. 그렇다면 초의가 '병상합하' 라 부른 인물을 신위로 추정하는 연유는 무엇일까. 바로 그가 맡았던 관직을 살펴보면 그 해답이 나온다. 바로 그가 1814년 병조참지를 거쳐, 이듬해 곡산부사로 부임했다. 1822년 병조참판에 올랐으나 당쟁의 여파로 파직되었다가 1828년에 강화유수로 복직되었다. 하지만 1830년경 윤상도의 탄핵으로 파직되어 시흥 자하산방에 은거하며 불교에 심취한다. 그러므로 초의는 신위를 ' 병상합하' 라 부른 것이리라. 그럼 초의가 신위에게 보낸 편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조선 후기 대표하는 文人 '신위'
부인과 사별 後 불교에 심취해
초의 · 신위 1831년 북선원서 만나

"19년 간 연모 · 막힌 마음 사라져"
평소 존경했던 문인 만났던 기쁨
편지 구절마다 절절히 담겨 있어

사문 초의 의순은 삼가 재배하고 글을 올립니다. 병상(兵相) 합하, 지난번 한양(洛下)에 있을 때 해붕선사에게 처음으로 합하께서 높고 원대한 뜻을 품어 탁연히 속세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한 번 뵙고자하는 바램을 마음 속 깊이 품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양에 있던 중에 또 운산(雲山)에서 홍현주(洪道人)와 모였을 때에 이끌어 주신 가르침을 받음에 따라 지금은 제가 나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좋은 인연이 거듭 맺어짐에 일전에 바라던 것보다 더욱 더 흠모하게 되었습니다. 설령 마음을 이끄는 길이 이미 익숙하다 할지라도 오직 득의의 인연을 만나지 못하면 마침내 큰 위험을 입게 됩니다. 두 기인한 운명이 은밀하여 이미 운명이 좇아와 다시 기이함을 얻었습니다. 연당(蓮堂)엔 비 자욱하나 난실엔 사람조차 고요합니다.

마침내 19년의 깊은 연모와 막혔던 생각이 환하게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삼일 밤낮을 지내는 동안 오직 합하께서 버려두지 않았고 또한 저도 의지한 바가 오래되었습니다. 정의(精義)를 펴심에 이르러 공손히 현리(玄理)를 말씀드림에 말은 높되 요지가 있고 말이 달변이며 이치에 밝아서 사람으로 하여금 바로 바다처럼 가슴이 넓고 아는 것이 맑아져 어지러움이 스스로 안정되어 마음을 비우고 들은 것을 참학하게 합니다. 날마다 궁구하여 몸이 피로한 줄도 모르고 밤이 방해해도 눈에는 졸음이 없어지니 어찌 다만 십년 독서보다 나을 뿐이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몇 백 생을 배워야 능히 무량(無量)한 반야에 이르며 생사 중에 스스로 무(無)를 발할 수 있겠습니까.

스승의 지혜는 깊은 믿음에서 일대사를 얻은 것이니 인연입니다. 교(敎)에 일항사(一恒沙)에 대해 말하셨는데 모든 여래께서 발한 보리심입니다. 정법으로 능히 멸하고자할 때에는 이 대승으로 비방을 일으키지 않다고 한 말이 있으니 믿음을 얻어야 마음이 즐겁습니다. 또 말하길 보리 숙연이어야 반야의 지력에 오른다고 하였으니 재관(宰官)을 시현(示現)한 것입니다. 몸에 숙습(夙習)이 농후해지면 부귀에 농락되지 않고 육바라밀과 사무량심을 염염히 공을 세우고 늘 성취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잠시라도 잊은 적이 없으며 오래도록 이 말을 외웠습니다.

지금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세간의 진노(塵勞)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돌아다녀 쉴 수가 없습니다. 그를 위해 한번 말하매 정수(精修) 증오(證悟)의 문하에서 마침내 은연히 안으로 탄식과 답답함을 간직함으로부터 스스로 말과 동작에 드러납니다. 제 생각으론 여기에 이르러 짐짓 의심이 나는 것은 무슨 이치입니까. 무릇 닦아서 증득한 이후 믿음과 즐거움이 생겨 잊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수증(修證)의 문을 경험하지 않고 억지로 말함으로부터 믿음 또한 얻을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즐거울 수 있으며 그 잊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미덥고 즐거우니 또한 잠시도 잊을 수 없습니다. 설령 돌아가지 않으면 휴복하지 못합니다. 그 기필하기를 참을 닦은 것이며 참으로 증득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다는 것을 아는가. 만약 선종의 문하에서 무수(無修)로서 닦으며 절증(絶證)하여 증득하니 무수(無修)이기 때문에 바로 자신의 마음을 보는 것이며 절증(絶證)했기 때문에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즉 불심을 드러낼 수 없으니 깨달음으로서 바로 드러낼 수 없는 부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草衣沙門意洵 謹再拜上書

兵相閤下 昔在洛下 從海老師 始聞閤下有高情遠志 卓然絶俗離群 深懷一識之顧 中年又會洪道人於雲山 自其有受提　之敎 以得今吾之勝 於是重結前願彌加欽景 雖導心之路已熟 惟得意之緣未遇 竟被浩劫 密邇二奇之命 旣赴命 又得一奇 蓮堂雨鎖蘭室人靜 遂使一十九年之沈戀滯想 豁 頓釋除 三晝夜中 豈惟閤下之不遺 抑洵之所待有舊矣 至於垂演精義俯陳玄理 語高而旨 辭達而理明 令人直得胸海寬淨識濶自安 所以虛心參聽 日有窮而身不知疲 夜有 珮目不交眠 豈止勝讀十年之書而已哉 不知 幾百生中學 般若來能於無量 生死中自發無 師之智深信得個一段大事因緣也 敎中有言 於一恒沙 諸如來所發菩提心 能於正法欲滅之時 於此大乘不生誹謗 得信樂心 又曰 菩薩夙乘般若智力 示現宰官 身 以夙習濃厚 不爲富貴之所籠絡 於六波羅密四無量心 念念策勳 念念成就 未嘗斯須暫忘 久誦此言 今見其人 然猶以世間塵勞之牽緣 不能旋駕休復 爲之一試 於精修證悟之門 遂隱然內自貯歎凝憂 有以自發於語言動作之中 愚意至此 竊有疑焉 何則 凡修而證得 然後方有信樂而不忘者 如未有經修證之門强自爲言 信且不可得 而ø其樂乎 ø其不忘乎 旣信樂之 又不斯須暫忘 雖不旋駕未休復 其必曰 眞修了 眞證了也 何以知其然也 如禪宗門下 以無修而修 絶證而證 無修故直見自心 絶證故見心 卽佛心不可見 以悟爲見佛不可 卽

알려진 바와 같이 신위는 조선 후기 대표적인 문인이다. 특히 대나무를 잘 그렸으며 시문에도 출중하여 시 · 서 · 화 삼절로 칭송된다. 특히 부인이 돌아간 후 불교에 심취했던 그의 삶은 수행자와 같았다고 한다. 이런 사실은 1831년 8월에 쓴 초의의 〈북선원으로 자하도인을 찾아서(北禪院謁紫霞道人)〉에 "신위는 연단한 전 학사인 듯, 범궁에서 향 사르는 대승의 선객이라(秘閣丹鍊前學士 梵宮香火大乘禪)"라고 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아울러 이 편지에는 신위에 대한 초의의 흠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깊은 지를 짐작하게 한다.

무엇보다 그가 "마침내 19년의 깊은 연모와 막혔던 생각이 환하게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삼일 밤낮을 지내는 동안 오직 합하께서 버려두지 않았고 또한 저도 의지한 바가 오래되었습니다"라고 한 점이다. 이는 초의가 신위를 만나길 염원한 지 19년 만에 신위를 만난 이후에야 그에 대한 연모와 만나지 못해 답답했던 마음이 눈처럼 녹아 버렸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초의가 북선암으로 신위를 찾아간 것은 1831년 8월이다. 그러나 이 편지의 내용 중에 "19년의 깊은 연모와 막혔던 마음이 사라졌다"고 하니 1830년 상경하여 1833년경 대흥사로 돌아가 이 편지를 보낸 것은 아닐까. 더구나 그가 북선암에 신위를 찾아가 3일간을 머물며 "정의(精義)를 펴심에 이르러 공손히 현리(玄理)를 말씀드림에 말은 높되 요지가 있고 말이 달변이며 이치에 밝아서 사람으로 하여금 바로 바다처럼 가슴이 넓고 아는 것이 맑아져 어지러움이 스스로 안정되어 마음을 비우고 들은 것을 참학하게 합니다"라 하였다.

이들은 서로 불교의 깊은 세계를 유영했던 것이다. 그러기에 초의는"날마다 궁구하여 몸이 피로한 줄도 모르고 밤이 방해해도 눈에는 졸음이 없어지니 어찌 다만 십년 독서보다 나을 뿐이겠습니까"라고 했던 것이다.

물론 신위에게 선종의 "무수(無修)로서 닦으며 절증(絶證)하여 증득하니 무수(無修)이기 때문에 바로 자신의 마음을 보는 것이며 절증(絶證)했기 때문에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는 불교의 묘리를 설파한 정황도 밝혀진 셈이니 자료의 중요성이 더욱 돋보이는 순간이라 하겠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감사의 인사 말씀

지난 1월 16일(음 11월 30일) 한마음선원 상임고문 청월 박재원님의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신도회장(葬)을 봉행하였습니다.
먼길까지 찾아와 주신 대덕 큰스님들, 사회 각계 각층 인사들,
그리고 사부대중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예를 올립니다.

또한 조화, 조전 등으로 조의를 표해주신
각계 인사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 올림이 도리인 줄 아오나
지면으로 인사 올림을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 앙망합니다.

불기 2562년 1월



추모재 일정

초재	1월 20일 토요일	오전 11시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대법당	
3 재	2월 3일 토요일	오전 11시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대법당	
49재	3월 3일 토요일	오전 11시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대법당	

문의 : 한마음선원 사무처 ☎ 031)470-3100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신도회 · 유족 일동

조형언어로 표현한 불국만다라



노재학 사진작가의
한국 산사의 장엄세계

② 양산 영축산 통도사 (하)



대웅전 천정 구조와 단청장엄

불전건축 종합전시장 통도사

전각 위계질서 부여는 필연

천정 단청장엄으로 화룡점정



용화전 '현장병성건대회도' 벽화



명부전 '수궁도' 벽화

영산전에 법화경과 부처님 행적벽화

통도사 가람은 한국 사찰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불전건축의 종합 전시장이라 하여도 지나침이 없다. 그것은 1300여 년의 시간에 걸쳐 형성된 변용과 통합의 산물로 이해할 수 있다. 불전건축의 다양성만큼이나 조형을 통한 장엄 세계도 풍부하다. 벽화, 불단, 꽃살문, 닫집, 단청, 천정장엄 등에서 수적, 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밀도로 분포한다. 한국사찰에 구현한 거의 모든 불전건축과 장엄세계가 집약되어 있다.

통도사의 장엄세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사찰벽화의 총체적 경영에 있다. 대웅전, 영산전, 용화전, 대광명전, 약사전, 관음전, 극락보전, 명부전, 응진전, 해장보각, 삼성각, 안양암 북극전 등 12곳의 전각에 걸쳐 500여 점의 벽화가 현존한다. 세계 불교미술사에 유일무이한 견보탑품도를 비롯하여 반야용선도, 석씨원류응화사적 벽화, 아미타여래삼존도, 약사여래삼존도, 수월관음도, 지장보살삼존도, 금강역사도, 고사인물도, 주악비천도, 〈서유기〉 벽화, 용 봉황 사자도, 호작도, 연화도, 〈삼국지연의〉의 삼고초려도까지 교리적 세계관에서 민화풍의 화조도까지 불전장엄 소재를 망라한다. 특히 영산전과 용화전, 명부전의 벽화들은 국내 다른 사찰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희귀한 소재들이라 주목을 끈다.

영산전에선 견보탑품도와 석씨원류응화사적도가 단연 돋보인다. 견보탑품도는 법화경 제11품 '견보탑품'의 내용을 담은 변상도다. 석가모니 부처께서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하실 때 부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하기 위해 허공으로 솟구친 칠보탑의 장면을 압축한 탁월한 벽화다. 공포벽면 칸칸이 그려 넣은 석씨원류응화사적도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행적과 용수스님 등 부처님의 전법제자들의 행적을 표현한 별지화로 총 48점에 이른다. 그 역시 판화가 아닌 사찰벽화로는 보기 어려운 장면이다. 영산전의 벽화들은 미술사적 가치와 희소성으로 인해 2011년 보물로 지정됐다.

용화전 화반에 생명력의 연꽃밭 표현

용화전 좌우 벽면에 조성한 소설 〈서유기〉 관련 7점 벽화도 예사롭지 않다. 특히 동쪽 중앙 칸 벽면에 베푼 '현장병성건대회(玄裝秉誠建大會)'는 구도, 색채운영에서 회화적 완성도를 갖춘 수작이다. 당 태종의 명을 받아 현장스님의 주도로 수많은 원혼들을 달래는 성대한 수륙재 장면의 벽화다. 수륙재의 대회장에는 세 기의 번이 휘날린다. 나무청정법신비로자나불, 나무원만보신노사나불, 나무천백억화신석가모니불의 삼신불 명호가 선명하다. 서쪽 벽면에는 수륙재를 주관할 고승을 선발하는 장면과 납치된 현장 스님을 찾아 나선 손오공이 머리 셋, 팔 여섯인 삼두육비(三頭六臂)의 형상으로 광분하는 장면을 두루 표현하고 있다. 서사를 담은 사찰벽화임에도 그 구성과 채색기법이 탄탄하고 충실한 묘사력도 돋보인다. 그 같은 채색기법은 용화전 천정장엄에서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우물천정 칸칸이 모란, 연꽃, 국화 모양을 이용한 중대팔엽원의 단청문양이 빛난다. 문양은 대단히 세련되고 정교한, 흠잡을 데 없는 명작이다. 천정으로 향한 시선은 대들보 위 천정을 받치고 있는 커다란 직사각형 화반(花盤)에 저절로 이어진다. 화반은 보통 꽃 문양의 조각 받침이다. 때때로 人자형 받침이나, 구름 문양, 드물게는 사자, 코끼리, 불꽃문양을 취하기도 한다. 하지만 용화전의 화반은 가로로 긴 직사각형 모양이다. 화반의 평평한 양면은 훌륭한 장엄미술의 화면으로 활용됐다. 화반은 낮은 부조(浮彫)로 돋을새김한 완벽에 가까운 좌우대칭 형태다. 화면은 연꽃과 온갖 수생생물로 가득한 연지다. 거북, 게, 개구리, 물고기, 조개 등의 생명력으로 가득하다. 예천 용문사 대장전 윤장대 꽃살문의 연지 장면과 영주 성혈사 나한전 어칸 통판투조꽃살문을 떠올리게 한다. 연지수금문양은 사찰 꽃살문이나 기단, 초석 등에선 종종 볼 수 있지만 용화전처럼 대들보 위 화반에서 만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런 희귀한 장면들은 용화전 앞 봉발탑(奉鉢塔) 석조 조형물의 경우도 마찬가지 사례다. 봉발탑은 연꽃 문양의 간주석 위에 밥그릇 모양의 발우를 얹은 형태다. 발우는 공양 때 사용하는 밥그릇이지만, 선가의 전법과정이나 조형장엄에서는 스승이 제자에게 법을 전하는 전법의 고귀한 상징이기도 하다. 용화전은 56억 7천만 년 후에 도솔천에서 하생하여 용화삼회로 중생을 구제하기로 수기된 미륵불의 불전이다. 석가모니 부처께서 미륵보살에게 미래불로 수기하셨다. 봉발탑엔 가섭제자에게 미래의 미륵불에 발우를 전할 것을 의탁하신 뜻이 담겨 있다. 어제의 빛을 오늘에 담아 내일에 전하고 있는 갸륵한 장면이 아닐 수 없다.

명부전에 문학작품 소재의 민화벽화

영산전 단청장엄의 빛이 법화경과 석가모니 행적을 담은 진채이고, 용화전 단청이 전법(傳法)과 구법(求法)의 행적을 담은 빛이라 할 때, 명부전 단청장엄은 민화풍의 채색화로 특징 지을 수 있다. 명부전엔 내부 벽면과 포벽, 외부 포벽에 걸쳐 다양한 민화 소재의 별지화가 현존한다. 산수도, 화조도를 비롯하여 봉황도, 호작도, 청룡, 송학 등 다채롭고, 붓질도 대단히 치밀하고 힘차다. 그림 자체만으로도 회화적 완성도가 높다. 내부 좌우 벽과 전면의 세 벽면에 베푼 회화들은 여러 소재들로 엮은 온전한 민화병풍이 되고도 남음이 있다. 그 중 특별한 것은 문학작품을 모티프로 하여 회화적으로 표현한 벽화들이다. 중국 당시(唐詩) 속 비경을 담은 '풍교야박도' 라든지, 소설 〈별주부전〉을 모티프로 삼은 수궁도, 〈삼국지〉에 나오는 장면인 삼고초려도 등이 그런 사례다. 성스러운 건축공간에 그 같은 소재들은 의아스러울 수 있다. 불전장엄에 시대의 다양한 관심과 요구를 광폭적으로 수용한 한국불교 특유의 습합과 포용력의 방증이 아니겠는가? 또 어쩌면 이 명부전의 벽화들은 조선후기 민화들의 근저와 사회적 확장 범위 등을 고증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지도 모르겠다. 특히 자장율사의 진영을 모신 해장보각 천정 널판의 쌍 희자 '囍'와 복 '福'자 문자도(文字圖), 대광명전의 고사인물도와 산수도 등은 민화와 불교 단청 별지화 사이의 이행과정, 채색기법 등의 논의에 다양한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건축집합에서 위계성의 질서부여는 필연적이다. 건축집합은 중심을 향한 질서 있는 축선과 동선을 갖춘다. 궁궐이나 서원, 향교의 건축집합에서도 위계적 연계성을 구축하고 있다. 건축에서 위계질서는 건축의 크기, 형태, 위치, 내부장엄 및 장식, 색채운영 등의 장치로 규범화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럴 때 통도사 위계질서의 최상위는 대웅전, 곧 적멸보궁과 일체화 된 금강계단일 수밖에 없다. 통도사 대웅전이 보궁의 지위로 극대화 될 수 있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금강계단의 불멸의 위상 때문이겠지만, 인간의 신앙적 의지로 치목한 건축학적 관점에서도 분명해 보인다. 건축의 크기, 형태, 위치, 장엄 등에서 비교불가의 확고부동한 중심성의 권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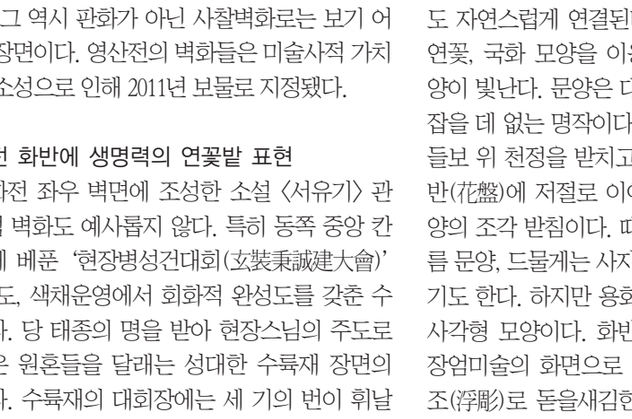
적멸보궁 천정은 한국의 시스티나성당

적멸보궁은 통도사 가람배치 주축의 궁극적 정점에 위치한다. 건축 규모에서도 최대이고, 형태면에서는 사면 모두 정면성을 갖춘 정자(丁字)형의 독특함으로 강력한 중심성을 환기시킨다.

건축장엄에서도 다른 불전건물과 확연히 구별하는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기단부 면석 칸칸이 높은 양감의 연꽃을 돋을새김 하였고, 계단 소맷돌과 경계석에도 형이상학적 형태로 재해석한 연화를 조각하여 연화장세계의 불국토임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대웅전 편액을 단 동쪽 중앙 칸 창호도 특별한 정성으로 치목한 솟을꽃살문이다. 모란, 연꽃, 국화 형상을 관념적 추상의 형태로 이상화해서 꽃의 물리성을 초월하고 있다. 신령한 온갖 기운으로 경영한 장대한 불단장엄, 지붕 위 금속제 보주탑, 지붕을 덮은 철재 기와, 수막새 기와에 얹은 도자기 연봉 등도 통도사내 다른 불전건물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중심성의 위계장치다. 특히 1785년 제작연도를 새긴 철재기와는 통도사 적멸보궁에서만 보이는 국내 유일의 건축장엄이다. 철의 물리성을 빌려 만고불변의 시간성의 염원을 담았다.

적멸보궁의 장엄세계에서 불후의 명작은 천정의 단청장엄에 있다.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 천정 프레스코 벽화에 비견될 만큼 웅장하고 성스러운 아름다움으로 고색창연하다. 엄격한 기하학적 대칭과 금빛 색채의 하늘꽃, 신령한 범자진언의 반복적 울림, 사방 포벽 칸칸마다 나투시는 불보살들, 대들보의 면마다 꿈틀대는 열 여섯 용의 힘찬 용틀임 등으로 장식한 적멸의 코스모폴리탄이다. 佛과 法과 장엄은 체-용-상의 통일체처럼 불이(不二)의 삼위일체다. 경전 속 부처님의 장엄세계가 부처님의 위신력과 공덕에 의한 법의 방편반야라 할 때, 승장 등 예술장인들에 의해 지상에 현현한 통도사 장엄세계는 조형언어로 표현한 거대한 불국 만다라의 세계임에 분명하다.

(사) 대한불교삼계조계종



한국불교의 발전과
불법 수호의 큰 뜻에 함께
동참하실 제방의
대덕큰스님들과
법사님을 모십니다.

입종 관련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사본
- 반명함판 사진 2매
- 법당사진 내 외(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입종 종도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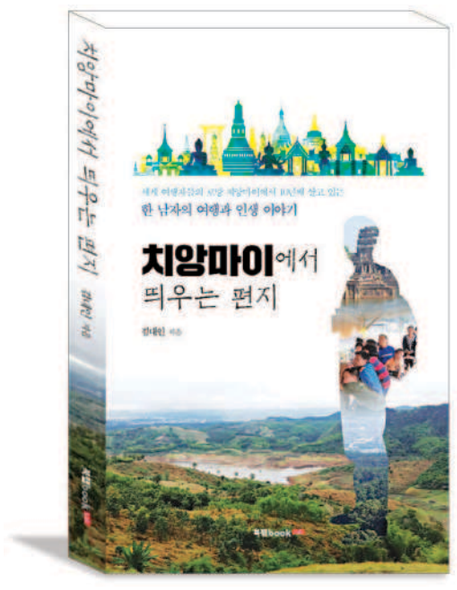
2018년 종단 신년 하례 법회

◆ 일 시 : 2018년 1월 11일
◆ 장 소 : 창원 대원사 대법당

원로의장 혜공 큰스님, 중앙종회의장 법성 큰스님, 감찰원장 동진 큰스님 등 신년하례법회에 동참해 주신 종단 대덕 원로 큰스님들과 종도분들께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대한불교삼계조계종의 승풍진작과 종단행정 안정화의 원년으로 2018년을 화합과 상생의 마음으로 함께 열어 갑시다.

(사) 대한불교삼계조계종 총무원장 월산 합장

• 총무원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132번길 28 대원사
전화 055)255-5452. 총무원장 010-3689-5020



치앙마이에서 띄우는 편지

여행은 내가 아들에게 줄 가장 큰 인생의 선물이다.

세계 여행자들의 로망 치앙마이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는 한 남자가
손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진짜 여행 이야기

여행은 소중한 사람과의 추억을 만들어주고, 추억의 소중함을 기억하게 한다. 해외여행이 흔하지 않던 시절, 저자가 아들이 더 넓은 세상에서 더 큰 꿈을 꾸기를 바라며 함께 세계로 나가 여행했던 추억을 책으로 엮었다. 배낭에 반찬 통 몇 개를 넣고 '맨 땅에 헤딩' 하듯 무작정 떠난 세계여행. 낯선 땅낯선 사람들과 만나 울고 웃고 또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어준 여행지에서의 체험을 이제는 일흔의 할아버지가 된 저자가 수십 자루의 볼펜을 바꾸어 가며, 아무런 기록 없이 기억에 의존해 생생하게 복원했다. 인생의 황혼기를 아름다운 치앙마이에서 보내며 아름답고 맑은 영혼을 가진 이들에게 많은 배움을 얻고 삶의 활력을 얻은 여행에 관해 쓴 에세이로,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현지의 리얼한 일상과 다양한 문화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저자 김대인 | 북랩 | 230쪽 | 값 14,500원

저자 : **김대인**

저자 김대인은 1950년생으로 1989년 일본 자유 여행으로 첫 해외 여행을 다녀 왔으며, 1992년 초등학교 1학년 아들과 함께 배낭을 메고 세계 곳곳을 여행하기 시작하여 그 후로 자동차를 타고 육로로 동남아 여러 나라와 오지마을을 찾아다니는 자유 여행가이다. 2000년부터 태국 치앙마이에서 노후생활을 준비하여 현재 치앙마이에 거주 중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치앙마이의 매력과 오지 여행의 진가를 알려주고 싶은 두 손자의 할아버지이다.

돈에 대한 욕망 앞에 정직해지자



윤성식의

불교 속 부자되는 법

② 욕망과 행복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함부로 표출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부처님의 제자가 어떻게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하느냐고 야단 맞을까봐 불자는 더욱 그런 생각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리라. 만약 부처님이 우리에게 어떤 소원이든지 들어줄테니 말해보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할까?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해 달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부자로 만들어달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쩌면 부자로 만들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행복하게 해달라고 했다가 행복하지만 가난하게 만들어버리면 큰일이지 않은가? 하지만 부자로 만들어주면 행복하지 않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지금도 서점에 가서 행복에 관한 책을 한 두권 펼쳐 들거나, 방송에 행복에 관해 프로그램을 한 두 개만 들어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행복은 내 주변에 널려 있다' '행복이 뭐 별 것인가?'라는 말이다.

행복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면 구태여 부처님께 요청할 필요도 없다. 마음 먹어 버리면 되니까... 내 주변에 행복이 널려 있다면 부자는 남보다 훨씬 더 쉽게 주을 수 있지 않을까? 더구나 내 주변에 있는데 굳이 부처님께 달라고 매달릴 필요도 없다.

나는 행복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행복은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없다. 행복은 내 주변에 널려 있을만큼 흔하지도 않다. 행복이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인간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행복을 얻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어쩌면 행복을 너무 쉽고 가벼운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다. 행복을 아주 사소한 일로 희화화하면 잠시는 위로가 되겠지만 행복은 더 멀어진다.

돈과 행복에 대해 자주 하는 말이 '돈은 행복과 무관하다'는 말이다. 이 말은 최근 들어 많이 줄어든 것 같다. 어쩌면 돈이 행복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자꾸 깨닫게 되어서 그런걸까? 요즘은 돈과 행복의 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말을 더 많이 한다. 예를 들어 '돈이 어느 일정 수준을 넘으면 행복과 무관하다'는 말을 많이 한다. 이 말은 돈은 행복과 무관하지 않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무관하다는 말이니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돈이 행복에 기여한다는 주장이다. 과연 그럴까?

행복에 관한 연구에 보면 이 말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 돈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행복도의 증가는 완만해진다. 하지만 돈이 일정 수준을 넘는다고 해도 행복도가 수평이 되거나 하락하지는 않는다. 증가 속도가 완만해질 뿐 여전히 증가한다. 게다가 재산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돈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더 이상 행복과 돈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일정 수준에 도달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 아직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할거다. 대부분의 사람이 행복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수준에 도달하지는 않았다고 말할 것이다. 아마 현재 자기가 가진 재산의 2, 3배는 되어야 행복이 돈과 무관할 것 같다고 대답하지 않을까? 만약 그 수준에 도달하면 어떨까? 다시 2, 3배는 되어야 한다고 답할 것이다.

어떤 사람의 재산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다고 하자. 그 사람이 돈 아닌 요소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우리 주변을 보면 행복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돈이 많아도 불행하고 적어도 불행하다면 돈이 많은게 좋지 않을까? 돈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도 돈이 증가하면 행복도가 조금씩은 증가하니 그것으로 된 것 아닐까?

행복과 돈의 관계는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한 주제이다. 무엇보다도 행복과 돈에 대해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상식을 넘어서서 사물의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하다. 우리가 불자라면 불교적 관점에서 사물과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속세에서 이야기하는 엉터리 처방이나 상식의 테두리 내에 갇혀서는 안 된다.

행복, 마음먹기 다르다지만
돈에 따라 행복도 증가해
누구나 행복한 부자를 꿈꿔

불교 가르침은 욕망 직시
부자 되려는 욕망과 함께
행복한 세상 위한 노력 필요해



그림 · 박구원

분명 돈이 증가하면 행복도는 조금이라도 증가하지만 돈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행복하지는 않는다. 나랑 가까운 대한민국의 어느 유명한 조세 전문변호사는 업무 때문에 부자를 자주 만난다. 그는 '부자 중에 행복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라고 했다.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 혹시 우리는 모두 다 불행한 것이 아닐까?

우리는 돈만 많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게 아니고 행복하기만 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현대인은 누구나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어한다. 행복과 돈에 대해서 올바른 불교적 해법을 얻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욕망 앞에 정직해야 한다. 욕망 앞에 정직하지 못하면 돈과 행복의 본질을 결코 꿰뚫을 수 없다. 자신에게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면 없다고 거짓말을 하지 말자.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마음을 감추려고 하지 말자. 돈에 관심이 없으면 됐다. 다만 돈에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세상의 기준인양 돈을 좋아한다는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자신은 돈에 관심이 없지만 다른 욕망에 관심이 있을 수가 있지 않은가? 다른 욕망이 얼마나 고상하길래 돈에 대한 욕망을 비난할 수 있겠는가? 돈에 관심이 있으면 불자로서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으니 자신 있게 말해도 된다.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욕망 앞에 정직해져야 한다.

우리는 행복만을 원하지도 않고 돈만을 원하지도 않는다. 행복과 돈은 서로 구별되고 엄격한 경계선이 있는 것도 아니다. 불교적 세상에는 모든 사물과 현상은 독자적 실체가 없다. 행복도 돈도 다른 요인, 조건과 구분되어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돈 없이 행복하기를 바라지도 않고 돈 많고 불행하기도 바라지 않는다.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제일 먼저 자신의 욕망 앞에 정직해지자.

우리는 부처님 당시의 불교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과거를 잘못 안다면 미래를 또 다시 잘못 판단하기 쉽다. 부처님 당시에 불교는 부자의 종교였다. 불교가 부자의 종교였다고 말하면 다들 의아해한다. 불교는 가난한 사람의 종교가 아닌가? 심지어 가난해지려고 하는 종교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스님의 생활을 보면 이런 생각이 당연해 보인다.

부처님 당시는 농업 생산성이 급격하게 증가한 시기였다. 즉 한 사람이 농사지어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숫자가 증가하자 모든 사람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됐다. 잉여 노동력이 수공업에 종사하면서 상업, 공예, 인테리어, 건축 등의 산업이 발달했다. 도시가 팽창하고 인구가 집중되면서 주택의 실내를 잘 장식하는 미술가와 인테리어 업자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기록도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사찰은 산 속 깊은 곳에 있지만 부처님 당시에는 모두 도시에 있었다.

부처님 당시 인도의 계급은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의 4계급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브라만은 사제계급, 크샤트리아는 왕족과 귀족, 바이샤는 평민, 수드라는 노동계급이었고 수드라 밑에는 불가촉 천민이라는 계급이 또 하나 존재했다. 도시의 부자는 주로 평민 계급이었던 바이샤 계급이었다. 평민이 수공업에 종사하면서 부자가 되자 일부 브라만이 체면 불구하고 수공업에 종사해서 돈을 벌어보고자 하는 일도 있었다.

주로 평민이었던 도시 부자들은 가장 혁신적인 종교인 불교에 매료된다. 자신이 평민이기에 계급제도를 부인하고 능력과 노력을 강조하는 불교에 끌렸다고 보아야 할까? 인도는 당시 기존 종교인 브라만교에 대항하는 신흥 종교인이 대거 등장하는데 이들을 사문이라고 불렀다. 부처님은 사문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문이었다. 불교가 부자의 지지를 받은 이유는 불교 교리가 도시 귀족의 문화에 부합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는 서양 학자도 있다. 오늘날 불교를 고루하고 가난한 종교로 인식하는 사람의 눈에 이러한 주장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리라. 게다가 불교는 여성의 출가를 허용했다. 2,600년 전에 여성의 출가를 허용했다는 사실은 가히 혁명적이었다. 지금도 개신교는 여성 목사가 없고 천주교의 수녀는 제사를 집전할 수 있는 사제가 아니다. 불교에서 여성은 당당한 성직자이다.

경전에 부자는 '장자'라고 표현한다. 불교 최초의 사원도 어떤 장자가 기부한 땅에 왕이 건물을 지어준 사원이다. 불교는 부자의 기부에 의해 크게 흥성하였고 부자의 무역로를 따라 전파되었기에 불교를 상업불교(mercantile Buddhism)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무역상을 따라 출가자가 전법 활동을 했는데 밤에는 출가자가 설법을 하고 낮에는 무역상과 함께 이동했다. 이처럼 부자와 불교 출가자는 서로 상부상조하였다.

얼핏 생각하면 동남 아시아의 불교국가가 가난하기에 불교 믿으면 가난해진다는 주장이 잘 먹힌다. 그러나 일본과 싱가포르는 불교국가지만 가난하지 않다. 미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개신교 신도와 천주교 신도보다 불교 신도의 소득이 평균적으로 더 높았다. 게다가 불교 신도의 평균 학력이 제일 높았다. 한국은 어떨까? 조사한바를 접하지 못했지만 어쩌면 한국에서는 불교 신도의 평균 소득이 개신교나 천주교보다 낮을지도 모르겠다. 평균 학력은 어떨까?

불교가 가난하고 저학력자인 사람의 종교가 된다 해도 문제 되지는 않는다. 불교가 꼭 부자와 고학력자의 종교일 필요는 없다. 고통에 신음하는 중생을 구제하는 불교이기만 하면 된다. 다만 원래 부자가 좋아하던 종교가 왜 부자에게 외면 받는 종교가 되었는가를 한번쯤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불교가 고통 받는 현대인에게 해법을 주고 부처님 말씀 대로 중생을 구제하겠다면 오늘날 불교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많은 불자가 막상 불교교리의 핵심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불교교리를 정말 제대로 이해하면 왜 부처님 당시의 부자가 불교를 좋아할 수 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된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부자는 불교를 어떤 종교로 보고 있을까? 만약 불교가 대한민국 부자의 눈에 매력적인 종교로 보이지 않는다면 불교의 진짜 모습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다시 불교의 혁신성을 되살려 불교를 부자도 좋아할 수 있는 종교로 만들어야 한다. 불교 신도로서 올바른 경제생활을 하려면 우선 사물과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욕망 앞에 정직해야 돈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불교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으면 우리의 신행 생활 또한 잘못될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부처님 당시의 역사를 이해하고 불교의 미래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DONGBANG CULTURE UNIVERSITY

2018학년도
학점은행제 불교전공
학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 원서접수 본교 홈페이지 참조 (www.dongbang.ac.kr)
• 원서접수 기간 2018.1.22(월) ~ 2.9(금)
•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 및 졸업예정자
• 입학문의 02) 3668-9871, 9872

– 입학상담은 하영준 (010-3865-846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논리적인 불교 가르침 전하다



원웅 스님의 경전산책

③ 길게 설하신 가르침 〈디가 니까야〉

부처님께서 만나게 되는 모든 이들에게 정법을 가르치며 외도의 그릇된 주장들을 논리적으로 물리치는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경이 바로 〈디가 니까야〉다. 〈디가 니까야〉는 34경은 〈계온품〉, 〈대품〉, 〈빠띠카품〉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부처님이 28개를 설하시고 제자들이 5개, 신(神)이 1개를 설했다. 우리가 잘 아는 〈법망경〉, 〈사문과경〉, 〈대반열반경〉, 〈대념처경〉,〈세기경〉, 〈선생경〉등이 바로 길게 설하는 가르침인 〈디가 니까야〉에 속해 있다.

천한, 고귀한 사람의 차이 〈암밧타경〉

34개의 〈디가 니까야〉에서 추천할 경은 바로 〈암밧타경〉이다. 이 경은 장아함에서는 〈아마주경〉으로 알려져 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500여명의 비구들과 꼬살라지방의 바라문 마을에 도착하여 잇차낭길라의 깊은 숲속에 머무셨다. 그 무렵 지혜로운 바라문인 뽁카라사띠는 가장 사랑하는 제자이며 동시에 뛰어난 천재인 암밧타를 불렀다.

"얘야, 암밧타야, 이곳에 사문 고타마가 500명의 제자들과 오셨다더라. 모두들 그 분을 아라한이시며, 완전히 깨달으신 분이라 하니 그 분에게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임을 나타내는 32가지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 꼭 보고 오너라."

"스승이시여. 제가 아직 부족하여 32상을 지닌 성인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내가 너에게 만뜨라를 주마, 이것으로 그의 특질을 파악하거라. 보통 32가지 모습을 지닌 분은 딱 2가지 길을 선택해서 살 수 있다. 왕위를 계승하여 평화로 세계를 통일하는 전륜성왕이거나, 만약 출가한다면 부처님이 되어 세상을 광명으로 빛나게 한다. 너는 보자마자 알게 된다."

암밧타는 스승에게 절하고 500명의 도반들과 부처님이 계신 숲에 이르러 위풍당당 소리치며,

"존자들이여. 지금 그 분 고타마존자는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그 분을 뵙고자 왔습니다."

비구들은 부처님을 존자라 부르는 그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들을 부처님께 안내 했다. 그런데 참 가관인 것은 암밧타가 부처님이 서시면 앉고, 부처님이 앉으시면 서서 오만불손하게 웃으면서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다. 마침내 부처님이 암밧타에게 물었다.

"그대는 나이가 많고 덕이 높은 모든 바라문들과 평소에 이렇게 대화하는가? 이것이 자네 스승의 법도인가?"

"아니요! 그럴리가요. 저희 스승님이 앉으시면 저희도 앉고, 스승님이 서서 걸으시면 저희도 따라 걸으며 이야기하고 듣습니다. 그런데 고타마존자는 사문이며 석가족이잖습니까? 사문들은 바라문법을 위배해 머리를 깍고 홀아비이며 비루하고 하열해서 어두운 법을 익히고 있고, 또 석가족은 우리 조상의 발에서 태어난 자들이라 그들과 말 할 때는 지금 고타마에게 하듯 합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진정하고 온 목적을 생각해보라한다. 이 말에 더욱 모욕감을 느낀 암밧타는 카스트제도권 내의 제 1의 신분을 내세워 석가족의 비천함을 거듭 말하자, 일촉즉발 500대 500의 싸움이 일어날 순간이었다. 이 때 부처님은 암밧타를 진정시키며 참으로 존귀한 사람, 진정한 바라문이 되려면 먼저 도덕성(戒)과 고귀한 인품(定), 높은 식견(慧)을 갖춰야 한다. 만약 옛 바라문선조들의 이름아래 숨어 직업바라문이 되는 경우는 최악의 천한 사람이 된다고 엄하게 꾸짖는다.

"암밧타여, 혈통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얼마나 지혜와 실천을 구족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점을 잊지 말아라."

암밧타는 돌아와 부처님을 만난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더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이 뽁카라사띠는 벌떡 일어나 32상을 지닌 분을 함부로 대했다며 암밧타를 발로 차버렸다. 그리고 당장 부처님을 뵈러가 법을 청하자 부처님은 32상을 모두 드러내어 보여주셨다. 그는 부처님께 사성제의 가르침을 듣고 법안(法眼)을 성취했다.

〈서울 반야사 주지〉

마음 밖서 구할 것 없는 도리 깨닫다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② 선지식과의 만남 2

부끄럽지만 변하기 전의 내 모습을 먼저 말씀드려보자. 나는 외부의 자극에 지극히 민감한 감수성이 강한 청년이었기에, 정(情)도 많았고, 눈물도 많았으며, 좋아하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였고, 좋아하는 서책도 매우 좋아하였다. 좋은 인상의 사람에게는 쉽게 빠져들고, 괜찮다는 서책에도 쉽게 빠져들고, 그럴듯한 진리라면 쉽게 그리고 깊이 빠져들었다. 책 내용에 빠져 들어가는 한은 그 책 내용은 엄연한 사실이요, 반드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였다.

조계사에 가서 참선하시는 스님들의 법문을 듣기도 하여, 선가(禪家)에서 말하는 심외무법(心外無法, 마음 밖에서 모든 것을 존재하지 않는다)이라는 말씀에 일부 공감하기도 하였지만 마음밖에 어떤 세계도 엄연히 존재하고 또 부처님의 세계도 반드시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처럼 어린시절의 나는 증애심(憎愛心), 간택심(揀擇心) 즉 사람과 사물에 잘 집착하여 사랑, 미움으로 이름을 짓고 갈등하는 마음이 어린 시절 제 마음의 주류였다 할 것인데, 이런 사랑과 미움의 갈등의 마음은 해결할 그 무엇을 찾으려 하였는데 이것이 자신도 모르게 불법을 찾게 하였는지도 모른다. 불교를 만나자마자 나는 깊이 빠져 들어갔다.

부처님 가르침에 심취해 경전을 부지런히 읽고 수행도 하느라 하며 눈 밝은 스승이 계시다면 부지런히 찾으려던 나는 친구의 소개로 당시 동국대 총장을 사임하시고 경기도 부천에 칩거하시던 백성욱 박사를 만나게 되었다.

한국인 최초로 독일에서 철학박사를 얻은 천재, 전생을 훤히 꿰뚫어 보는 숙명통(宿命通)을 하셨다는 이인(異人). 다른 사람의 마음도 훤히 다 아는 타심통(他心通)을 하셨다는 도사, 이것이 백 박사를 따라다니는 별칭이었다. 어떤 사람은 이 분을 시대의 인물이요, 당대 대선지식이라 말하기도 하였다.

백 박사를 처음 만나 법문을 들으면서 완전히 법문에 압도당하고 말았다. 명불허전(名不虛傳)! 백 박사의 법문은 지금까지 큰스님께 듣던 법문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법문을 들으며 〈육조단경〉의 다음 구절이 생각나게 하였다.

혜능 대사가 5조 홍인 대사로부터 법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뒤, 이제는 세상에 법을 펼 때였다. 광주 법성사에 이르니 거기는 인종법사가 있어 열반경을 강의하는 중이었다. 그 때 마침 바람이 불어와서 깃폭이 펄럭이고 있었는데 그걸 보고 한 중은 "바람이 움직인다"하고 한 중은 "깃폭이 움직인다"고 하여 서로 다투고 있었다. 혜능 대사가 듣다가 "바람의 움직임도 아니며, 깃폭의 움직임도 아니고 당신네 마음이 움직이는 것일세" 하니 온 대중이 놀랐다. 이때 인종 법사하는 말이 "당신의 법문은 황금과 같고 나의 법문은 기왓장 같소"였다.

나는 백박사님의 처음의 말씀을 듣고 "당신의 법문은 황금과 같고"라고 한 인종 법사의 말씀이 생각난 것이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었다라고 하신 혜능 대사처럼, 백 박사의 법문 역시 '무엇이든 마음 속에서 다 얻을 수 있다' '출세건 행복이건 진리건 부귀영화건 모든 것은 마음속에 다 구족되어 있으니 마음밖에 무엇을 찾아 헤매지 말라' 와 같이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말했기 때문이다. 이런 특징 때문일까. 백 박사 법문은 마치 인종법사가 말하는 황금 같은 법문이라 여겨진 것이었다.

이 일체유심조 진리에 입각한 법문은 마음 밖에서 모든 것을 다 찾고 있었던 나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언제인가 조계사 법회에서 들었던 심외무법(心外無法)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며 마음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 정말 실감나게 된 것이었다. 마음 밖에서 무엇을 구할 필요가 없고 다 마음속에 구족되어있다는 법문, 이것은 지금까지 경전속에서 듣지 못하였던 시원한 말씀이요 희망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라 생각된 것이었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대의심, 근원에 대한 '끝없는 물음표'

대의심(大疑心)은 큰 의심이란 말인데, 이는 화두를 철저하게 의심하는 것을 말한다.

무문 혜개선사는 "삼백육십개의 골절과 팔만사천개의 털구멍으로 온 몸을 다 들어 의심하라"고 말했다. 화두를 일단 들면 철저히 의심하라는 메시지다. 화두로 간절한 의심, 근원적 의심을 마음속에 품고 삶을 관하고 살피며, 부처님 가르침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은 인생을 남들보다 의미있고 값지게 사는 길이다. 우리가 화두를 드는 순간, 간절한 의심을 일으키는 순간, 내가 본래 그 자리에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생각을 늘 해보자. 화두를 들고 거기에 간절한 의심을 품고 수행하는 것은 아마도 인간 본연의 삶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서산대사 송(頌)에 "만의도취일의단(萬疑都就一疑團) 의래의거의자간(疑來疑去疑自看) 수시나룡타봉수(須是拏龍打鳳手) 일권권도철성관(一拳拳倒鐵城關)"는 말이 있다. 의미를 해석하면 "만가지 의심을 다 몰아 한 의단으로 나아가라. 의심해 오고 의심해 가서 의심하는 자신을 보아라. 모름지기 용을 잡고 봉황을 잡는 용맹한 사람이라야 한주먹으로 처서 쇠로된 성벽 관문을 부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이다. 이렇듯 자신을 비춰보는 금강보검(金剛寶劍)인 신무기가 바로 '이 뭣고'인 것이다.

오매불망(寤寐不忘) 의심을 이어가는 데는 처소(處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부승상포단(不僧上蒲團)이라, 한번도 방석위에 앉지 않고, 지시종조지모(只是從朝至暮)하며, 다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보불리(步步不離)라, 걸음걸음마다 화두를 놓치지 않고, 심심무간(心心無間)하여, 마음가운데 간

"삼백육십개의 골절과 팔만사천개의 털구멍으로 온 몸을 다 들어 철저히 의심하고 또 의심하라"

단이 없어서, 여시경급삼년(如是經及三年) 증무일념해태심(曾無一念懈怠心)하듯이 삼년이 흘렀는데 일찍이 한 생각도 게으른 생각이 없다는 마음으로 한다면 성불할 수 있다.

꼭 포단에만 앉아서 만이 아니고 이렇게 포행하면서 '이 뭣고' 의심하고 또 의심해 가면 반드시 깨달음을 기약하게 된다. '이 뭣고'는 집에서 빨래하고 밥 짓고 청소하고, 농사 짓고, 직장서 근무 하면서 눈을 감으나 앉으나 서나 누워서도 해보자. 차를 타고 가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무슨 일을 하면서도 항상 '이 뭣고'가 끊어지지 않아 쌀 한톨이 모여 한홉이 또 모여 한말이 되듯이 차츰 응집력이 쌓이게 되면 마음이 불안에서 벗어나 평온해 진다. 이렇게 되면 죽음에 대한 공포서 벗어남은 물론 찰나간 생사(生死)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또한 타성일편(打成一片)이라, 분별심 작용이 완전히 멈춰져 색상경계의 실체감이 사라져 버리면, 그 색상 경계가 실상(實相)이 아니라 본연청정(本然淸淨)의 상(相) 즉 비상(非相)임을 알게 되며, 내면의 성품 또한 비상이어서, 경계가 없이 툭 트여 통해 있음을 보게된다. 즉 내면의 성품과 바깥 색상 경계가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며, 삼라만상이 하나의 마음 즉 일체유심(一切唯心)을 깨닫게 되며, 천만(千萬) 가지 생각을 하나에 다 모아 버리는 것을 전제한 현전일념(現前一念)인 '이 뭣고'가 끊이지 않아야 이루어 지는 것이다. '이 뭣고'가 내몸과 하나 되어 의심 덩어리만 홀로 빛나는 것을 의단독로(疑團獨露)라 한다. 생각이 빠져나갈 틈이 전혀 없는 순간, 앞뒤로 꽉막혀 오도가도 못할 때 은산철벽(銀山鐵壁)을 뚫고 나가는 것이다. 마치 코뿔소 뿌리 저 안쪽에 있는 먹이를 찾아 들어간 쥐가 뒤돌아 나올 수가 없는 경지서 뚫고 나가야 하는 긴박한 상황을 말한다.

궁즉통(窮卽通)이라는 말처럼 인생사는 궁하면 통한다. 막다른 골목에 다달았을 때 화두가 타파 되는 것이다.

〈남양주 선재사 주지〉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승가회 종도모집

귀의 하옵고,

불제자로서 수행과 전법 포교만을 위해 함께 하실 제방의 큰스님들을 모십니다.

입종안내

1 입종 구비 서류 (승가원 비치)
- □ 사찰 및 승려등록 신청서 …… 1부
-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진 …… 1매
- □ 주민등록 등본 …… 1통
- □ 반명함판 사진 …… 3매
- □ 사찰 법당 내 · 외부 사진 …… 각1매
- □ 귀 종단 계첩 및 승려증 사본 …… 1매

2 발급 증명서
- □ 승려증
- □ 사찰등록증
- □ 주지 임명장

■ 문의 : ☎ 053)654-0408. 010-5051-3422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현충로 5길 99 원광사

(전화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 본 종단은 문광부 허가 제2010호-4호

※ 법인등록 274321-0029935로 등록된 사단법인 종단입니다.

남·녀 행자 수시 모집 합니다

(사) 대한불교조계종 승가회 승가원 승가원장 고암 정인 합장

출강 및 통신 2018학년도 제27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 교육 신입생 모집

탁월한 불교교육과 정명한 법사자격을 원하십니까?

"불교법사 양성 전문교육(1년제)"

◆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은 정통한 법사교육으로 27년의 전통과 신뢰로서 자랑과 긍지를 삼고 있습니다.

①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인증하는 법사자격 법위증이 수여됩니다.
② 불교학 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 교육합니다.
④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합니다.
⑤ 법사품수 후 사찰 · 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 대법사과정(2년) · 불학연구원과정(5년) · 불교석학과정(2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8년 2월 28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 · 우편 · 팩스 · 메일) 제주교육원(☎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일 주 문



탄허기념박물관 특강

혜거 탄허기념박물관장 스님은 1월 28일 오전 10시 30분 관내 보광명전서 혜민 스님 초청 특강 '행복이야기'를 개최한다.



부산민족서로돕기 총회

무원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스님은 1월 31일 오후 7시 부산진구 본부 사무실서 2018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불교지화 강습회

정명 불교지화장엄전승회장 스님은 1월 29~31일 김천 직지사서 조계종 승려연수교육 인증 '불교지화 강습회'를 실시한다.



공불련 신년법회

김상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은 2월 3~4일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영천 은해사서 불기2562년 신년법회를 봉행한다.



선운사, 상구보리 하화중생 원력 다져

포살법회 · 지성대종사 20주기 추모재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는 1월 15일 동안거 포살법회와 태허당 지성대종사 20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 선운사 지장보궁에서 열린 포살법회는 선운사 대중스님들과 선운사 불학승가대학 학인스님, 참당암 · 도솔암 · 석상암 등 산내암자와 말사스님 등 사부대중 110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날 포살법회는 선운사 불학승가대학원 강주 재연 스님을 포살법사로 예경삼보에 이어 조계종단의 〈범망경보살계포살본〉을 중심으로 〈불설범망경〉 보살십지품, 십중대계, 사십팔경구계를 독송하고 사부대중은 계율을 준수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을 다짐했다.

포살법회 후에는 선운사와 내장사 주지를 역임하는 등 선운사 중흥을 이끌었던 태허당 지성대종사 20주기 추모재가 봉행됐다.

추모재에서 태허 스님의 문도를 대표해 법경 스님은 "은사스님의 20주기를 맞아 늘 하심하라는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게 됐다"며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선운사 대중이 더욱 수행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운사는 같은 날 템플스테이 세미나동에서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韓日문화, 바르게 알리고 싶어요"

Interview

한일문화 알리미 나카노 요코 자유기고가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서울 특파원 남편 따라 한국행
3년 서울 생활하며 매력 빠져
"종로 연등축제 매년 찾았죠"
한국인에게 바른 정보 주고파

"일본에서 보는 한국 발 뉴스는 대부분 안 좋은 이야기만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들도 많아요. 그런 뉴스를 접하면 한국인에게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반대로 한국에 살 때도 일본 관련 뉴스가 그리 좋은 이야기가 있지는 않았죠. 두 나라에 대해 바르게 알리고 싶었어요."

본지에 '간사이 아줌마의 일본 사찰 엿보기'를 연재한 나카노 요코(中野葉子 · 57 · 사진) 씨가 밝힌 연재의 이유다. 최근 한국불교 사찰과 문화 답사를 위해 한국을 찾은 그를 만나 연재 후일담을 들었다.

요코 씨의 한국어는 매우 유창하다. 의사소통은 물론 글쓰기에도 문제가 크게 없다. 그런 만큼 가장 궁금했던 것은 한국과의 인연이었다.

그가 한국과 인연을 맺은 것은 아사히신문 논설위원인 남편 나카노 아키라 기자를 따라 도쿄에서 머물면서부터다. 요코 씨는 도쿄서 한국어학당을 다니면서 한국어를 2년간 배웠고, 1년 동안을 한국 드라마인 '겨울연가' '가을동화' '대장금' 등을 보며 독학했다. 대학 시절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전공해 언어 습득 능력이 남들보다 뛰어났던 점도 한몫했다.

2011년 남편이 서울 특파원으로 발령이 나면서 3년간의 서울살이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한국 문화의 매력에 빠지게 됐다. 그때부터 한국 사찰을 찾기 시작했다. 집에서 가까웠던 조계사는 필수 나들이 코스였다. 한국불교 사찰은 일본과 달랐다. 매우 개방적이고, 역동적이었다.

"일본 사찰에는 비불(秘佛) 개념이 있어서 불상들을 잘 볼 수 없어요. 한국은 다르더군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어요. 3년 동안 종로에서 열리는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에도 매년 참여했어요. 정말 재미있는 기억이었습니다."

반대로 아쉬운 점으로는 일본인이 한국불교를 알 수 있는 정보가 너무 한정적인 점을 꼽았다. 그러면서 한국인 역시 일본불교와 사찰을 알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제가 연재를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일반관광 사찰이 아니라 정말 일본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사찰을 한국인에게 소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한반도 도래인(渡來人)들의 문화가 남아 있는 사찰을 알리고 싶었죠."

마지막으로 요코 상에게 한국인에게 추천하고 싶은 일본 사찰과 일본인에게 추천하는 한국 사찰을 질문했다. 곧바로 답이 왔다. 꽃과 관음신앙으로 유명한 나라의 하세데라(長谷寺)와 영주 부석사였다.

"하세데라는 일본 관음신앙을 잘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꽃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영주 부석사도 정말 아름다운 사찰이죠. 무량수전도 아름답지만, 사찰과 주위 풍광이 조화를 잘 이루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과 일본이 서로 좋은 점만 볼 수 있다면 갈등이 좀 더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월서 스님, 캄보디아서 불교 우의 다져

승왕청 초청에 방문,
왕립학교에 컴퓨터 기증

조계종 명예원로의원이자 법주사 조실인 월서 스님이 캄보디아와 양국 불교계의 우의를 다졌다.

월서 스님은 1월 10일 캄보디아 왕립 쁘레아시하누크라자 불교대학교서 500여 교직원과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컴퓨터를 기증했다. 월서 스님의 컴퓨터 기증은 2013년 이후 3번째로 캄보디아 불교대학교의 교육선진화를 위해 진행돼왔다. 스님은 또한 대학 요청에 따라 교직원들의 연수활동을 후원하기도 했다.

이날 불교대학 부총장 욘 셍예 스님은 "월서 스님의 컴퓨터 후원에 불교대학교가 크게 발전하고 있다"며 "이번 기증 덕분에 지방 분교인 바땀방과 깜퐁츠낭, 깜퐁짬의 대학교도 혜택을 입게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월서 스님(오른쪽)이 캄보디아 승왕 텝봉 스님으로부터 감사장을 받고 있다.

이에 월서 스님은 1961년 캄보디아 프놈펜서 열린 제6차 세계불교대회에 참석한 은사 금오 스님을 회고하며 "불교대학교 발전과 함께 재학생들이 연구에 매진해 캄보디아 발전의 초석이 되길 기원한다"고 화답했다.

같은 날 월서 스님은 캄보디아 승왕청 초청으로 승왕청을 방문, 승왕 텝봉 스님을 예방했다. 두 스님은 1993년 일본서 처음 만난 이후 세계불교도대회를 통해 수차례 만난 바 있다.

텝봉 스님은 월서 스님의 지속적인 캄보디아 후원에 감사를 표한 뒤 감사장을 전달했으며, 월서 스님은 크메르루주 만행에 의해 초토화된 캄보디아 불교를 복구시킨 텝봉 스님의 법력을 높이 평가했다.

김주일 기자

진안 쌍봉사 신년맞이 떡국나눔



진안 쌍봉사(주지 보경)가 무술년 새해를 맞아 지역 어르신 200명을 초청해 새해맞이 떡국나눔행사를 개최했다. 1월 12일 대한노인회 진안군지회 2층 강당에서 열린 행사는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의 뜻을 전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은 "새해를 맞아 어르신들이 건강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효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연화조계종 신년하례법회



(사)대한불교연화조계종은 1월 12일 총본산 영천 정림사 경내 대웅전에서 무술년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종정 보명 스님과 총무원장 혜법 스님, 종회의장 법진 스님, 문화부장 정호 스님 등 20여 명이 동참했다.

총무원장 혜법 스님은 "소통으로 단합해 종단 중흥의 초석을 놓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대원불교조계종 신년하례법회



(사)대원불교조계종은 1월 12일 총본산 양산 불광사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종정 청봉 스님, 총무원장 혜오 스님을 비롯해 원로의원, 각 원장스님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종정 청봉 스님은 신년법어를 통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새벽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 인류에 큰 영향을 주었다"며 "본래면목을 바로보고 수행 정진하는 납자가 돼달라"고 당부했다.

경남남부지사장 청운 스님

제 98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8년 1월 31일 개강
◆ 강의일시 :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제16기 불교의식(범음·범패·작법) 학인모집

한국불교예술대학에서 아래와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입회비(교재비 포함) 20만원을 제외한 **1년 과정 교육비 일체 "무료"**

■ **범패 의식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오후 3시 30분)
기본 불공의식. 사십구재. 천도재 작법에 필요한 소리 및 사물(태징, 목탁, 북, 요령)다루는 법. 사십구재 · 천도재 · 장엄 및 제사 준비등 전과정

■ **작 법 무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30분 ~ 오후 5시)
⇨ 나비춤 - 사방요신. 다게작법. 도량게작법
⇨ 바라춤 - 요잡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관욕게바라

■ **지도교수 :** ⇨ 종송. 도량석. 예불. 각단불공 및 목탁. 요령. 태징. 북 치는 법 [동허스님]
⇨ 작 법 : 나비무. 바라무 기초과정 [지공스님]
⇨ 천도재의식 전과정. 작법무 전문과정 [보유자 일초스님]

● 개강일시 : 2018년 3월 6일(화요일) 오후 2시 30분
● 모집인원 : 00명 (선착순) ● 강의요일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5시
● 접수기간 : 2018년 1월 ~ 2018년 2월 28일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정파 교육원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 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주 소 :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599(문학동) 인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2층 202호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 349-6)
전화 : 032)529-6708 / FAX : 032) 529-6709 / 홈페이지 : http://www.bumpae.org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 & 작법무(나비춤)보존회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존회

부설 **한 국 불 교 예 술 대 학**



전임회장 증현 스님(왼쪽)이 소운 스님에게 단체기를 전달하고 있다.

광주 동구불교협의회 신임회장에 소운 스님

1월 13일 신년하례법회서 취임

광주서 불교인구가 가장 많은 동구 지역 신임 불교협의회장에 소운 스님이 취임했다.

소운 스님은 1월 13일 광주 수자타서 열린 동구불교협의회 신년하례법회 및 회장 이·취임식에서 "불교는 인류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불교 가르침을 접한 것이 큰 행운으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소운 스님은 동구불교 발전과 승가화합에 소속 회원사찰들이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 내 원로스님들에게 신년하례를 올린 뒤 통알, 이·취임식, 장학금 전달식, 쌀 전달식 등이 차례로 열려 신년 첫 모임을 뜻 깊게 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부산에 부는 어린이포교 '신바람'

축구·찬불가 포교 방편 활기, 안거 수행도…

합창단·축구교실 대폭 늘어
건전한 취미에 子母들 호평
불교와 친숙해지는 계기 돼
안거 수행으로 신심도 다져

하성미 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 어린이 포교가 찬불가와 축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력을 얻고 있다. 사진은 1월 13일 개최된 제2회 천진불어린이연합합창제.

부산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포교가 새로운 활기를 띄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부산에서 전법활동을 펼치는 스님들이 사찰서 축구 교실과 합창단을 결성해 어린이를 모집하고 있다. 스님들은 연합합창제를 실시한 데 이어 올해 청소년을 위한 축구 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 매년 안거를 맞아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수행 프로그램을 운영해 불교 교육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 1월 13일 제2회 천진불어린이연합합창제가 부산 금정문화회관서 열렸다. 지난해 처음 부산 관음사 단이슬어린이합창단을 비롯해 4개 사찰로 시작했으나 올해는 울산 황룡사 나모라어린이합창단, 부산 흥법사 동림소년소녀합창단이 동참해 총 6개 사찰로 확대됐다. 이날 어린이 250여 명과 자모회원 500여 명이 대거 참여해 어린이 합창제로 하나 되는 큰 성과를 보였다. 내년에 열릴 제3회 합창제는 서울 조계사, 대구 동화사, 안국선원 교육관, 부산 혜원정사서도 참가 의사를 밝혀 대회 성장이 기대된다.

천진불어린이연합합창제는 각 사찰에서 운영하는 합창단을 통해 어린이 포교 성과를 보여주는 결과물이여서 큰 의미가 있다. 지난해 첫 합창제 개최를 위해 연합한 4개 사찰 가운데 관음사(회주 지현) 단이슬어린이합창단은 2016년 7월 창단됐다. 현재 단원은 만 6~14세로 구성돼 있으며, 매주 일요일 법회 후 환희요양원 5층 강당에서 연습 중이다. 합창단 창립 전보다 어린이법회 참가 인원이 꾸준히 늘어 어린이 포교에 희망을 보여줬다. 이뿐 아니라 범어사 포교원 대원사(주지 담화림)는 대원선재합창단을 2015년 12월 창단했다. 이후 50여 단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자모회가 결성돼 든든한 신행단체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에는 부산 대광명사, 안국선원 교육관도 어린이합창단을 창단했으며 동명불원도 어린이합창단 창단에 관심을 갖는 등 어린이 포교에 활력을 주고 있다.

합창단 외에 스포츠를 통한 어린이 포교도 주목을 받고 있다. 원오사(주지 정관)는 매주 토요일 운봉 초등학교에서 축구교실을 열고 있다. 축구교실에 참여하는 25여 명은 불교를 처음 접하는 어린이가 대부분이다. 스님을 처음 만나는 아이들이 불교를 친근하게 접하고 건강에도 도움이 돼 지역 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고 있다. 축구교실을 위해 원오사 신도들은 자체적으로 모금 운동을 진행하고 유니폼 제작, 간식 등을 후원하며 1급 전문 축구지도자까지 매주 초청해 실력을 향상 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주지 정관 스님은 "아이들이 운동을 하면서 집중력도 좋아졌고 컴퓨터와 핸드폰 등에 집중하는 모습이 많이 사라져 부모들이 특히 좋아한다"며 "자발적으로 자모회 구성 움직임도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축구는 불교를 친근하게 접하도록 돕는 하나의 창구 역할을 담당한다"고 말했다.

현재 부산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축구단은 안국선원 교육관과 불국토 청소년도량 양정 청소년수련관이 있으며 미타선원, 김해 바라밀선원, 흥법사도 어린이 축구단 결성에 관심을 두고 있다. 앞으로 어린이 축구단을 위한 연합대회도 열릴 예정이다.

찬불가와 스포츠로 어린이들이 불교를 접하게 했지만 현장서 활동하는 많은 지도자들은 이들을 불제자로 이끌고 신심 성장을 돕는 것을 제일 중요한 과제로 꼽는다. 이를 위해 부산불교계는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수행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다.

사단법인 동련(이사장 신공)은 겨울방학을 맞이한 어린이를 위해 '어린이 재가 동안거 감사수행'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하안거에 이어 두 번째인 어린이 안거는 겨울방학 21일 동안 '내 안의 감사향기'라는 수행 노트에 일기처럼 감사한 내용을 적는다. 노트에는 사불과 주력, 진언 수행까지 어린이 눈높이 맞춘 수행법이 다채롭게 구성돼 있다. '내 안의 감사향기' 노트 기획은 김경숙 흥법사 어린이청소년교육연구소장이 담당했으며, 노트 제작은 조계종부산연합회가 후원했다. '어린이 재가 동안거 감사수행'은 1월 7일부터 개별 사찰에서 진행됐으며 회향법회는 28일 오후 2시 부산 흥법사에서 봉행된다. 이번 동안거에는 부산 흥법사, 법륜 유치원, 송광사 부산분원 관음사 등 12개 사찰 450여 명의 어린이가 참여 중이다.

한편, 동련은 '내 안의 감사 향기' 프로그램을 청소년 인증 프로그램으로 등록하고 오는 2월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온고지신 마음으로 교구 발전 이루겠다"

신임 진각종 부산교구장 진광 정사



진각종 부산교구청장에 진광 정사가 취임했다. 진광 정사는 앞으로 부산·경남 16개 심인당을 이끌고 부산불교연합회 상임부회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진광 정사(사진)는 1월 16일 진각종 부산교구인 범석심인당에서 열린 신년하례에서 온고지신의 마음으로 노력할 것을 밝혔다.

진광 정사는 "부산교구장으로 앞서 활동한 효원 정사님의 원력을 이어받아 성실히 이끌고, 새롭게 부임한 만큼 기존 사업을 튼튼히 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불교연합회 상임부회장직 활동을 통해 재가종단인 진각종의 모습이 낯설지 않도록 다가가고 화합하며 협조하는 모습으로 일신하겠다"고 전했다.

하성미 기자

태고종, 베트남 교육환경 개선 나서

전북종무원 해외복지팀 교육시설 지원 MOU



베트남 닥랑성 초등학교와의 업무협약식에서 태고종 전북종무원 스님들과 닥랑성 관계자, 학생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원장 진성, 마이산 탑사 주지)이 베트남 닥랑성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에 나서 해외구호활동의 모범을 보였다.

태고종 전북종무원 해외복지팀은 1월 8~14일 베트남 닥랑성을 방문해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초등학교의 시설 보수와 식수시설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종무원장 진성 스님과 총무국장 송운스님, 선훈사 도우 스님, 금왕사 지봉 스님, 권영원 태고 해외복지 호치민센터장, 유영수 전라북도 닥락성 한글학교 지원센터 간사 등으로 구성된 해외복지팀은 이 기간 동안 산골오지 초등학교인 양마우 초등학교 등을 돌아보며 교육시설 지원을 약속했다.

최근 전라북도와 베트남 닥랑성이 진행 중인 정치·경제·교육·종교·사회·문화 교류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협약은 양마우 초등학교에 우물관정 시설과 식수대 설치, 정수기 설치 및 관리, 교사 생활관 및 교실 보수공사, 학용품 후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올 상반기 중으로 1차 후원을 마무리 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닥랑성 외무부 관계자와 교육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후원에 대한 감사인사를 전했다.

진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은 구호물자를 받는 나라에서 지원하는 나라로 발전했다"며 "양마우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맑은 물을 마시게 하고, 학업에 충실할 수 있는 지원으로 학교를 돕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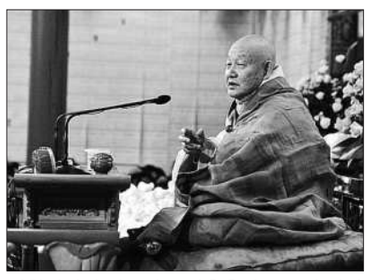
스님은 이어 "태고종 전북종무원은 정수 식수대를 설치,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며 학생들을 위한 향상된 복지를 위해 끊임없이 후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1월 9일에는 호치민 구찌구 텅턴호이 초등학교를 방문해 설치한 식수대를 점검하고 정수기 필터를 교환했다. 또 전교생 680명에게 노트 2040권, 연필 1360자루를 선물하고 선생님들에게는 인삼차를 전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萬法歸一' 통도사 화엄의 장 원만회향

화엄산림대법회 총 10만 명 참가, 성황 이뤄



회향법회서 법문하는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대행 성파 스님.

부처님 가르침의 광대무변함을 드러낸 화엄의 바다를 법회로 이어온 통도사 화엄산림대법회가 원만회향 했다. 통도사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전국서 찾아온 불자가 총 10만 명에 달해 성황을 이뤘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영배)는 1월 16일 설법전에서 화엄산림대법회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방장대행 성파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1만 명이 동참했으며, 법석 후 대중의 시식과 위패봉송을 통해 선망부모와 영가를 위한 시간도 이어졌다.

방장대행 성파 스님은 "한 달 동안 80권 〈화엄경〉을 공부하며 무량복을 위한 인(因)을 심었다"며 "만법귀일 일귀하처라 했다. 세상 수많은 것에 부처님의 법을 비유하고 설명해 만 가지법이 있지만, 한 마음을 깨치면 〈화엄경〉을 한 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심안, 마음의 눈을 뜨라"고 법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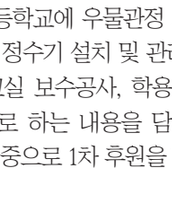
주지 영배 스님은 "올해는 전국에서 활동하는 대강백 스님을 모셔 다양한 법석을 열고자 노력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관심 가져줘 좋게 회향할 수 있었다"며 "숨은 자리에서 봉사하고 노력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통도사는 화엄산림대법회를 지난해 12월 18일 시작해 오전, 오후 두 차례에 걸쳐 30일간 〈화엄경〉 정진을 이끌어왔다. 통도사 화엄산림법회는 경봉스님이 1971년 시작한 이래 해마다 열리고 있으며 국내 최대 법석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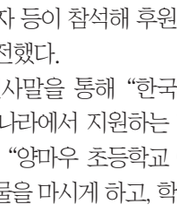
이도경 부산지사장

지구촌 최대이슈 생노병사의 원천 천하대도법
부처님 성불하신 숨쉬는법으로 죽음을 면하는 생사 해탈
두뇌호흡으로 주인혜안과 영혼에 문을 열어 인간은
누구나 부처가 되는 천장지비 용맹정진대법회

죽음을 면하여 운명을 연장한다면 종교를 초월 이세상에 누가 죽을 사랑 어디에 있으며 인간은 누구나 건강장수 부귀공명 성불하여 죽음을 면하려고 출세, 부귀, 출가, 종교, 정진, 보약 등으로 늙고 병들지 않으려고 속세를 떠나 수행하고 있으나 혜명 천지 사람사는 밝은 세상에 종교의 이그러진 법도와 수행으로 암흑의 종교로 탈피되어 귀신들 장난에 빠져 천하를 다주고 살 수 없는 생명을 바른 스승 잘 못 만난 종교종단에 빠져 말과 문자 염불 참선 각종 수행에 빠져 부처와 마음과 생명이 들어다니는 현문이나 현관 안에 마음주인과는 거리가 먼 수행으로 방석과 학문수행에 극락과 천당을 유유하니 자신이 늙고 병드는 생명은 누가 대신할자 없으니 만종만교종파가 날뛰며 스님 도사, 교주, 스승, 무당, 만신, 철학, 무술, 마술, 요가, 단전, 의술 등 모두 일불제자로 숨쉬는 생명 주인공 보고 듣는 견성하고는 하늘땅 차이, 마음심자 하나의 근본도 모르면서 허상과 귀신놀음에 젖어 중음신 놀음에 방석과 씨름하니 오직 죽을자가 사는길은 마음을 여는 호흡으로 숨쉬는 놈 내주인공을 빛으로 여는 영혼에 문을 이제라도 두뇌호흡으로 극락천당 가는 1분 3분 당신이 부처가 되는 수행 옴마 수련으로 부처가 되는 대용맹정진에 수행하소서. 혜안과 영혼에 문 현관을 열어야 성불한다. 숨을 멈추고 60초 천안통, 120초 천이통, 180초 타심통, 240초 숙명통, 300초 신족통, 360초 루진을 부처님 사분 6년고행 360궁 도시촌으로 사만트라-천상계, 사만다라, 지구계,사구계 중생계, 사성제 영혼계



일체 고액 소멸하는 달마구입처 : 태일 010-9292-3110



환성 지계수복자 태일대사

■ 입제일 : 2018년 1월 27일(음 12.11) (토) 밤 9시 ■ 해제일 : 1월 28일(음 12.12) (일) 해시
■ 준비물 : 필기도구 간편한 옷 무박 2일. 죽음을 면하는 수행
■ 계좌번호 : 농협 029-01-167866 곽한영(태일)
■ 상담전화 : ☎ 032-502-6625, 010-9292-3110, 010-9718-4449

주소 : 인천시 부평구 대정로 34 천지공사 불선도 천궁도통회
사)대한불교달마조계종 예성용천사 환성 지계수복자 태일대사 합장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1979년부터 국내최초로 각종 마이크를 연구, 개발해
전 세계에 수출을 주도해온 음향계의 원로
(해월)김문화가 몇 달간의 법당 실험 후
드디어
모든 스님들께 자신있게
권하는 마이크 –

소장 : 김문화 無線設備技社
제1급아마추어무선사

고성능 마이크 출시!
염불, 법문전용 초 원거리용

탁좌에 꽂은 모양



◆가격 : 175,000원(홀더포함)
2개 구입시 : 305,000원

※ 자체 개발한 마이크용 목걸이 증정합니다!

•60cm이상 떨어져도 맑고 힘있고 장엄하게 울리는 소리에 한번 놀라고!
•목에 걸어도, 탁좌 스탠드에 꽂고써도, 뛰어난 성능에 한번 더 놀라는 마이크!

본 초 고성능 마이크는 원거리용 고감도, 고성능마이크로, 법당의 탁좌, 또는 좌대의 염불, 법문, 전용으로 행사시 사회자용이나 "찬불가" 용 등 어느곳에 사용 하여도 뛰어난 원음의 소리를 스피커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목에 건 모양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010-5335-2695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300호)

◆취급품목◆
▪최고급 파워드믹싱앰프
▪일반 스테레오엠프
▪법당 전용 대출력 스피커
▪각종 무선 마이크

주문 계좌 : 우리은행 김문화
1002-610-963886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이 마음 걷잡을 수 없이 변덕스러워 그가 좋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곳을 공상하면서 날아간다. 이 마음 다스리기 너무 어렵나니 그러나 현명한 이는 이 마음 잘다스린다. 잘 다스려진 마음은 행복의 근원이다.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를 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신 묘 방 편 력

사찰, 포교당, 대지,
건물등 속히 매매 성취
010-2896-6689
광명 공덕
터 / 자리도 봐 드립니다

역학·빙의 퇴마

개인 지도 · 예약 상담
1. 역학 : 사주,궁합,택일,사업운
2.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3. 빙의퇴마,전생요법,심리상담
4. 정신분열,환청,환시,우울증
※ 빙의(신병)출장 퇴마 및 상담
010-3772-4606 제행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범음범패 학인,회원모집

염불을 여법하게 하고 싶은 분
염불 내용을 알고 싶은 분
사찰행사 함께 공유하고 싶은 분
사물,바라,작법을 배우고 싶은 분
(매주 금요일 오후2시–5시)
사찰행사 문의 환영
(살풀이, 극락무, 지전무, 관음무)
055-744-5300
010-5243-3587
진주 여여불음원 법일 합장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판매합니다

급 안내합니다
– 30평 팔작지붕. 초익공 다그라스. 상태A급. 가액 : 3천만원
– 7층 석탑 2기
(인연 기다립니다)
010-6545-2020



어렵고 힘들땐 배워야 산다

사찰, 포교당을 운영하시는 스님과 법사님 필수조건
명리+귀장술+
원인사+조상찾는법
단기간에 책임지도
(지리산 현담)
010-4540-0061

불자가정 국제결혼 상담 (초.재혼)

결혼의 조건으로 개종을 서약하는 동남아의 형태, 이교도들 만행을 볼수없어 스님이 직접 중매함.
동남아에 거주하는 스님들 5개국연계 (불교인만가능)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불교인의 결혼을 성사시킴.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사찰과 연계하여 성사시킴
인터넷전화
070-4001-9865

관 상 (손금)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암, 질병, 묘터산소송사재판, 이혼수, 낙태유산, 조상영가, 교통사고, 직장운. 얼굴만 보면 알 수 있다)
- 성철스님 사주 비법전수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천기누설)

010-4014-8822

점안식 49재 천도재 불공 사찰행사 전문

범음범패 실전위주교육
바라나비무, 법고, 화청, 풍수, 명리, 육효, 주역, 작명 (학인모집)
남여 결혼 성사 접수 중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031-953-3328
010-8893-8361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위 패 몰

www.위패몰.com
염주 마이크목걸이 /
사찰합동위패 / 영가전대
051-244-2040

특 강

숫자로 보는 생활철학
* 수시모집 : 2018. 3월
* 개인지도(매주)
* 화,금 18:00 ~ 20:00(12주) 50만원
* 대구은행 010-3527-1037 서일영
영도기문철학
010-3527-1037
대구남구안골길21 안지랑역 3번출구5분

종 도 모 집

불교승가여래종
가족처럼 불교승가여래종 종단과 함께할 종도님을 모집합니다
(지역 종무원도 모집합니다)
경남 합천군 삼가면 금리3길 6-4 동경사
010-6562-1577
팩스 055-6562-1576
(의식도 전수합니다)

PC유경험(봉사자 모집)

문서작성 및 홈페이지 관리 경험자 / 사찰홍보 (블로그, 카페, 광고 등) 경험자
* 나이,성별,지역 관계없음 (숙식가능)
051-529-2100
010-9085-0792
부산 진구 성지로 94번길 151-17 대원정사

남해바다 보이는 고흥 암자

무보시로 기도하면서 지내실 비구, 비구니, 처사, 보살님 모십니다
010-2511-1188
법성 합장

공양주 보살님, 부전스님

모 십 니 다
(칠곡)
010-8266-8786

사찰 포교원 부전 요양원

서울 경기지역
대출 (저축은행)
010-5381-1419
– – – – – – – – – –
참신한 공양주 모십니다
010-9421-0730

풍경 좋은 산사에서 공양주 보살님

모 십 니 다
(경기 이천)
031-641-6311

비구니스님, 보살님.

40-50대 방사드림,
1인 1거주 아파트형 25평,
거주비 무료, 임대가능.
수행처가 마땅하지 않은 분,
사찰에서 여생을 보내실 분.
(양산 통도사 부근 산사사찰)
010-4640-4747

좋은기도법을 스님에게만 전수합니다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중풍, 당뇨, 고혈압, 치매, 손발저림

예방, 치유가능
네이버 '현오스님' 검색
010-9229-3801 약손스님 현오

현대식 불교문화를 선도하는 포교원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수련법! 티벳, 인도, 요가, 명상호흡을 통해 누구나 쉽게 치유될 수 있는 수련법입니다.
지도자 수련생 모집 : 출가스님, 법사, 포교사 등
(사)소승불교조계종. 티벳, 인도, 요가 명상호흡협회
붓다선원 혜웅 합장 (서울 성동구 홍익동)
02-2296-3001. 010-4740-3001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 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사 찰 행 사 전 문

점안식. 천도재. 사십구재. 터고사 등
각종 재의식 상담
바라춤, 나비춤, 살풀이, 지전춤, 극락무, 회심곡
(불교무용, 한국무용, 남사당풍물)
010-2277-7955

命理學. 실전통변비법

命理學 & 神通術 (스님직강)
기초반, 실전반 모집 (1:1 맞춤 개인교습)
칠성사 부설, 칠성문화원 (경기도 시흥시)
010-8427-6199. 070-4643-6199

수 인 작 법 사 주 팔 자

– 옛 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어 내려온 비술
– 손 하나만으로도 몇년 전, 몇월, 몇일의 운세점검 몇년 후, 몇십년 후, 몇월, 몇일, 몇시의 일도 예측할 수 있는 작법
– 명리를 배웠어도 시원치 않은 분
–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천지조화의 수치를 열어 보입니다
010-7703-1188

맛 샘나 식물성 콩고기

최신 국내기술로 만든 식물성 조직 콩단백 효모와 항산화가 함유된 건강 단백질 콩고기
소화흡수 충분한 고단백질 영양섭취
전립선, 다이어트, 성인병 예방
주문전화 1661-4288
농협 301-0222-880671 (주)샘나

교육학 박사 진각 스님의 명리상담학



- 지금은 명리상담학이 제도권학문이 되어 여러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이 있음.
- 또한 명리상담분야의 비학위과정도 지역문화센터 등에서 많은 개설과 보급으로 신도 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였음.
- 이러한 현상이 현대는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상담분야로써 필요성이 더 절실하기 때문 임.
- 이제는 명리상담학을 필수학문이라 생각하고 방편 삼고자 큰마음을 내신 스님만을 위한 초급입문과정을 개강.
- 한자(漢字)는 22자만 알면 가능하고, 명리상담법과 작명법
- **부산 송광정사 부설 문화대학 교육학박사 진각**
-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도 10년간 강의 · 강의경력 23년
- 부산지하철 3호선 배산역 하차 4번 출구.

부산 ☎ 051-868-8438

피부·치아건강제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잇몸출혈, 흔들리는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건조, 임플란트 틀니 하시고 잇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얼굴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습진, 전신잡티, 낭습진, 피부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물리고 머리염색 후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즉시 여러번 사용 물집안생김), 백반증, 노화성피부건조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역술 강좌안내

개강 및 무료 강좌 일시
2018. 3. 5(월) 오전 10시 30분 (사주명리)
2018. 4. 3(화) 오전 10시 30분 (육임)
※ 각 강좌의 첫 수업은 무료 강좌로 진행됩니다.

교육과정

과목	기간	강의 주안점	교수	수강료
사주명리 초급과정	3개월	사주명리 기초 이론 (신살오행사주론)암기법	동양주역 역술학회장 남륜 박사	월 13만원
육 임 초급과정	3개월	육임 기초력 정립	육임학의 대가 고려육임학회장 이우산 박사, 교수	월 13만원
신선도수행법 (연기법)		수업전후 20분간 수련 (사주, 육임 등록자 무료)	지도법사 원이 (20년간 수련지도)	무료

육 010-7321-5539 (이우산교수)
010-9091-8259 ( )
신 공 010-5096-0759 (원이)
안 역 도보 7분
안 여 고 사
정 형 물 402호

알기쉬운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 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 우체국 :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모든 죄악을 짓지 않고 모든 착하고 건전한 것들을 성취하고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모든 깨달은 님들의 가르침이다.

– 법구경 –



논산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이층 법당. 1층 요사채. 토지 540㎡
- 논산시 외곽 조용하고 깨끗함.
- 양도 : 1억 6천만원 (융자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02-430-0284 이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40.가락동프라자@상가(대표:이규철)
■ 비밀 보장. 방문 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 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사찰 사진과 상세한 정보는 가람공인중개사사무소 사이트
"사찰안내가람"(인터넷 검색창에 입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 (상봉동127-15호)

펜션 및 장기요양 안내
허리 무릎 어깨 통증으로 고통 받는분, 암등 불치병으로 투병하시는 분!
따뜻한 남쪽나라 남해 자연 치유마을 황토 구들장 팬션으로 오세요!
전통재래 구들장으로 지어진 뜨거운 방에서 몸의 모든 독소를 배출하시고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명상길에서 지친 심신을 충전 하십시오.
장기요양 하실분 환영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인터넷 "남해여행닷컴" 네이버 · 다음에서
"황토구들장 펜션" www.구들장팬션.kr을 검색 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오시면 영험하신 도안스님의 친절한 인생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안스님 연락처 010-9036-2131)
자연 치유마을 황토구들장펜션 주소 : 경남 남해군 남면 무지개로 81번길 23-32
문의전화 : 010-6260-3915 / 010-5352-9245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내 ◎ 위치 : 수도권
◎ 대지 : 200평 ◎ 부지 : 450평
◎ 법당 : 50평 ◎ 법당 : 40평,차량진입
◎ 요사 : 30평외 ◎ 요사 : 60평
◎ 매가 : 28억 ◎ 매가 : 26억 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연무대사찰(급)안내
- 마을기도사찰
- 토지 400㎡
- 한옥법당.요사채.공양간.산신각
- 마을사찰. 깨끗하고 운영이잘됨
- 논산 ic 근처교통편리.
- 양도:1억2천만원(융자가능함)

010-7347-1010 (02-430-0284)
(서울이박사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무료상담

포교원 안내
- 지역은 대구 두류동입니다
- 포교원 임대3층 50평
- 반고개역 도보 3분거리
- 시설완비,
- 보증금 500만, 월 42만
- 시설비 사전답사 후 협의

010-3812-3075

사찰(포교원) 안내
- 위치 : 김천시 면소재 (차편 10분거리)
- 사찰건물 : 32평 독채 등기필
- 법당, 주방, 방 2, 세면장
- 시가지 대로변 포교사찰 남향
- 대지: 도지료 1년 35만원 (건물은 지상권 등기되어 개인 소유임)
- 가액 : 5천 8백 만원

010-7295-125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다길 110번지
- 종교부지 총 370평
- 법당건물 총 29평반(단청완료)
- 화장실3평, 기와집, 산신각5평 요사채25평, 종무소 18평 요사채 공양실 20평, 기타창고 10평 (각 보르크 판넬 기와집 1동)
- 가액 : 4억 8천

010-2591-4736

주거 또는 암자(급) 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
- 평수 230평, 건물 30평
- 계곡물 사시사철 흐릅니다
- 가액 : 1억 7천만원

010-8943-141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 (시내에서 5분거리)
- 대지 : 1140평, 주차장
- 건물 : 대웅전 30평, 요사채 기도방 6칸, 친견실, 산신각, 창고, 일주문
- 가액: 5억 8천만(직통전화)

010-5920-5899

사 찰 안 내
- 위 치 :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 평수 : 470평 • 가액 : 7억 5천
- 조건 : 양도시 모든 기물 포함(불상,불화등 기타) 주변 주차 시설 양호함.도시가스, 상수도 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임

연락처 010-8697-2251
(부재시 문자 남겨 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안덕면 고와리 (안동시길안면사무소와 청송읍사무소중간 청송군 파천면 지경리 근방)
- 사찰터로 좋은 전답 3필지 (약 1800평)
- 가액:10,800만
- 분할가능 : 1필지(약 600평)5000만 2필지 (1200평)9,000만

010-2016-6281

별장같은 암자
- 위치 : 가야땅 돗대산 자락
- 창건 20년, 대지 270평, 대웅전 23평, 요사채 30평
- 산신각,용왕당,현재평생위패단 준비중
- 주지실, 종무소, 창고, 모든 시설 완벽
- 의료관광 특구지정
- 공항 15분 → 시청 5분 → 지하철 5분
- 현재 2,000세대 아파트 단지 및 주거지
- 100일전 뉴타운 2,000세대 대단지 아파트 분양 완료
- 가액 : 8억 8천(은융 2억 1천) 안고

010-9906-3631

도심속 작은사찰안내
- 위치: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 건물 : 1층 단독주택, 대지 37평
- 아담하고 예쁜사찰, 법당, 요사 실내화장실, 실외화장실, 세탁실 창고, 포교, 철학 상담하기 좋은 사찰
- 난방 도시가스, 심야 전기
- 가액 : 1억 9천 5백만원 (대출 7천5백만원안고 1억2천만원)

010-7188-772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 대지 평수 265㎡(80평) 2층 법당 15평, 산신각 1동 1층 요사채 27평
- 아랫체 창고 방 1개
- 산자락 및 아담한 암자
- 가액 : 융자 4천 안고 1억 2천만원 절충가능

010-8794-1257
010-6222-5835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 4층 건물 중 3층 60평
- 법당, 방3개, 공양간, 창고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2,000만원
- 즉시입주, 몸만 오시면 됨

010-8842-4225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제천시 봉양읍
- 법당, 거실, 주방, 방
- 심야전기보일러
- 가액 : 3천 8백

010-5258-1570

토굴 분양 안내
- 총 7개동 (내부시설 완벽) 1개동 대지면적 47평, 건물면적 10평
- 양도가 : 6천만원
- 남해바다.산.사찰. 풍광이 어우러진최고의 명당
- 황토 구들장 구조
- 위치따라 조정됨
- 경남 남해군남면홍현리 581-2(무지개로 81번길23-34)

연락처 : 010-9036-2131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
- 대지 125평 중 건평 100평
- 법당 35평, 삼성각, 용왕단, 호신불 650불, 인등 1008등
- 방 5개, 화장실 3개 아파트 대단지 부근
- 가액 : 3억 5천만원 절충가능

010-5019-5385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중구 신당동 현대아파트 상가 406호
- 4층 (50평)
- 보증금 1500만원, 월 85만원 시설비 차후 조정 결정
- 무료주차시설 완비

010-9421-9364

울산 포교원 안내
- 위치: 울산시 동구 시장 옆
- 2층 50평
- 칠보삼존불, 천수천안, 호신불 615불, 등 320등
- 방, 거실, 주방, 화장실, 창고
- 신중단, 영단(시설최고)아파트, 상가밀집지역
- 가액: 보증금 2,000만원 월60만 시설비 4,000만원

010-8424-0042

사 찰 안 내
- 위치 : 포항시 남구 장기면 경주방향
- 대지 약 500평, 주변산 2천평
- 건물 : 대웅전, 요사채, 기타 아름답게 잘 정돈된 사찰
- 가액 : 방문 후 결정

010-4537-5386

사찰및요양원안내
사 찰
- 1층 30평, 칠보관음, 천불상 용왕대신
- 2층 25평, 삼존불, 관음소불 130
- 요사채 40평, 큰방 3, 황토방 1

요양원
- 1층 90평, 2층 90평. 대지면적 약 900평
- 정원 25명, 현입소인원 25명
- 신축건물 월매출 약 4천5백만원(요양원만)
- 뒤에는 높은 산이요 앞에는 큰 저수지가 내려다 보이는 천망 최고의 명당터
- 위치 : 경남 밀양
- 가액 : 18억(융자 5억 5천 포함)

010-9567-0813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태안군 버스터미널에서 차로 10분거리
- 대지 1,500평(일부 전)
- 건물 : 법당 1동, 요사채 1동, 다용도 건물 1동 (황토방)
- 법당 및 요사채 시설 완비 (즉시 입주 가능)
- 가액 : 보증금1000만원,월50만원

010-5437-8500

상가주택 포교원 안내
- 투자가치도좋음(대한방직150m거리143층 초고층타워와아파트 신축예정)
- 위치 : 전주시내.앞도로변.좌로4차선.앞으로 2차선
- 주변환경.전북경찰청.도청.아파트.상가.주택. 밀집지역.공원.천변산책로
- 대지.61평.뒷마당있음.건평90평.각30평.3층건물
- 1층.방3개해우소/2층.법당.수미단원목조성. 소불300불.연등.700.인등.영가인등 해우소
- 3층.주택.방3개.화장실2개.외부.내부 뼈대외 올리모델링 시시카메라10대.상담을 해주시는 분이면 최고의 위치
- 가액 : 4억3천만원(불사관계로)

휴대폰 : 010-5904-8608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 대지 : 39평
- 건평 : 40평(2층건물)
- 법당 : (2층)20평
- 가액 : 2억 2천
- 모든 기물 시설 일체 양도
- 종단 양도 포함

(해외 이주 관계로 급 양도합니다)
051-206-3488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구입문의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그냥 무조건이야
대행스님 법훈록

토지 및 건물 안내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산 16-1
건평 약 30평(암자 및 절)
토지 약 2,000평(국유지)
양도가 4억 5천





충북 제천시 청풍면 도화리 255-3
건평 40평 토지 1400평
양도가 18억 5천 (분할 판매가능)

연락처 : 010-8868-1676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가격 ~~10만원~~ ⇨ 90,000원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CD02-제2. 방편품(46:51)
CD03-제3. 비유품(54:48)
CD04-제4. 신해품(30:24)
제5. 약초유품(16:08)
제6. 수기품(17:13)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0. 법사품(18:39)
제11. 견보탑품(22:19)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7-제13. 권지품(10:07)
제14. 안락행품(27:27)
제15. 종지용출품(21:13)
CD08-제16. 여래수량품(21:15)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18. 수희공덕품(13:23)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2. 촉루품(04:36)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10-제24. 묘음보살품(16:12)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26. 다라니품(10:07)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 대불교 현불샵

할리우드 영화는 불교를 어떻게 다뤘을까?



〈루시〉 〈매트릭스〉 〈파이트클럽〉 〈스타워즈〉 〈천년을 흐르는 사랑〉

'더 아일랜드' 1월 12일 보도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전 세계 영화의 중심지 할리우드가 항상 불교 주제를 다뤄왔다며 이를 분석한 보도가 화제다.

'리틀 붓다(1993)' '티벳에서의 7년(1997)' '쿤둔(2000)' 등은 불교 색을 분명하게 드러냈던 할리우드 영화들이다. '더 아일랜드'는 1월 12일 이전처럼 명백한 불교 영화가 아니더라도 '매트릭스(1999)'에서 '루시(2014)'까지 여전히 할리우드는 불교적 주제로 가득하다고 보도했다.

루시 | 2014 | 감독 뤽 베송

'루시'는 영화 '레옹'을 연출한 뤽 베송 감독의 작품으로 스칼렛 요한슨이 주연을, 모건프리먼과 최민식이 조연을 맡았다. 평범한 여자 루시는 우연히 범죄와 연루되면서 미스터 장에 의해 몸속에 'CPH4'라는 물질을 밀봉하여 넣게 된다. 이 약품이 몸 속에서 새어 퍼지면서 루시의 뇌 활용이 진화되기 시작한다. 보통 인류는 뇌의 10%를 사용하는데, 루시는 20%이상 뇌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뇌의 활용이 60%가 됐을 때 박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루시는 "하나의 세포들이 서로 연결되어 이런 저런 모양을 만드는데 그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것이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루시'의 내용은 다수 불교의 연기법 · 공(空)사상과 통한다. 루시가 "너와 내가 따로 없듯이 이것과 저것이 따로 없다"고 하는 것은 결국 공 사상과 맞닿는 것이다. 단지 인연, 조건, 시간에 의해 여러 모습을 갖고 있어서 다르게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스타워즈 | 1999~2017 | 감독 조지 루카스, 라이언존슨 등

수많은 후속작을 낸 스타워즈. 그 첫 에피소드는 아주 먼 옛날 은하계 저편, 무역항로를 독점하려는 무역연합이 나부 행성을 공격하자 평화의 수호자 제다이가 파견되면서 시작된다. 2017년에 개봉한 '라스트 제다이'에서도 영화는 비슷하게 흘러간다. 결국 선과 악의 대립이다.

스타워즈는 너와 나, 우주, 선과 악이 결국은 별개가 아니고 모두 작은 우주 속 하나일 뿐이라는 메시지를 준다. 또한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다는 주제도 다룬다. 불교서는 이를 무아(無我)라고 한다. 스타워즈의 불교적 메시지는 감독이 바뀌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유지됐으며 특히 2017년 '라스트 제다이'에서 가장 강화돼 나타났다. 실제로 영화 도중 명상호흡을 강조하기도 했으며 주인공 레이의 탄생을 둘러싼 업(業.karma)의 표현과 환생의 묘사가 나타나기도 했다.

천년을 흐르는 사랑 | 2006 | 감독 대런 아로노프스키

이 영화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고, 시공관을 초월하는 사랑 이야기다. 16세기 스페인, 충실한 기사 토마스(휴 잭맨)는 적으로부터 아름다운 여왕 이자벨(레이첼 와이즈)을 구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운다. 여왕은 토마스에게 영생의 나무를 찾으라는 명령을 내리고, 토마스는 신비의 나무를 찾아 목숨을 건 여정을 시작한다. 그리고 21세기 어느 연구실, 의사 토미(휴 잭맨)는 첫눈이 내린다며 자신을 찾아온 아내, 이지(레이첼 와이즈)를 매몰차게 돌려보내면서 암 치료를 위한 신약 개발에만 몰두한다. 이지가 언제 생을 마감할지 모르는 암환자이기 때문. 그리고 26세기 우주의 어느곳, 톰(휴 잭맨)은 천년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미스테리의 정체를 찾기 위해 생명의 나무와 함께 우주여행을 한다. 톰은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나기 위해 삶과 죽음, 영생에 대한 진실을 찾아가는 여행을 한다.

영화의 주제인 생명의 나무는 붓다가 수행하던 보리수나무와 닮았다. 그리고 내용은 전체적으로 윤회와 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할리우드서 수많은 영화가 불교를 다뤘지만, 윤회를 건드는 경우는 흔치 않다. 윤회를 잘못 다루는 순간 스토리가 복잡해지기 때문. 그럼에도 이 영화는 '사랑'을 내세워 윤회를 전면에서 다룬다.

파이트클럽 | 1999 | 감독 데이빗 핀처

비싼 가구들로 집 안을 채우지만 삶에 강한 공허함을 느끼는 자동차 리콜 심사관인 주인공은 거친 남자 테일러 더든과 우연히 만난다. 그리고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살기로 결심하며 인생은 변한다. 이 둘은 '싸움'에서 여태껏 경험해 보지 못한 강렬한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파이트 클럽'이라는 비밀 조직을 결성한다. 이 조직은 폭력으로 세상에 저항하는 거대한 집단이 된다. 점점 커지는 이 조직은 시간이 지날수록 의미가 변질되고, 주인공과 테일러 더든 사이의 갈등도 점차 깊어진다.

이 영화속 주인공의 이름은 마지막까지 나오지 않는다. 실제 시나리오에도 내레이터(Narrator, 내레이션을 하는 사람)라고 표시돼있다. 이 남자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계기인 테일러 더든은 결국 주인공의 '욕망'이다. 주인공은 이 욕망에 사로잡히고, 욕망을 극복하기 위해 무던히 애쓰는 것. 또한 주인공의 집이 불타는 장면은 〈법화경〉의 화택(火宅)일화와 비슷하다. 커다란 저택에 불이 붙었는데도 집안의 아이들은 신나게 놀고있더라는 내용이 화택일화다.

카르마 코인, "포교에 효과적"

〈불교 가상화폐〉

'라이언스로어' 1월 12일 보도

"불교 접근성 올라가
세계 포교에 긍정적"

전 세계가 비트코인으로 들썩이는 가운데 2017년 출시된 불교 가상화폐 '카르마코인'에 관심이 주목됐다. 미국 불교 전문지 '라이언스로어'는 이 카르마 코인이 불교에 긍정적이라고 1월 12일 보도했다.

2017년 여름에 만들어진 불교 가상화폐 '카르마 코인'은 종교계의 돈과 관련된 근본적 문제들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 출범했다. 이 코인은 '로터스 네트워크'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화폐로 사용되며 이 커뮤니티 속 부정부패가 생기지 않도록 자정작용을 한다고 밝혀졌다. '로터스 네트워크'에서는 불교 경전이나 불교 교리를 배울 수 있다.

'라이언스로어'는 미국의 반응이 대부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레고리 그리브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디지털 불교학 교수는 "불교의 가르침이 온라인상에 퍼질 수 있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이다. 로터스 네트워크는 커뮤니티 안에서 불교를 가르치는 교사의 자격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증장시키기도 한다"고 말했다.

'라이언스로어'는 불자들이 그동안 새로운 기술을 통해 불교를 대중화 하고자 했다고 설명하며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하기 수백 년 전부터 아시아 전역에서 불교 서적을 대량으로 인쇄하기 위해 가동 활자를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가상화폐 자체의 문제점도 간과 할 수는 없다. 그리브 교수는 "이 같은 사이버 구조는 법, 정부, 사회적 구조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을 만들 수 있다. 정부를 없애자는 발상이나 전통을 깨자는 발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브 교수는 "하지만 이런 문제도 불교로 해결해야 한다. 로봇 스님을 곳곳에 배치해 가르침을 주고, 어디서든 들을 수 있는 불교 강의로 사람들을 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형 기자



'라이언스로어'는 불교 가상화폐인 '카르마코인'이 사람들과 불교의 접근성을 높여줘 포교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사진출처=라이언스로어

티베트 최고(最古) 부처님 석판 발견돼

티베트서 가장 오래된 불교 석판이 발견돼 화제다.

최근 티베트 자치구 북부 응가리에서 히말라야 지역서 가장 오래된 불교 석판이 발견됐다고 '더 텔레그래프'가 1월 10일 보도했다. 이 석판은 높이가 1.85m이며 부처님의 입상 모습이다. 왼편에는 24줄의 옛 티베트어가 적혀있다.

현지 고고학자들은 이 석판이 826년이나 838년에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현지 한 고고학자는 이 석판에 대해 "티베트 응가리 지역에서 불교가 매우 일찍부터 퍼져있었음을 알게 해주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평가했다. 박진형 기자



티베트서 발견된 부처님 석판. 사진출처=차이나데일리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 ·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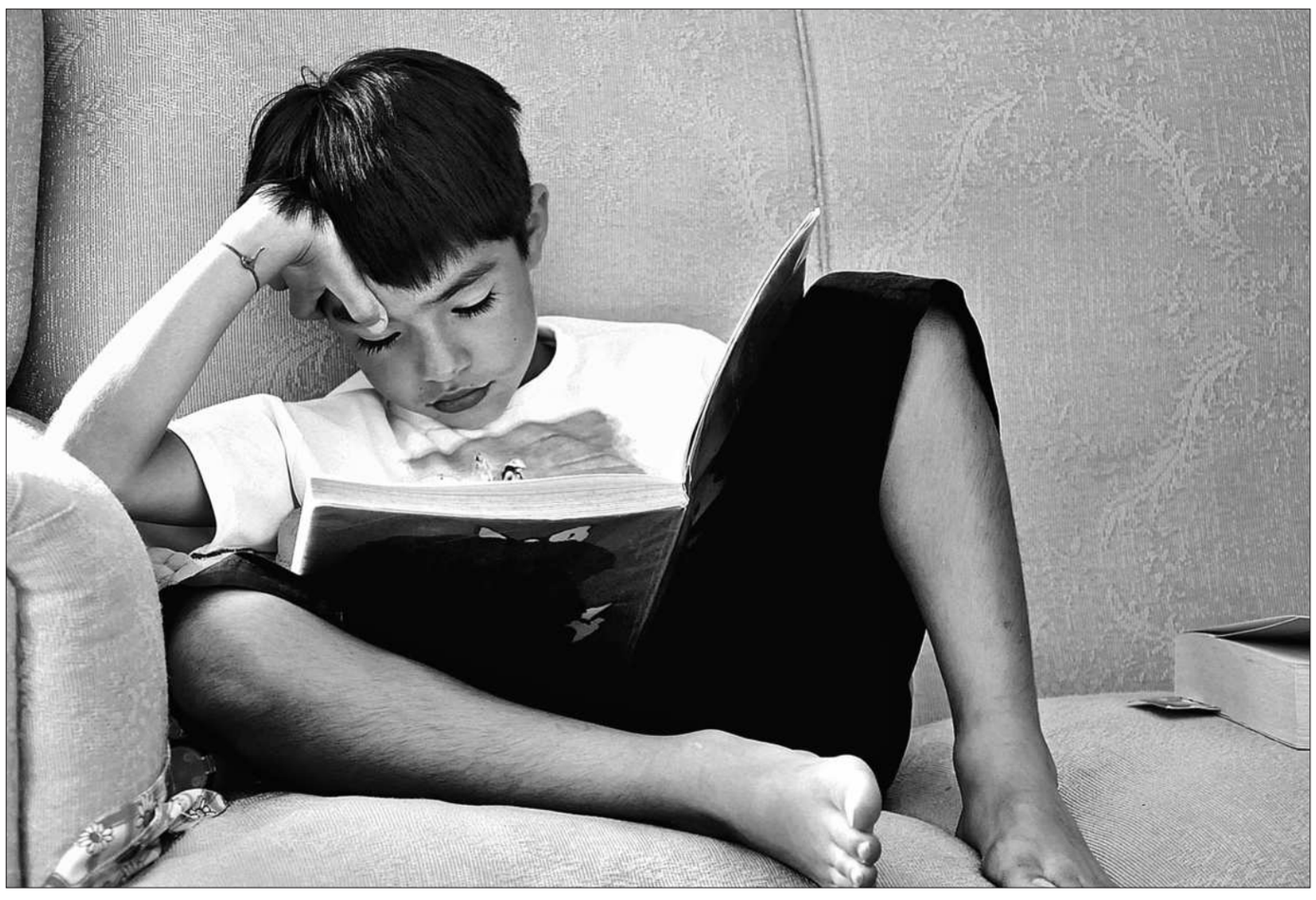
명상이 어려워?… “이야기로 접근하라”



지운 스님의 **자비선 명상**

1. 자비선이란 무엇인가?

2) 깨달음 가는 地圖 명상



명상의 체계

마음의 본성을 통해 생사의 괴로움[苦諦]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명상임을 알았다면 그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마음을 내는 것이 바로 명상의 출발이다. 출발에 앞서 우린 삶과 죽음의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集諦]이 마음의 본성인 공성 즉, 열반을 모르는 무명번뇌라는 것을 알았다. 무명번뇌가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무명번뇌와 삶과 죽음의 괴로움이 없는 진실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명상으로의 출발이다. 생로병사가 없는 마음의 본성이 열반[滅諦]임을 알게 되고 그 열반에 이르는 방법[道諦]도 찾게 되는 이것이 곧 사성제이며 명상의 체계이다.

붓다께서는 사성제를 의사의 치료에 비유하여 말씀하셨다. 의사는 먼저 환자의 병을 진단하고, 그 병의 원인과 발생과정을 찾아낸 다음 병을 제거할 방법을 검토한 후 처방을 내린다. 이와 같은 의사의 진단에는 무엇보다 정확도가 요구된다. 어떤 의사는 질병을 과장해서 희망을 포기하라고 엄숙하게 선언하며, 또 어떤 의사는 오진으로 병이 없다고 단언하여 아무런 치료도 필요치 않다는 위안으로 환자를 안심시킨다. 전자는 비관론자, 후자는 낙관론자로서 모두 현명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현명한 의사는 질병의 징후를 바르게 진단하고 질병의 원인과 발생을 이해하여 그 병이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확신한 다음 환자를 치료하여 구해낸다. 붓다는 바로 이러한 의사이다. 붓다는 세상의 모든 질병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병을 제거할 수 있는 처방을 모색한 아주 현명하고 과학적인 의사라 할 수 있다.

△우리의 삶에서 병은 곧 괴로움이다[苦] △병의 발생원인은 갈애이다[集] △그래서 갈애를 없애면 병이 제거되고 치유된다[滅] △여덟 가지 고귀한 길(팔정도)이 그 치료방법이다[道]

이것이 붓다의 사성제 가르침이고, 우리 중생은 그 가르침을 따라 스스로 걸어가야 할 현실이 고(苦)라는 출발점에서 괴로움의 해결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길을 제시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를테면 우리들이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무작정 갈 수 없는 것과 같다. 괴로움인 생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는 첫째, 목적지를 정하는 일과 둘째, 그 목적지를 향하여 어디서부터 출발할 것인가라는 출발점의 문제 셋째, 그 출발점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의 문제이다.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비로소 명상수행을 통하여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우리들이 도달해야 할 바르고 정확한 목적지가 없다면 출발점과 방향 및 수단은 아예 필요 없을 것이고, 혹 올바른 목적지가 설정되었더라도 출발점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해 혼란을 일으킬 것이며, 출발점이 설정되었더라도 방향을 올바르게 잡지 않으면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 또한 바르지 못하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 이러한 출발점과 방향 및 목적지, 그리고 도달하는 방법을 정확히 제시하는 가르침이 바로 사성제이다. 이 사성제를 의사의 비유와 수행자가 목적지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응해 보면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도식을 보면 명상의 틀이 무엇인지 한 눈에 들어온다.

[四諦]		[의사의 치료]	[수행]
苦諦(괴로움)	…	병의 상태 …	출발점
集諦(괴로움 원인)	…	병의 원인 …	방향
滅諦(괴로움 소멸)	…	건강 회복 …	목적지
道諦(계정혜 삼학)	…	치료 방법 …	방법

올바른 수행 틀–敎 · 理 · 行 · 果

원측 스님은 〈해심밀경소解深密經疏〉에서 수행은 경행과(境行果)가 맞아야 한다고 설했다. 경행과는 명상의 출발점-방향-목적지-방법과 그대로 일치한다.

경(境)은 관찰 대상으로 청정한 마음의 본성인 열반 즉, 원각이다. 청정심의 바탕은 허공과 같이 비어있으며[空] 작용은 거울[照]과 같다. 즉 관찰 대상인 마음의 본성은 비어있기 때문에 생로병사가 없어 불변하므로 영생의 뜻이 있다. 그와 함께 마음의 본성이 거울같이 비추는 작용은 인연을 따르는 수연(隨緣)의 뜻이 있어 대상에 대하여 반연하여 희로애락이 일어나며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러나 마음의 바탕이 본래 비어있어 결정돼 있는 것이 없으므로 희로애락도 괴로움도 실체 없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실체 없음을 알게 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이 실체 없음을 보지도 못하고 생각도 하지 못함으로써 번뇌망상에 휩쓸려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이 괴로움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이것은 마음의 본성이 거울과 같아 자기가 자기를 비출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마음에서 괴로움이 일어나므로 이 괴로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명상의 출발이며 마음 본성에서 괴로움이 일어나므로 명상의 방향은 마음의 본성으로 향한다.

의사 진료와 같은 명상 틀
사성제 따라 과정 담아야
깨달음 향한 설명보다는
비유를 명상화할 때 쉽다

행(行)은 수행의 단계[명상의 길]와 수행의 수단[방법]을 말한다. 마음이 거울 같이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과(果)는 수행의 결과인 청정한 마음의 본성인 원각으로 생로병사가 없으므로 바로 목적지가 된다.

그래서 명상수행은 관찰 대상 · 수행 · 결과를 교(敎) · 리(理) · 행(行) · 과(果)로 설명할 수 있다. 즉, 관찰 대상은 마음 바탕인 공(空)이며 공에 대하여 가르침을 듣고[敎] 이치를 사유하여[理] 수행하고[行] 그 결과로[果] 깨달음을 이룬다. 고집멸도는 경행과이며 경행과는 교리행과이며 이 모든 수행의 체계는 마음의 본성인 허공같이 비어있는 공과 거울같이 비추는 작용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마치 자면서 꿈속에서 현실같이 온갖 일을 경험하지만 꿈에서 깨어나니 침상에서 한 발작국도 벗어나지 않는 이치와 같다. 침상이라는 마음의 본성[법계]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는 뜻이다. 이것은 원각을 중심으로 소멸과 재생의 반복이 마치 허공에 꽃이 피고 지는 것과 같다. 허공에 꽃이 피고 지더라도 허공은 바뀌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숙지할 때 수행의 길은 분명해진다. 수행의 길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의 지도이고 이것을 명상화하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의 지도(地圖) 명상’이 된다.

명상은 집중명상인 사마타와 분석명상인 위빠사나가 있다. 자비선 명상도 여기에 포함된다. 자비선 명상에는 여러 가지 명상방법들이 있는데 그 명상법들 중에는 ‘이치 사유하기’와 ‘비유’, 그리고 ‘상상의 시각화’와 ‘스토리’를 합한 명상법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의 지도 명상법’이다.

붓다는 비유와 스토리를 사용하여 명상의 핵심을 드러낸다. 〈육조단경〉과 〈서장〉 등의 조사어록에도 비유와 스토리를 사용한다. 예를 들면 초기경전인 〈숫타니파타〉 사품(蛇品)에 농부 바아라드바자는 “당신은 농부라고 자칭하시지만 우리는 당신이 밭을 가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당신이 밭을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묻는다. 스승이 대답했다. “믿음은 씨앗, 고행은 비[雨], 지혜는 멍에와 쟁기, 부끄러운 마음은 쟁깃대, 의지는 밧줄, 생각은 쟁깃날과 고무래다. 몸을 조심하고 말을 삼가며 음식을 절제하여 과식하는 일이 없다. 나는 진실을 김매듯 가꾸고, 온유함은 내 멍에를 벗어버리는 것을 뜻한다. 노력은 황소로, 편안한 곳으로 나를 인도해준다. 뒤로 물러서는 일 없이 앞으로 나아가 그곳에 이르면 근심걱정이 없다. 이 밭갈이는 이와 같이 이루어져 감로(甘露)같은 과보를 가져온다. 이 밭을 갈면 모든 고뇌로부터 해방된다.”

오늘날 ‘신과 함께’라는 영화도 불교 경전에 나오는 것을 모티브로 한 것이다. ‘신과 함께-죄와 벌’(감독 김용화)은 불교의 윤리관을 토대로 한 주호민 작가의 웹툰 원작을 바탕으로 한다. 주인공 자홍이 저승세계에서 살인, 나태, 거짓, 불의, 배신, 폭력, 천륜 7개의 지옥 재판을 통해 이승에서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또 가족애, 효심, 권선이라는 보편적이고 따뜻한 메시지가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전 연령대를 사로잡았다는 분석이다. 영화는 7개의 지옥을 통해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에 대해 이야기하는 한편 주인공 자홍(차태현), 수홍(김동욱) 형제와 어머니를 통해 가족애, 효심 그리고 용서를 이야기한다. 그 핵심은 이승과 저승의 생사를 기반으로 환생을 보여줌으로써 인과를 다루고 있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데 그 죄를 용서해줌으로서 죄를 사하게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 속에는 어머니의 사랑과 연민이라는 자비라는 핵심이 숨겨져 있다.

이와 같이 멋있는 비유와 스토리는 붓다의 핵심 가르침에도 나타난다. 대표적인 것이 〈법화경〉의 일곱 가지 비유다. 이 비유와 스토리는 생로병사 하는 변화의 흐름과 영생이라는 상반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대승기신론〉에서 설하는 어머니 본각(本覺)에서 나온 불각(不覺, 무명)을 자식인 시각(始覺)이 불각을 제거하고 어머니 본각과 만나는 구경각(究竟覺)과 같다. 이처럼 〈법화경〉 신해품의 궁자의 비유도 재구성하여 명상화 할 수 있다. 이러한 명상화는 명상이 무엇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게 해 준다. 그래서 깨달음의 길을 자비선명상법에서는 ‘깨달음으로 가는 길의 지도 명상’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설명보다는 깨달음의 길을 분명한 메시지와 탄탄한 스토리로 명상화하여 명상해보면 이해가 쉽고 명상의 길이 분명해진다.

〈보리마을 자비선명상원 선원장〉

불교종단 사암 및 전통문화예술단체
사단법인 등록 | 가입 안내
사단법인에 등록된 단체 및 사암만이 기부금 행위 등 종교활동을 인증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2조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4조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 받았음.
※ 본회에 불교종단 및 문화예술단체 200여 종단과 단체 가입되어 종무 행정을 지원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 세계평화상 제정 상 · 훈장 시상
※ 세계불교승왕청 임원 추대 선임
※ 연 4회이상 연합법회를 통하여 시상 수여와 메시지, 결의문 등 발표 기회를 드림
※ 연합불교방송과 신문으로 동영상과 신문으로 기사 홍보
※ 대법원 등기
※ 대한민국불교종단 평화기장 수여
※ 공인단체 각종 시상을 추천 가능
※ 불교대학(문화센터) 개원
※ 수시 종무 행정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세계평화연합법인회 · 사단법인세계평화불교종단연합회
이사장 법왕자 김 소 부
☎ 011-356-3427(직접 방문 상담)
종단 · 사암 · 개인 홍보 동영상 제작
연합불교방송 편성국장 김병기
☎ 010-5334-9008

2018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10기 수강생 모집
그동안 제1기에서 제9기까지 전국에서
1,0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2018년에도 스님과
불심 깊은 불자들에게 무료로
명리학을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대 상
1) 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이나 총무보살
2) 불심 깊은 불자님들
◆수강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① 교육기간 : 2018년 3월 13일 ~ 9월 18일까지
② 수 강 료 : 약 7개월 교육 전기간 강의료 무료
③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4시 (3시간)
④ 개강일자 : 2018년 3월 13일 (화요일) 오후 1시
⑤ 책 자 : 초급에서 고급비법까지 총 8권 (책자대금 : 20만원 준비)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대행 스님

우리가 자가발전 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이고 숭상해야!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또 한자리를 하면서 서로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기 위해 자리를 갖췄습니다. 지금 시 첫말로 공부하는 과정을 시(詩)로 한마디 읊겠습니다. 잘 파악해서 들으시고 또 이날까지 가르쳐 드린, 가르쳐 줬다고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자가발전 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이고 숭상하던 그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죽은
이름 없는 이름이여

나와 남이 두루 같이 죽은
이름 없는 이름이여

나와 남이 같이 두루 나투는
이름 없는 이름이여

해산봉은 화산 터져 두루 불이 진동하여
이름 없는 이름이
그대로 여여하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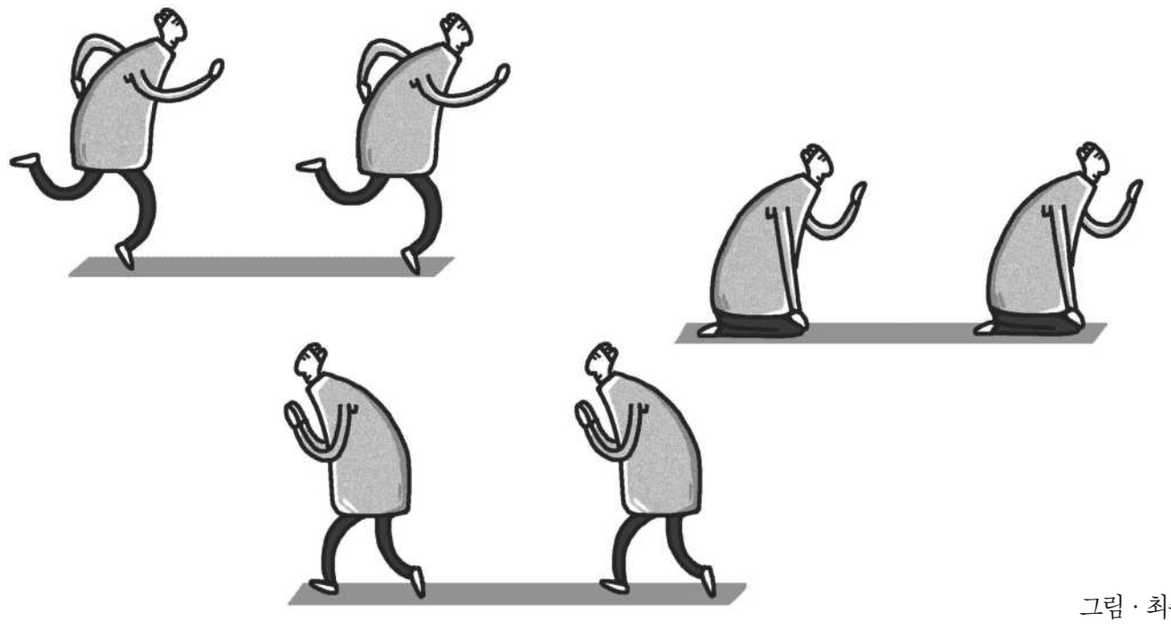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이것은 누가 가르쳐 줘서 하는 말도 아니요, 누가 지어서 하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이 세상을 두루 살피고 또 살핌 없이, 자기가 스스로 한 티끌만도 못하고 깨알 쪽만도 못한데…, 다 실은 뜻입니다. '또 한 말 다시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읊은 그것은 우리가 제일 첫 번에 "들고 나는 모든 것을 주인공(主人空)에 놔라. 맡겨 놔라." 이래서 내 마음이 편안해질 때 결국은 그때에 진짜 관(觀)해야 됩니다. 편안해졌을 때 '주인공 당신이 있다면 대답해 봐.', '당신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하느냐?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좌선을 하고 편안해졌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편안한 것이 공부라면 이것은 영 발전이 없습니다. 좌선을 해서 편안하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묵인하고 '이만하면 족한 것을….' 한다면 그걸로써 족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 공(空)에 빠지고. 그다음에 내 마음을 발견했을 때, 내 대답을 내가 들었을 때, 그때는 앞서의 그 습을 다 놨기 때문에 미비한 점이 없어. 그래서 일 단계는 다 놔야 된다. 그다음에 편안해지면 나를 발견해야 한다.

그다음에 발견해 가지고 진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다시 체험하고 실험을 통해서 생활에 조금도 걸림 없이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시 보임(保任)을 하면서 다시 굴리면서, 안으로만이…. 네 탓이니 내 탓이니 하고 남 볼 겨를이 없습니다. 아니, 볼 겨를이 없는 게 아니라 남의 잘못, 잘된 것을 말할 사이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건 바보가 아니냐?" 이러겠지만,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겁니다. "나와 남이 더불어 같이 죽은 이름 없는 이름이여." 했습니다. '두루 같이' 입니다.

가정이나 사회에서나 모든 게 두루, "두루 같이 죽는 이름이여." 했습니다. 더불어 둘이 아님을 알면서 체험하면서, 남한테 잘못했다 잘했다 말할 수 있는 겨를이 없이 안으로 굴려서 안에다 놓고 말을 하면서, 안에다 놓으면서 말을 했어도 말을 한 사이 없이 해야 합니다. 그럼 스스로 그렇게 됩니다. 나를 발견하게 되면 스스로 그렇게 됩니다. 발견했어도 만약에 그 습이 앞을 가린다면 자꾸 내가 잘났다고 하게 됩니다. '내가 제일이다.', '나는 깨달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다면 그 '깨달았다'는 거기에서 그만 더 진전을 못하고, 더 계발을 못하고, 두루 물리가 터지지 못한 채 그냥 멈춰 버리고 말고 미(迷)해집니다. 해산을 해서 어린애를 낳았는데 갓 태어난 아이가 자라지 않고 어떻게 어른 노릇을 하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육조 스님이 십육 년 동안을 그렇게, 깨달아서 바리때를 이어받아 가지고도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달마 대사 역시 면벽을 했고, 깨달았어도 그렇게 했다는 얘깁니다. 그것은 같이 두루 나투는 방법을, 둘이 아니게 할 수 있는 그것을 아주 정열적으로 확고히 알려고 했던 거죠.

생활이 불법이자 진리이자 과학이기도 합니다. 안에서 생각했으면 반드시 바깥으로 나오니깐요. 여러분은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깨달아 가지고도 내가 '나'라는 게 없는 공부가 바로 진짜입니다. 자기가 자기 스승을 따라가면서 자기가 배우는 거죠. 자기는 시자로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공부 가르치는 자기로서, 자기는 공부를 가르치고 또 배워야 합니다. 자기는 놔야 하고 자기는 바로 항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공부하는 데는 역시 각오가 튼튼해야만 합니다. 앞서 그 "같이 나투고 두루 불이, 이름 없는 이름이여." 했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되면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돈오(頓悟)나 점수(漸修)나 물 흐르는 데 붙지 않듯이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활과 부처님 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건 정말 오산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생명들과 보이는 세계의 생명들이 둘이 아닌 까닭에 여러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두 분이서 어린애를 다섯을 낳을 수도 있고 한 명을 낳을 수도 있지만 저 짐승들이나 저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낳는 알 수효를 보십시오. 그와 같이 보이지 않는 데서도 한생각에 그렇게 수효가 많은, 모습 없는 모습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산 사람들이 감당해 나갈지, 그것도 모르는 데다가 함부로 생각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겁니다.

사람이 귀신 짓을 하기 때문에 귀신이 있는 거지 귀신 짓을 안 한다면은 귀신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과정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거 한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야죠. 지난번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잊어버리시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을 하겠습니다. 깨달았어도 타의에서, 여러분이 바깥에서 산기도를 간다 또는 법당에서 부처님을 찾는다 또는 무엇을 바깥에서 찾는다고 할 때, 관세음보살이든지 뭐든지, 이름은 상관이 없습니다. 바깥에서 찾기만 하면 잘못되는 수가 많습니다.

정신질환이 생기는 원인이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세 가지 여건이 있죠. 바깥에서 찾는 데서 오는 게 있고, 유전성으로 오는 게 있고, 내 마음 속에서 어떠한 쇼크를 받아서 오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 처리를 하시렵니까. 바깥에서 찾는 것은 그렇게 타의에서 와 가지고 "얘, 난 아무개다. 난 아무개야. 난 네 할아버진데. 난 네 아버지야. 나는 아무 때 죽은 누구다." 이러고 달려든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게 다냐 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이건 미쳐 죽을, 환장해 죽을 노릇이죠. 내가 여러분을 접해 가면서 수없이 겪어 왔던 일입니다.

너무 지겨워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그것을 딱 뒤집어서 말입니다, "이건 바로 너니까 너한테다 너가 장난을 하는 거니까, 이건 장난하는 그 이름들이 너를 떠보기 위해서 이름을 이거다 저거다 들고 나오는 거다. 바로 그것이 타의에서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조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너다, 바로." 이렇게 얘길 하죠. 그러면 다행히 그걸 들으면 즉시 낫고 그걸 안 듣고 고집을 부리면 낫지도 않죠. 타의에서 온 거는 참 빼득빼득하니 이런 말을 해 줘도 듣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더뎠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든지 말든지 무조건 심부름을 해 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거운 것도 같이 들면은 쉬울 것을, 들지 않을 때는 같이 들지 못해서 쉽지가 않더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데에 그런 걸 조심해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가정에서 살면서 여러 자녀들을 기르시고 또는 부모들을 모시고 살면서 병에 휘둘리는 게 아주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는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야, 너는 얼마만치 남한테 이익을 줬느냐.' 하고 항상 반문합니다. 남한테 말하기 이전에 자기를 한 번 돌아보고서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너는 말보다도 행이 그렇게 됐느냐? 말로는, 이론적인 말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행 한 번 그대로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은 한번 옷깃을 여미고 참작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기복으로 나갈 때엔 이득이 없고, 내 몸에도 이득이 없고 내 가정에도 이득이 없고, 나라에도 이득이 없고, 사회에도 이득이 없어요. 이건 하나가 잘못됨으로써 여러 가지가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현실에 앞장을 서야 할 지도자들이 과학자들 뒤에 서서 따라가지도 못한 채 근근이 있는 사람도 있고, 따라가는 분들도 있고, '어차피 선은 어려우니까 그냥 생활 불교로써 나가자.' 이러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禪)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A18면으로 계속

제4기 보경사 염불대학원
불교의식·범음범패 수강생 모집

보경사 염불대학원에서는
각단 불교의식 및 범음범패를
봉양할 수 있도록 지도해 드립니다

- 교육과정 -

각단 불교의식 및 범음범패 1년 과정

- 도량석, 종송, 향수혜례, 삼보통청, 중단퇴공 각단불교의식, 관음청, 지장청, 중청, 시달림, 방생의식, 상용영반, 구병의식, 신중39위작법, 관음시식, 바라, 화청
- 사물 : 북, 태징, 목탁, 요령

※ 1년과정 이수 후 품수증, 법사증 수여(숙식제공가능)

⇨ 모집대상 : 스님, 출가예정자, 재가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본 교육원에서 교부) ····· 1부
반명함판 사진 ····· 1매
⇨ 예비소집 : 2018년 2월 27일 (화요일, 오후 2시)
⇨ 입 교 식 : 2018년 3월 6일 (화요일, 오후 2시)
⇨ 수 업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5시 (설법전)
⇨ 준 비 물 : 목탁, 요령 (교재 - 입교식시 배부)
⇨ 문 의 : 교육원 강주(일관스님) 010-9361-5556
보경사 염불대학원 학생처장 010-4530-7444
- 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보경로 523

대한불교조계종 11교구 보경사 선원장 철산 합장

가야사 도량 약사여래
부처님을 친견하세요

가야사 약사여래 부처님 도량에 지극지성으로 불공드리시면서 소원하시고, 백병의 난치병과 연관된 차를 드세요. 성태산 성수 부처님 원력으로 가피가 바로 옵니다.

가야사 도량에 오시면 언제라도
숙박이 가능하며 불공차를
드실 수 있습니다.

각종 종양 차법

- 위 암 : 미후도 괴전우 요자 옴지 차
- 폐 암 : 인동화 천문동 백합 길경 차
- 신장암 : 목통 옴지 토사자 불수 차
- 간 암 : 인진 제조 다슬기 연교 달래 차
- 유 암 : 산자고 조각 화고초 차
- 뇌 암 : 불환금 강황 옴지 불수 차
- 장 암 : 괴화 지실 루로 옴지 차 가자 차
- 직장암 : 괴각자 지실 괴전우 가자 차
- 식도암 : 권백 차, 불수 차
- 혈액암 : 불환금 연교 루로 옴지 차
- 자궁암 : 금은화 포공영 유근피 옴지 차, 불수 차
- 당뇨합병 : 생지황 옥발 여주 불환금 불수 차
- 피 부 : 연교 조각자 옴지 차
- 조갑암 : 권백 차, 불수 차
- 통 풍 : 요자 옴지 불수 차

문의 전화 : ☎ 041-943-5505
도량 주소 : 충남 청양군 남양면 백금리 608-1번지 가야사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선하트조율
하루 10분 수행으로 몸맘 행복한 조율
상·중·하 단전 챠크라 열려 기운 쌩쌩!
스트레스 제로! 피로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힐링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자기 있는 데가 부처님 자리이고, 생활이 그냥 부처님 법!

☞ A17면에서 계속

생활입니다! 참선은 생활이지, 불법이 따로 있고 참선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와선(臥禪)이니 입선(立禪)이니 무슨 좌선(坐禪)이니, 이런 것은 이름이지 그 이름조차 없어야 합니다. 뭐, 정법(正法)이니 사법(邪法)이니 이단이니 이런 것도 전체 몰락 다 버리고 자유권을 얻어야 된다 이 소립니다. 자유권을 얻는다면 계율을 지키는 사람보다도, 지킨다고 지키는 사람보다도 지킨다 안 지킨다를 다 버린 사람이 계율은 더 잘 지켜요. 그리고 행을, 그대로 행을 하고 나갑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득이 있네 없네, 이득이 있기 위해서 하는 거냐 이러겠지마는 그럼 뭣 때문에 이럭하고 공부하려고 애를 씁니까? 나오지 않는 거 무엇 때문에 합니까? 나는 그전부터 천당에 가려고, 아니 그런 데 가려고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도 이렇게 생각했죠. 구더기도 구더기 살림이 있고, 파리도 파리 살림이 있고, 또 개구리는 개구리 살림이 있고, 부처는 부처 살림이 있고, 살림은 크고 작을 뿐이고 미(迷)하고 미하지 않을 뿐이지 똑같아요. 그것도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는 걸. 그래서 나는 살고 죽는 데는 절대 개의치 않았습니다. 또 무슨 승천을 한다, 천당엘 간다, 잘된다 못된다, 나를 잘해 주시오, 못해 주시오 이 걸 떠나서 말입니다. 인간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는지, 지금 어디를 보고서 이렇게 걷고 있는지 이것을 알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몸 하나를 크게 생각하면 은하계라고도 볼 수 있고 작게 생각하면 어느 혹성 하나라고도 볼 수 있지마는, 석존(釋尊)께서 새벽 샛별을 보시고 깨달았다고 한 말씀이 여러분한테 이해가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간도 저 별을 볼 때, 별 하나 나 하나라고 할 때, 하나뿐이 아니라 이 속에 (배를 가리키시며) 은하계처럼 수없는 생명들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짝거리면서. 그런데 선장은 누구인 것입니까? 여러분이 한생각을 잘하면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지마는, 한생각을 잘못하면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 몸뚱이는 누가 끌고 다닙니까? 여러분이 끌고 다니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몸뚱이를 지금 끌고 다니는 겁니다. 선장이 배에다가 지금 자기 중생들을, 자기 부처가 자기 중생들을 배에다 싣고, 지금 여러분도 배에다 싣고 지금 오셨습니다. 오고 간 사이 없이 말입니다. 이건 자동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움죽거린 것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몸 안에서 어떤 병이 났든지 가난하든지 일이 안되든지 그 모든 일체를 막론하고 내가 여기에서 (가슴을 짚어 보이시며) 한생각으로 주인공을 잡았을 때, 깨달았든지 못 깨달았든지 우선적으로 자기 참 주인공을 들고 나갈 때에, 거기다가 모든 거를 맡겨 놓고 나갈 때에, 가정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잘 이끌어 나갈 때 이 몸뚱이에 어떠한 병이 있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이라는 놈도 바로 '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자기 죽이는 법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병도 잘 생각하니깐 자기가 죽겠거든. 전자에 둘로 볼 때는 '내가 너를 이렇게 하면은 파워를 일으키지.' 하는데, 하나로 볼 때는 '아하! 이거 파워를 일으키면 내 가정이 다 없어지니까, 이거 안되겠구나!' 하고선 파워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걸 전제하고 믿기 때문에 걱정이 하나도 없죠. 어디 옆구리가 쑤셔? '어허, 신호가 왔구나. 네가 끌고 다니는 네 시자를 네가 고쳐! 고쳐 가지고 끌고 다녀! 나는 알 바 없다. 너 알아서 해라!' 이러거든. 자기가 형성시킨 것 자기가 끌고 다녀야지 누가 끌고 다니느냐 이거야.

수억겁 광년을 거쳐 오면서 미생물에서부터 지수화풍으로 뭉쳐서 이날까지 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주인이 바로 누구인 것입니까? 참자기인 것입니다. 수없이 겁을 거쳐 오면서, 모습을 바꿔 가면서 진화해 가면서 나온 그 역사를 볼 때에는 정말이지 보배입니다. 실험을 통해서 너무 아프고 좋고 즐겁고 이런 것을 수차에 걸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뜻이란 말로 형용할 수도 없고 이 세상을 다 준대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보배인 것입니다.

그 보배가 그렇게 능동력 있게, 생동력 있게 과학적으로, 지금 내가 생각하면 바깥으로 반드시 나오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합니다. 왜 인정을 안 합니까. 여러분이 배고프다 하는 생각을 했다면 바로 밥을 먹으면서도 그것이 과학이 아니라고요? 인정이 안 된다고요? 똥이 마려우면 얼른 가서 똥을 누면서도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왜? 왜 인정을 안 합니까?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뜻이, 팔만사천법문이 다, 이것은 과학이기보다 진리이지만 이름을 그렇게 지어 놓았기 때문에 지금 과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벌써 삼천 년 전에 해 놨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렇게 좋은 법이니 너희는 너희 자신을 알라. 자신을 알지 못한다면 남을 알지 못하느니라. 병 자체뿐이 아니라 병으로 꼬집어 비유를 들어 말했지마는, 일체 만법이 다 거기에서 나오고 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복으로 하면 어째서 공덕이 없다는 건지, 왜 양 무제더러 달마 대사가 그렇게 말했는지 그것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이 저 뒤에 계신 부처님…, 여러분은 자꾸 내가 이렇게 십 년, 이십 년, 근 삼십 년 가깝게 여러분을 접해 오니까, '아하! 이래서 부처님을 조성해서 모셔 놓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마디 한다면 처음에는 '그거는 형상이니까.' 이러고 무시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것도 생각하지 말고 둘로 보지 말라는 얘깁니다. 여기서 (가슴을 가리키시며) 부처님을 볼 때는 부처님과 자기와 둘이 아니에요. 자기가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타의에서 어떠한 상대를 만났을 때도 둘이 아니죠. 그러니까 나툰다는 말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가만히 있으면 부처고 생각을 하면 법신(法身)이고 움죽거렸다 하면 화신(化身)이에요. 물리가 터진다면 보신(報身)이고, 문수보살도 있고, 보현보살도 있거든. 자기한테 모든 게 있는 거라. 그런다면은 산신(山神)이 따로 없고, 신중단(神衆壇)이 따로 없고, 용왕(龍王)이 따로 없고, 지신(地神)이 따로 없고, 약사(藥師)가 따로 없고, 칠성(七星)이 따로 없고 모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어서 나투면서 찰나찰나 칠성이 될 수도 있고 부처가 될 수도 있고 법신이 될 수도 있고 약사가 될 수도 있죠.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광대무변한 보배를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활용 못합니다. 이 도리를 가르칠 때 여러분이 편안하게 이 도리를 알아서 잘 살라고 그랬지 방황하라고 가르친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할 때 사랑하고 자녀들을 돌볼 때 돌보고 애정을 느끼되 착은 두지 말고 찰나찰나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데에 끊임없는 그 날을 이렇게 살아나가는 데에 조금도 어김없고 걸림 없이 우리가 해 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요기 놓으면은 요기서 걱정이고, '우리 남편이 명이 짧다는데, 어디 가 보니까. 칠성에다 놓지 않으면 이거 큰 걱정이야. 그러니까 요기다가 놔야 하고 또 어디 가서 보니깐 독성(獨聖)에다 놓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게 돼.' 그러니깐 내가 또 독성한테다, 산신한테다 놔야 돼. 명이 짧다니까 칠성 찾고, 좋은 데로 가려고 또 지장 찾지, 병이 났으니까 약사 찾아야지?

또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여러분이 가정에 살면서 남편과 자녀들과 재밌게 살면서도 때로는 아침 새벽이면, 도대체 자기 있는 데가 부처님 자리인 것을 가지고, 또 생활이 그냥 부처님 법이거늘 어찌 그저 앉아서, 참선한다고 앉아 있고 또 염불한다고 앉아 있고 절을 삼천배나 백팔배 한다고 하고, 또 때로는 뭐 비린 것도 안 먹고 누린 것도 안 먹고 목욕재계하고, 애가 어떻게 되든 남편이 어떻게 되든 그냥 기도하러 간단 말입니다. 불교 신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자기 앞도 못 가리는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하나 정돈하면서 해 나가는 대로 그러한…. 그래 어떠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어쩌다가 방에 들었더니, 벌이 말입니다, 반사된 창문을 문인 줄 알고 입으로 쪼다 보니 몸 떨어지고 입도 떨어지고, 입 떨어지니 말도 떨어지더라. 여러분이 아무리 염불을 하고 경을 읽고 온통 야단을 해도 몸으로써, 말로써 그렇게 하는 거는 아무 이득이 없어요.

첫째, 이득이 없거니와 둘째, 남편이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는데 아침에 마나님들이 좀 재밌게, 좀 따뜻하게 해 줘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넌 시간 되면 이렇게 하겠지.' 하고 밥이나 해 놓으면 그저 그뿐으로 알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오고 가는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의 말도 있습니다. 사람이 고달프고 외롭고 바깥에서 어떠한 속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 한마디 아내가 슬기롭게 싹 해 주는 데 사는 보람을 느끼고 마음을 턱 놓고 나가요.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며슴이면서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식모입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여자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여자는 또 남자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아내의 행동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어머니의 행도 해야 하고 또 아내의 행도 해야 하고, 나중엔 딸의 행동까지도, 동생의 행동까지도, 친구의 행동까지도 해 줘야만이 다복하고 융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조화를 이루는, 이것이 바로 포근한 살림이요, 포근한 삶이요, 생동력 있는 삶이요, 의지력 있는 삶이요, 진실한 삶이란 말입니다. 이것저것 빼놓고 불법이 어딨습니까? 여러분이 없으면 불법이라는 것도 없는데요.

제가 차근차근히 얘기는 못해 드려도 알아들으시겠죠? 뭡니다, 저는. 뭐 체계도 없습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합니다. 그렇지만 듣는 분들이 체계 있게 잘 들으세요. 이건 듣기에 달린 겁니다. 한 마디에 열 마디가 거기 포함됐다는 걸 아시고, 한 마디 한 뜻에 일체가 거기 다 달려서 돌아간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무로 표현을 한다면, 무 맛은 한 맛입니다. 그런데 거기 깍두기를 만들어 놓으면, 양념을 했기 때문에 깍두기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무라고 안 그럽니다. 그럼 이 깍두기 한 가지 가지고 착을 둘 겁니까? 무는 숫장아찌도 하고 장아찌도 하고 채장아찌도 하고 깍두기도 하고 김치속도 넣고 무국도 끓이고 그런다는 걸 안다면 이 깍두기 하나 가지고 착을 두지 않으시겠죠.

지금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하면 부처님 이름들을 죽 놓고 찾지 말라는 얘기죠. 절할 때도 그렇습니다. 생각을 한번 착 둥글리면 그냥 하나입니다. (주먹을 쥐어 보이시면서) 하나를 딱 쥐고선 한번 탁 절하면 그걸로써 족한 겁니다. 거기 조상도 부처도 중생도 없이 몽땅입니다.

좀 간편하게 살라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공부하다가 좀 어려운 것 같으면 "그분이 그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으면 우리가 편안할 걸 그랬다." 그러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니 그럼, 먹어 보지도 않고? 하하. 아니, 맛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단군이나 또는 석존이 그렇게 가르쳤고 사대성인들이 다 그렇게 가르쳤고,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거름으로 삼아서 생각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이 그렇게 무시하겠습니까?

우리가 또 제일 무시하지 못할 것은, 자기 몸뚱이가 허무하다는 겁니다, 지수화풍이. 근본적으로 지수화풍으로 인해서 모두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수화풍이 허무하다, 물질들은 전부 허무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허무한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한 겁니다.

(다음 호에 계속)

"들고 나는 모든 것을 주인공(主人空)에 놔라. 맡겨 놔라."
이래서 내 마음이 편안해질 때
결국은 그때에 진짜 관(觀)해야 됩니다.

※위 법문은 1987년 1월 18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황토와 편백

황토 편백 찜질침대 산사에 황토구들을 놓을 수는 없을까?
황토와 편백나무는 면역력 증강과 피부재생 및 노화방지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잠이라도 푹 주무시고
참선수행하시는 스님들께 감기 없는 겨울을 보시하고 싶습니다.

● 현금 특별 판매가 : 135만원
구입처 010-7358-0380
배원호 합장

황토구들 침대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 문의 : 대진산업 010-2628-9944

| 현불 논단 |

코인 광풍엔 '황금 동아줄' 없다



선업 스님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

가상화폐 증후군 확대일로
마음 흔드는 격랑 · 바람 같아

서산 스님 〈선가귀감〉서
8가지 마음 경계 주의 전해
세상 보는 '삼법인' 알아야

기술 변화 관심만큼 자신 살펴
바람에 흔들리는 마음 잡고
증후군 파도 건너 정상 삶 살자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의 광풍으로 인해 새로운 증후군들이 확대 · 재생산되고 있다.

먼저 '포모 증후군(FOMO, fear of missing out)'의 경우를 보면, '유행에서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고립공포 경향성이 진폭 큰 변동장세와 맞물려 태풍급으로 진화하여 코인 분야의 포모증후군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번 흐름에 타지 못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대되어 서로 사거나 팔면서 더 큰 가격 변동을 이루어낸 것이다.

'코인우울증'의 경우는 가상화폐 열풍으로 손쉽게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의 소식을 접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증가하여 우울감이 증폭되면서 나타난 증상이다.

"나는 하루 종일 일해도 빠듯하게 사는데 누구는 비트코인으로 하루 만에 몇 백, 몇 천을 벌다니…"

이런 생각은 질투심과 허탈감을 동반하고 마음을 몸살나게 한다. 서산 스님은 〈선가귀감〉을 통해 마음을 흔드는 8가지 바람을 일러주고 있다. 8가지 경계가 나타나면 조심하라는 것이다.

조심해야할 첫 번째 바람은 '이(利)'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 싶으면 마음에 바람이 든다는 것이다. 투자할 때는 이익을 보려는 마음이 앞선다. 그런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또한 손해를 보게 되면 견딜 수가 없다. 이를 '쇠(衰)'라고 하고 '쇠망'이라고도 한다. 이 때도 마음은 바람을 맞는다.

변동 폭이 크게 되면 바람의 세기와 함께 마음의 진폭도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자기 안에 다양한 자아들이 등장하여 서로 다투고 욕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본 모습을 잃어 간다. 그러다 보면 진흙탕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껍데기만 남게 된다.

세상을 바로 보게 하는 눈인 삼법인의 첫 번째는 '모든 것은 변한다'이다. 세상의 변화를 읽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는 흐름에 올라타는 것이 진정한 흐름의 선구자이다. 새로운 블록체인의 기술의 중요성은 투자와 관심의 확대로 증명되고 있다. 그런 변화와 함께할 때 많은 환호와 격려가 동반된다.

삼법인의 두 번째는 '모든 것은 고통이다'이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변화의 뒤만 쫓다보면 허망한 결과로 마음만 상하게 된다.

남이 한다고 따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 이런 고통이 왜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알게 되면 해결책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광풍에 휩쓸려도 알아차리면 멈출 수 있게 되고 멈추면 새로운 길이 보여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통증은 문제되는 부위를 알려주는 무의식의 선물이고 통증의 진정한 의미는 '나의 지금 상태'를 확인하는데 있다고 한다. 지금 아프다면 지금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는 나침반으로 쓰면 되고 이를 기반으로 다음 단계를 지혜롭게 준비하면 된다.

삼법인의 세 번째는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이다. 화폐의 개념을 포함한 모든 개념은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게 되면 새롭게 정의되는 어떤 개념에도 넋을 잃을 일이 없게 된다. 오히려 모든 것을 다시 보는 '낯설게 하기'로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게 된다. 새롭지 않은 순간은 단 한 번도 없기에 이제는 정체를 직시하고 중심에서 외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030용 황금 동아줄이 따로 있을 것이라는 파격은 가상의 허공 꽃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법의 표식이다. 법의 표식은 바람에 흔들이는 마음을 오뚜기처럼 세워 모든 세상의 증후군 파도를 건너 우리 삶을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만든다.



기자칼럼
신성민 취재부 부장

영화 '신과 함께'는 불교영화인가

영화 '신과 함께-죄와 벌(이하 신과 함께)'의 흥행 열풍이 뜨겁다. 지난해 12월 20일에 개봉하고 해를 넘어서까지 흥행가도를 달리는 중이다. 1월 18일 현재 '신과 함께'는 13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역대 박스오피스 5위 자리에 올랐다.

뿐만 아니라 '신과 함께'는 대만, 홍콩 박스오피스에서도 1위를 차지하는 것은 물론 제12회 아시안 필름 어워드 후보에도 오르는 등 아시아 시장에서도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중이다.

이 영화의 큰 장점은 동아시아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동양적 지옥 세계관에 특유의 효(孝) 사상을 추가한 것이다. 물의 없이 볼 수 있고, 감정도 빠르게 이입된다. 거기에 현란한 CG들은 지겨울 틈 없이 채워지며 영화에 몰입할 수 있게 도와준다.

불교계도 '신과 함께'의 흥행을 반기는 분위기다. SNS나 불교 언론들에서 연일 "'신과 함께' 흥행의 바탕에 불교가 있다"며 띄우고 있다. 일편 타당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보자. 영화 '신과 함께'는 과연 불교영화인가. 영화 '신과 함께'는 동명의 웹툰이 원작이다. 불교 군종병 출신의 주호민 작가가 만들어낸 원작 '신과 함께'는 저승편, 이승편, 신화편으로 나뉜다. 이 중 저승편이 현재의 영화에 해당된다. 3부작 중에서도 저승편은 불교 세계관을 현대적으로 변용시켜 많은 눈길을 끌었다. 저승가는 열차부터 지옥들을 통과하는 방법까지 작가 특유의 재치와 유머가 있었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지장보살의 존재였다. 지장보살은 주지하다시피 지옥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이다. 지장보살은 석가모니불에게 "지옥이 텅 비지 않으면 성불을 서두르지 않겠나이다. 그리하여 일체의 중생이 모두 제도되면 깨달음을 이루리라"라고 거룩하며 숭고한 서원을 다짐했다.

원작 웹툰에서는 지옥이 커져 일일이 찾아다니기 어려워지자 지장보살은 변호사를 배출하기 시작한다. 여러 시왕들 앞에서 주인공을 변호한 진기한은 지장보살이 배출한 변호사였다. 어찌보면 지장보살의 화신(化身)이라 볼 수 있다. 지장보살과 진기한은 '신과 함께-저승편'과 불교적 저승 세계관 모두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영화 '신과 함께'에서는 변호사 진기한이 사라졌다. 구원의 존재로서 지옥 중생을 구제하던 지장보살이 없어진 것이다. 애초 우리가 말하는 '지옥'은 산스크리트어 '나라카(naraka)'서 유래하며, 불교와 함께 중국에 수입돼 도교의 명계관과 만나 시왕사상이 됐다. 다시 말해 불교와 도교가 습합된 세계관인 것이다.

'인과응보' 역시 지옥 개념이 도입되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타나는 개념이기도 하다.

누구나 죄를 짓고 살고 있기에 이를 적극적으로 변호해준 지장보살은 없어지고 비어버린 자리에는 효로 포장된 '신파'가 채웠다. 그래서인지 마지막까지 '울어, 울란 말이다' 하며 밀어붙이는 전개는 일편 거북하다.

원작의 매력은 불교적인 세계관이 구현된 지옥세계와 한국 전통 민속문화들을 현대적으로 재기발랄하게 재해석하는 점이었다. 또한 이야기꾼으로서 작가의 역량도 매우 뛰어났다.

하지만, 영화 '신과 함께'는 어떤가. 화려한 CG는 원작이 준 매력들을 대신 해주는 못하며 불교적 세계관은 반쪽이 됐다. 정확하게 영화 '신과 함께'는 불교영화가 아니다. '불교적 세계관을 잘 구축했던 원작'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社說

조계종 승가교육 개편에 부쳐

조계종이 기본교육기관 숫자 축소 · 구족계 수지 시기 조정 등을 골자로 다시 한번 승가교육시스템 개편에 들어간다고 한다.

조계종 교육원은 1월 18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서 올해 사업 기조와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승가교육시스템 개편을 예고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제시된 개편 과제는 △기본교육기관 숫자 축소 △교수 및 연구자 적정수 유지책 마련 △승가대학 축소에 따른 교수스님 새 역할 부여 △기본교육과정 학제 조정 및 구족계 수지 시점 조정 등이다.

사실 이들 과제는 출가자 급감에 따른 고육책이다. 최근 2년 사이에 연간 출가자 수가 150명대로 감소됐으며, 올해에는 120명 수준도 위험한 수준이라고 전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18곳의 기본교육기관들은 학인 스님이 매번 모자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승가대학 전체 학인이 6~9명인 곳도 상당수다. 학생이 없는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인력과 재정의 낭비이기도 하다.

일선 현장의 스님들도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서로 공감했던 문제였지만, 결국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지만 남았다고 말한 교수 스님도 있었다.

궁극적으로 종단이 고민해야 하는 것은 전통에 부합하면서도 시대에 맞는 출가 문화를 정립하고, 현 승가교육 시스템을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선 현장 교수스님들과 면밀하고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 논의들은 문중, 사찰의 이해관계가 아닌 종단의 대계를 위해 이뤄져야 한다. 성공적인 승가교육 개편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눈물의 KTX투쟁, 행복으로 끝나길

KTX 해고 여승무원들의 생활을 어렵게 했던 부당이득금 환수 문제가 불교계의 노력으로 10년만에 해결됐다. 대전지방법원이 16일 철도공사가 KTX해고여승무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소송에서 원금의 5%를 지급하는 조정안을 낸 것이다.

지상의 스튜어디스를 꿈꾸며 2004년 KTX개통을 앞두고 입사한 여승무원들은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됐다. 이후 2008년 해고 여승무원들이 근로자 지위 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벌여 매달 임금을 받았지만 2012년 사측의 가처분으로 임금 지급 중단됐고, 4년간 임금이 대법원 패소로 빚으로 남았던 것이다.

이번 조정을 통해 여승무원들의 해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다. 2015년 대법원이 코레일 승소를 통해 해고된 여승무원들을 코레일 노동자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이고, 이번 조정은 당시 해고 이후 지불한 임금을 환수가 가혹하다는 여론에 일부 경감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코레일은 복직 등에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많은 공기업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외치고 있지만 아직 많은 비정규직들이 거리에 있다. 이런 소외계층의 아픔을 보듬는 일이 불교의 역할이 아닐까.

KTX 해고 여승무원 환수금 문제 해결은 이제 시작이다. 아직 사회 많은 이들은 행복해지길 바란다. 이들은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쉬운 인생은 없다며 부당한 현실을 마주했을 때 당당히 맞서고 노력하는 이는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다짐하고 있다. 불교계는 KTX 해고 여승무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탈종 및 탈종 정정 공고

- 사찰명 : 정혜사
- 주 지 : 도경(안영근)
-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 2동 145-13

상기인 사찰의 2018.01.05 탈종공고는 무효이므로 정정함과 동시에 한국호국불교 조계종을 탈종하고 대한불교법화종 소속사찰로 존속함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4일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한국호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태광사
- 주 소 : 강원 삼척시 미로면 영경로 595-13
- 법 명 : 석존 (심원구)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4일

(사)대한불교법상종 총무원장 법하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www.btn.co.kr

울림채널
이 시대 최고의 힐링 채널
전성시대



BTN 은 케이블TV(아날로그/디지털), 스카이라이프, IPTV 모든 플랫폼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skylife 181번 olleh HD 233번 tv HD 305번 TV HD 185번
케이블TV 채널안내 : BTN홈페이지에서 확인 또는 02.3270.3300

반야용선 [출원번호 30-2017-00239984]

극락세계로 가는 지극한 마음을 반야용선에 담아
부처님의 가피를 염원합니다.

불교의식에서 꼭 필요한 장엄의식구로서 종교적 경건함과 예술적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화려하고도 우아한 장식으로 인로왕 보살님의 안내와 지장보살님이 함께 동승하여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것입니다. 정교한 조각, 우아한 단청, 화려한 휘장으로 제작된 최고의 작품입니다.



반야용선 전체 – 높이 130㎝ × 길이 160㎝

• 주문 : 현불샵 02-2004-8214 / 010-7339-8688
(제작기간 : 입금 후 15일 / 전국 어디든 직접 배송하여 드립니다.)

불교 장엄의식의 품격을 보장합니다
평생 사용 하실 수 있으며, 연(輦)만 분리하여 별도 의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인로왕번 – 높이 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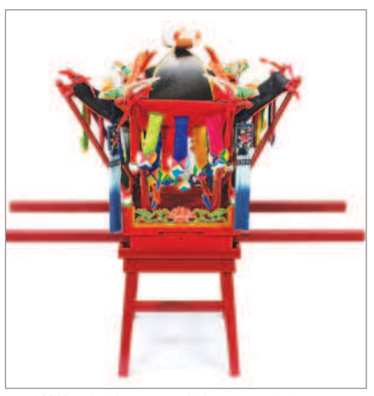

■ 용선모체 – 높이 63㎝ × 길이 160㎝


■ 지장보살 – 높이 60㎝ × 넓이 18㎝



■ 반야용선 앞면


■ 반야용선 후면


■ 연(輦) – 높이 62㎝ × 넓이 68㎝ (받침대 높이 43㎝)


■ 반야용선 받침대 – 높이 48㎝

■ 무 게 : 반야용선 전체무게 20kg
■ 재 질 : 반야용선 – FRP / 연(輦) – 목재
■ 금 액 : 450만원
■ 제조사 : 안스아트

YESGOOD.CO.LTD
20년경험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 여행사
문의 02-365-7747
전화 www.mahayeon.com
서울시 종로구 조계사앞 대불광빌딩2층
성지순례는 역시 마하연 입니다!
미얀마
찬란한 불교문화를 간직한
천불천탑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

부처님의 탄생지부터 열반지까지
인도 8대 성지순례 11일
인도네팔 "품격 성지순례" 출발 확정!
인도성지순례의 정석,
마하연과 하면 역시 다릅니다.



라오스 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엔
라오스/베트남 8일
하롱베이-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엔
베트남/캄보디아 6일
하롱베이-씨엠립



마하연 특별기획
백두산 성지순례
【4박5일】 북파+서파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성지순례

4대불산 중국 대만
오대산 아미산 보타산 구화산
북경-운강석굴-오대산-석가장 5일
구채구-아미산-황룡 6일
구화산-낙가산-보타산 5일
백두산(북파+서파)-고구려유적지
압록강유람선 6일
대만
불광사 공승 대법회 (4박5일)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5박6일
성지순례와 휴양을 동시에
족자카르타-발리
태국 3박5일
방콕-아유타야-파타야-방콕
스리랑카 6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불라
시기리야-폴론나루와-담불라-캔디-콜롬보



박정이 예비역불자연합회장은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남북대화가 이어지는 것을 환영하면서도 안보에 만전을 기해야 함을 역설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하심’으로 리더십, ‘소통’으로 일치단결

리더에게 聽하다

박정이 예비역불자연합회 회장(前 육군대장)

대비없는 평화는 없다

남북대화 이면 도발 기억
근본 북핵 · 미사일 해결해야
여야 떠난 안보 정책 필요
올림픽 성공수행, 군 만전

리더십은 ‘하심’서 나와

계급보다 능력, 솔선수범
부하에게 감동줄 때 따라와
‘소통’통해 단합된 힘 이끌어야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박정이 예비역불자연합회 회장(예비역 육군대장)은 현역 시절 천안함 사태에서 군 기강을 다지는 등 국가안보에 헌신해왔다. 평소 철저한 자기관리와 리더십으로 유명한 그의 생활에는 불자로서의 마음가짐과 수행이 있었다. 40년 가까이 군에 복무하며 국가안보 일선에서 활약한 박 회장은 불자로서 ‘하심’의 리더십을 강조했다. 북핵 위기와 남북 대화 국면에서 국가 안보와 동북아 평화 구축,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Q: 박정이 예비역불자연합회장님은 군에서 지휘관으로 몸담으시면서 오랜 기간 국가 방위에 공헌해 오셨습니다. 최근 북한의 핵개발로 촉발된 한반도 위기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행이 2월에 열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해빙 무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작금의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보시며, 또한 우리 국민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무엇인지요?

대한민국은 굉장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체제의 가치를 기반을 둔 통일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88올림픽,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한데 이어 처음으로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국가로서 굉장히 영광된 자리이고, 이런 자리에서 남북 간 대화가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되면 더욱 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북핵과 미사일 문제로 남북관계 경색이 깊어졌는데, 대화 국면으로 넘어간다면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본다면 안보는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사실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림픽을 계기로 대화가 이뤄진다고 해서 평화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겠는가는 의문이 듭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북핵, 미사일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연결되지 않으면 남북 간 대화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입니다.

북한의 문제는 정부 당국자들이 잘 새겨야 합니다. 선수 참가 문제로 논의를 했지만 예술단이 내려오고, 서울에서도 공연을 하는 것에 대한 북한 측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번 남북 대화는 경색 국면을 타개하는 계기가 좋지만 몰입되어 앞뒤를 판단하지 못한다면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통상 북한은 2014년 아시안게임 당시 북한 최고위급 회의 후 2015년 DMZ목함지뢰 사건 등 대화와 도발을 이어왔습니다. 숨은 의도를 파악해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Q: 그렇다고 보면 결국 평화는 자강과 대화 두 가지가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내에서도 소통을 통한 단합된 힘을 보이는 것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국가의 안전보장은 생존이 최우선입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힘, 즉 자강이 필요하지요. 국가안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대비태세를 갖춘 상황에서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좌우에 따라 너무 큰 차이를 보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화도 중요하고, 소통도 중요하지만 말로만 하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로마시대 베게티우스(Vegetius)라는 전략가가 한 말이 있습니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에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대비되지 않은 평화는 평화라고 할 수 없고, 이는 손바닥 뒤집듯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춘 상황에서 정부에서 대화를 추진해 가야 합니다.

Q: 확고한 대비태세를 보니 회장님에 대한 한 일화가 생각납니다. 2010년 국회 국방위에서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한 이진삼 국회의원이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군인들의 기강문제를 거론하면서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장성들에게 인식표를 차고 있으면 손을 들라고 질의했는데, 회장님을 비롯한 서너명 만이 이를 착용하고 있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기본에 충실하고, 또 항상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군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집단이고, 훈련을 통해 준비하는 조직이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핵과 미사일 위협이 심각하고, 국내외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세력이 준동하고 있지만, 우리 군만은 확실하게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창올림픽 때도 마찬가지로 테러나 기타 불미스러운 일을 가정하고 미연에 방지, 평화로운 가운데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격이 한차원 높아지는데 기여했으면 합니다.

Q: 현역 지휘관 시절 군을 통솔하고 지휘하실 때 부처님의 가르침과 사상이 혹시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됐습니까. 박 회장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요.

B2면에 계속

INSIDE

B3
현견 스님의 중국 선문화 기행
오정심관(五停心觀)–오문선(五門禪)

B5
문화
리뷰–배성근 서예가 9회 개인전

B6
학술 · 문화재
김영진 교수의
〈중국 근대불교학의 탄생〉

‘군’ 에선 부하와 ‘사회’ 선 대중과 함께 정진

‘박정이 회장’ B1면에서 계속

리더십은 사람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결국 도덕적 진실성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리더십은 결국 사람을 상대로 이뤄집니다. 가식이나 허위가 있어서는 리더십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스스로의 지적 능력을 가다듬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병행해야 합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기업 경영에서 경영전략 등이 중요하고, 군에서는 부대관리, 부대운영 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군생활에서는 지휘관의 리더십에 따라 부대의 지휘와 관리, 운영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군이라고 해서 계급을 가지고 부하를 통솔하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도덕적 바탕 아래 능력을 갖추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으로 부하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불자로서 생각해온 것은 불교 리더십만큼 훌륭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맞춤형, 인간중심형 리더십 등 신세대에 맞는 리더십이 나오고 있지만, 불교 리더십 안에 이러한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바로 ‘하심’입니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방하착(放下着)과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하심(下心)은 군 지휘관이 지녀야할 자세입니다. 정보화, 다원화 사회의 군에서도 권위보다는 마음을 열고 배려하고 솔선수범하는 방하착과 하심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른바 인간중심의 리더십이 더욱 필요한 때 입니다.

Q: 사회 각계에서 이른바 ‘갑질’ 논란 등이 발생하는데 더욱 지도자들의 하심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리더십을 기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군이나 사회나 간부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개발을 많이 하는데, 저는 팔정도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견과 정사, 정어, 정업, 정명 등 팔정도 수행을 평소에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하심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보왕삼매론〉을 보면 평정심 등 마음수행에 좋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보왕삼매론〉은 중국 명나라 때 묘협이라는 스님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설파한 내용입니다. 항상 스스로의 마음가짐을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군에서는 계급이 높아지면서 스스로 권위적이지 않으려 해도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 밖에 없는데 마음을 내려놓고 부하들과 함께 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Q: 현역에 계실 때 국군불교총신도회장으로서 다양한 불사를 하시고 퇴역 후인 현재도 예비역 불자연합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군불교 진흥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요?



박정이 회장은… 1952년 생. 충남 홍성군 출신으로, 평택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6년, 육사 32기로 임관했다. 육사 기수 중 1명만 선발하는 독일 유학 시험에 합격, 독일 육사에서 졸업하고 왔다.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완벽한 업무 처리로 정평이 높으며 부하들에게도 포용력 있는 선 굵은 지휘관으로 명망이 높았다. 주요 보직으로 육본 정책조정과장, 13공수여단장, 수방사 참모장, 20사단장, 합참 작전부장, 수도방위사령관, 합참 전력발전본부장, 육군 1군사령관 등을 역임했다. 권위나 강압이 아닌 솔선수범에 의한 리더십을 보인 그는 2011년 예편한 이후 불자로서 인생 2막을 열고 있다. 2016년 6월 제2대 예비역불자연합회장으로 취임 후 호국불교포럼을 개최하는 등 국가 안보와 신행활동을 접합한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군포교는 군법사님들과 지휘관들이 노력을 하여 크게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 종교인구 감소의 국면이 있습니다. 군불교는 불자로서 느끼는 것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예산이 궁핍하고 시스템적으로 잘 갖춰져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교리 또한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종단과 군종특별교구, 그리고 교구본사와 군법당의 연계 체계가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유명하신 스님 위주 등 개인적인 활동이 많았습니다. 군법당에 대한 각종 신행활동의 지침과 지원을 군종특별교구를 주축으로 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교구 내 행정 체계가 정비되어야 합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20기계보병사단장을 할 때 수색대대 법당이 400번째 법당이었습니다. 120여 군법사님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웃종교계의 경우, 사단장을 할 때보면 군교회와 연계가 잘돼 멀리에서도 신도들이 찾아와 도움을 줍니다. 지역 사찰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군불교에 관심을 갖고, 군장병들이 법사님이 없더라도 법회라도 볼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합니다.

청년들인 장병들이 쉽게 불교를 알아 갈 수 있도록 군종교구나 종단 차원에서 경전을 계발해나가고, 또 SNS를 통해서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포교와 전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불자군인, 호국불교 정신으로 무장

소령 때 군법당서 감화 · 발심
군불교 열악하지만 기회 많아
명상 등 현대화된 군포교 필요
〈보왕삼매론〉에 군 마음가짐 담겨

Q: 불교와 첫 인연 맺게된 계기와 법명은 어떤 분에게 받으셨는지, 불교와의 인연담을 들려주시지요. 평소 신행활동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려서 불교집안에 태어났지만 군에 와서는 소령을 달고 육군대학, 당시 경남 진해에 있었는데 수국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본격적으로 신행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군법사님이 이희영 법사였는데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윤덕후 법사 등 다른 훌륭한 법사들을 보며 법당에 계속 나와야 하는구나 느꼈습니다.

현역에 있을 때는 법당에 자주 나갔는데 전역 후에는 1달에 2번 법당에 나가고 있습니다. 2주차 일요일은 서울 충정사, 4주차 일요일은 국방부 원광사에서 예비역 불자들과 함께 법회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편입니다. 제일 먼저 〈반야심경〉을 사경하고 독경 후에 명상을 10분 가량합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불교교리나 경전을 많이 읽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것이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Q: 그동안 불자로서 신행활동을 하시며 자긍심과 보람을 느꼈을 때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어느 때 보람을 느끼셨는지 들려 주시지요.

오늘날 제가 있게 된 것은 불교에 귀의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마음에 담고 생활해서였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발전,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에서 저를 내세우기 보다는 함께하는 이들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도덕적인 진실성이 리더십에서 중요하다고 했는데, 진정한 마음을 바탕으로 한 관계 형성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불교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불자들은 개인 인격 수행, 해탈을 중심으로 해서인지는 몰라도 적극성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예비역불자연합회장으로 호국불교포럼을 2달에 한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100명 이상씩 모여서 국가 안보와 불교를 논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의 특징인 호국불교로, 불자들부터 바른 역할을 가져보자는 마음에서 였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Q: 현재 모두가 한국불교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불자 감소 300만의 현실에서 다시 불교를 일으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재가불자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미국과 유럽에서는 불교가 명상 개념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군을 비롯해 사회 곳곳에서도 명상 개념으로 보다 편하게 접할 수 있는 불교가 됐으면 합니다. 이와 함께 도심포교당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법회와 법문의 현대화, 대중화에 보다 나서야 합니다.

불교는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불자분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법회활동, 신행활동, 또 사회참여에 나서주셔야 합니다. 종단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활동여건을 조성하는데 적극나서야 합니다.

불교만큼 좋은 종교는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깨우치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일상 생활 속에서 생활화 될 때 분명 자신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 항상 갈고 닦는 불자, 훌륭한 국민, 훌륭한 사회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가 됐으면 합니다.

집안에서 법조인이 되길 바랬지만 군인의 길을 택한 박정이 회장, 그는 다시 돌아가도 군인의 길을 선택할 것이라고 했다. 전역 후 합동참모본부에서 전구사후검토조정관을 맡고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안보 강연을, 예비역불자연합회장으로 군불심 증장에 나서고 있는 그에게서 참군인, 참불자의 향취가 느껴졌다.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FAQ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현대 사회서도 유용한 '오정심관'



현견 스님의
중국 선문화 기행

② 오정심관(五停心觀)-오문선(五門禪)

(오정심관은 사람들의 근기 및 상태에 맞게 설해진 초기 선법이다)

오정심관(五停心觀)은 오종관법의 명칭으로 중국에서 비교적 초기 선법에 해당되며, 역시 달마 이전의 선법 중 하나로 장기간 유행했던 선법이다. 오정심관은 오문선(五門禪)이라고도 하는데, 즉 다섯 가지 과실과 번뇌를 멈추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선정(禪定)수행 방법은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아니다. 즉 불교에서 창조한 것은 아닌 것이다. 선정의 원류는 인도의 고유 종교인 바라문 및 기타 외도유가(瑜伽 · 요가)로부터 유래했다. 석가모니부처님께서도 성불하시기 전에 일찍이 외도들이 수행하는 '사선(四禪)과 사무색정(四無色定)'을 배우신 적이 있다. 즉 부처님이 불교수행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외도들의 수행 방법과 일종의 요가수행법을 일부 불교에 흡수함과 동시에 상당 부분을 개조해서 불교의 체계적인 선법을 창시했다. '선(禪)'은 본래 특수한 삼매의 일종으로, 불교의 '선(禪)'은 대체로 '삼학(三學 · 계,정,혜)' 중 '정(定)'을 말한다.

소승불교와 원시불교의 선관(禪觀)의 문제에서 매우 큰 차별이 존재한다. 소승선관의 관법은 종류가 매우 많다. 중요한 몇 가지만 열거해 보겠다. 즉 사제(四諦), 오정심관(五停心觀 · 오문선), 팔념(八念 · 念佛 念法 念僧 念戒 念舍 念天 念出入息 念死), 팔배사(八背捨 · 팔해탈, 팔승처(八勝處), 구상관(九想觀), 십상(十想), 십육특성(十六特性) 등이다.

그러나 많은 소승선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중심은 수식관과 부정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수식관과 부정관을 '두 가지의 감로문'이라고 불렀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오정심관에 포함된 선법이다. 소승선의 최고의 경지는 '멸진정(滅盡定)'이라고 한다. 소승은 '회신멸지(灰身滅智), 혹은 외고염신(畏苦厭身 · 고를 두려워하고 신체를 싫어한다)'하는 개인적 해탈에 목적을 두는 것을 강조한다.

여기서는 오정심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다. 오정심관은 ①안반(安般) ②부정(不淨) ③자비(慈悲) ④관연(觀緣) ⑤염불관(念佛觀)을 가리킨다. 또는 ①부정관 ②자비관 ③인연관 ④계분별관 ⑤수식관 등의 순서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즉 오정심관은 번역본마다 조금씩 순서가 다른 이본이 존재한다. 물론 약간의 기타 경전도 인용하겠지만, 전체적인 사상의 흐름은 〈오문선경요용법(五門禪經要用法)〉'에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겠다.

오정심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 다섯 가지의 선법이 함축하고 있는 내용은 사람의 근기 혹은 그 사람의 성향에 맞도록 잘 짜인 선법이라는 것이다. 먼저 안반선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호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기도 했고, 동시에 중복되는 내용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생략하겠다.

①안반선(安般禪)은 수식관이라고도 하는데, 즉 산만한 사람들이 이 선법으로 수행하기를 권하고 있다. 즉 산만한 사람들에게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 이 수행을 하면 반드시 16단계의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 때문에 십육특성(十六特性)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②부정관(不淨觀)은 사람의 신체가 부정하다고 관하는 선관으로, 특히 남자가 여색을 탐하거나 혹은 여자가 남자에 대한 욕정이 많은 사람, 지나치게 재물을 탐하는 사람들에게 권하는 수행법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마라집이 번역한 〈선법요해경(禪法要解經)〉에서 '중생에게는 6종의 욕이 있다. 색(남녀가 서로를 탐착하는 것)에 집착하고, 모양(形容 · 아름답고 잘 생기고)에 집착하고, 위의(威儀 · 자태에 대한)에 집착하고, 소리에 집착하고, 피부(細滑 · 피부가 매끄럽고 등)에 집착하고, 인상(人相)에 집착한다는 것이다. 전의 5종에 집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의 신체의 부정함을 관하게 하고, 마지막 인상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백골관을 관하기를 권했다. 이 외에도 〈대지도론〉에서는 신체의 오종부정(五種不淨)을 관하기를 권하고 있다. 즉 생처부정(生處不淨 · 태중에 있을 때, 어머니의 더러운 오물과 함께 주한다), 종자부정(種子不淨 · 부모의 정자와 난자가 종자가 된다), 자성부정(自性不淨 · 신체의 전체가 부정하다), 자상부정(自相不淨 · 몸의 아홉 개의 구멍이 모두 부정하다), 구경부정(究竟不淨 · 사망 후에 신체가 소멸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정한 모양) 등이다. 이 외에도 부정관에 대한 다른 내용이 많지만 여기서는 생략하겠다.



그림 · 강병호

오문선(오정심관), 달마 이전 선법
5가지 과실, 번뇌 멈추게 함
선정 원류는 바라문 · 외도유가
불교전파 과정에서 일부 흡수 · 개조

소승선관의 관법 종류 다양
중심은 수식관과 부정관
소승선의 최고 경지 '滅盡定'

〈오정심관 · 五停心觀〉
안반선 – 산만한 사람에 필요
부정관 – 신체의 부정을 관함
자비관 – 분노를 대치하는 수행
관연관 – 윤회 멈추는 수행
염불관 – 부처님 念하는 수행

③자비관(慈悲觀) 혹은 자민관(慈愍觀)이다. 화내고 분노하는 것을 대치하는 수행법으로, 자비관은 불교수행의 근본 덕목이기도 하다. 본래 자비가 함축하고 있는 언어 개념을 심층 분석해 보면 자(慈)는 고를 벗어나게 해주고, 비(悲)는 즐거움을 준다는 뜻을 함유하고 있다. 사람들은 왕왕 타인과 나를 비교해서 타인이 나보다 좀 더 유리한 조건을 가졌거나, 혹은 유리한 위치에 있거나, 재물이 많거나, 나보다 인물이 출중하거나 하면 그 사람을 질투하거나 싫어하고 심지어는 비방하고 헐뜯는다. 그러다보면 자신은 더욱 괴로워지고 고통 속에서 지내게 된다. 질투, 분노, 성냄으로 인한 고통이 가중되고 심하면 우울증까지 이르게 된다. 이러한 상태를 멈추게 하고 벗어나게 하는 수행관법으로 불교에서는 자비수행법을 적극 권장한다.

또 〈좌선삼매경〉에서는 '처음에 이 선법을 수습하는 자는 반드시 자비와 친애를 가르칠 것'을 강조한다. 즉 자기와 가장 가까운 주변 사람들을 중심으로, 곧 부모 형제자매 친척, 멀리는 타인에게까지, 더 나아가서 일체 모든 중생들과 심지어는 원수에게까지 자애로운 마음을 확장시켜가는 관법이다. 특히 선정을 닦는 가운데서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영원히 부귀와 행복, 편안하기 등 긍정적인 염원을 그들을 위해서 발원하는 관법이기도 하다. 온전히 이타심이 충만한 상태로 완성해가는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자비관 관법이 소승관법수행이라고는 하지만, 자세히 관찰하고 분석해 보면 대승불교의 '이타행' 내지 보살도 정신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즉 대승불교에서 주장하는 무량중생들이 모두 이고득락하기를 주장하는 사상을 관통하기도 한다. 때문에 이 자비관 수행선법은 안으로는 자기의 진애심(瞋恚心 · 화내는 마음), 즉 분노의 마음을 소멸시켜주고, 밖으로는 타인을 위한 이타행, 애민심을 양육하는 좋은 수행법이다. 특히 화가 많고 자주 분노하거나 분노조절장애인들에게 권할 만한 수행법이다.

④관연관(觀緣觀) 혹은 인연관(因緣觀)은 윤회의 근본 원인인 무명의 어리석음(愚痴 · 우치)을 멈추게 하는 수행법이다. 인연관은 생사의 근본 도리를 일깨워주면서 생사의 근본 도리인 12인연을 관찰하게 해서 삼세(과거 현재 미래)를 상속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관하게 하고, 세상의 일체법이 모두 인(因)으로부터 연(緣)이 생하는 과정 및 전인후과(前因後果)가 분명함을 알게 하는 관법이다. 이 세상의 만물이 절대적인 존재도 영원한 존재도 아니며, 서로 상대적으로 의존하는 관계이다. 이러한 인과관계의 이치를 깨닫고 어리석은 대장정의 윤회를 멈추게 하고 종식시키는 관법수행이다. 즉 12인연을 통해서 인생의 현상이 많은 인연화합으로 서로 의존하고 생존하는, 잠시 인연으로 이루어진 무상한 현상임을 통찰하게 하는 선법이기도 하다.

⑤염불관(念佛觀)은 부처님을 염하는 것으로 혼침암새장(昏沉暗塞障 · 혼침을 막게 한다), 악념사유장(惡念思惟障 · 삿되고 악한 생각을 멈추게 한다), 경계핍박장(境界逼迫障 · 어떠한 경계에도 흔들리지 않게 한다) 등 세 가지의 장애를 대치하기도 한다. 그래서 〈坐禪三昧經〉에서 염불문은 "등분행(等分行) 및 중죄인(重罪人)을 위해서 시설한 법문이다"고 하고 있다. 처음 이 염불문을 닦는 자는 불상 앞에서 일념으로 부처님의 장엄하고 훌륭한 상호를 관함으로서 분명해지면, 곧 눈을 감고 명료해진 부처님의 장엄한 상호를 마음 새긴다. 만약에 명료해지지 않으면, 눈을 뜨고 불상을 명료해 질 때까지 관해서 명료해지면, 고요한 곳에 이르러 하나하나 상호를 관하면서 불상을 바라보고 불상의 상호를 일념으로 놓지 않고 이어가다보면, 자신이 곧 진불색신(眞佛色身)과 다름이 없는 상태에 이른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염불관은 관상(觀像 · 장엄한 상을 관하는 것)과 관상(觀想)의 염불을 말한다.

송 · 명 이후의 지명염불(持名念佛 · 나무아미타불 명호 및 기타 불보살 명호를 부르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그러나 그 염불의 공덕은 모두 염불삼매를 얻을 수 있다. 또 송대 이후의 이 염불명호의 염불선은 송대 선종의 화두인 염불시수(念佛是谁)라는 화두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한편 〈五門禪經要用法〉에서 염불관(念佛觀)을 계분별관(界分別觀)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계분별관은 또 계차별관(界差別觀)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중생의 구성 요소 및 생존하는 환경인 18계(六根 · 六識 · 六境) 등을 관상하게 해서 사대(四大 · 지수화풍) 오온(五蘊 · 색수상행식)으로 이루어진 '아(我)'에 대한 한계성 내지 무상성을 관찰 분석하게 하는 관상법(觀想法)으로, '아(我)'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하는 수행법이다.

비록 오정심관의 수행법이 초기 선법이라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승불교의 경전 가운데서 이 오정심관(五停心觀)의 수행법이 자주 등장한다. 특히 부정관과 수식관이 그러하다. 오정심관의 수행법은 현대 사회에도 매우 유용하다고 본다. 특히 현대인들의 다양한 특성 및 다양한 근기에 적용 시킬 수 있는 적당한 선법이며, 현재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다양한 명상에서도 오정심관을 응용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불교학술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도서출판 운주사의 〈프라즈냐 총서〉



1 불교철학의 역사
D. J. 칼루파하나/김종욱 역//544쪽/25,000원

2 한국의 불교의례 I
정각/신국판양장/460쪽/27,000원

3 밀교학 개론
종석/신국판양장/286쪽/12,000원

4 법화경의 성립과 배경
塚本啓祥/이정수 역/576쪽/27,000원

5 성철선사상
도대현/신국판양장/448쪽/23,000원

6 인도불교사
정순일/신국판양장/726쪽/33,000원

7 주역선해 연구
청화/신국판양장/510쪽/25,000원

8 율장의 승단분열 연구
자현/신국판양장/280쪽/15,000원

9 불성론 연구
최현민/신국판양장/368쪽/18,000원

10 불교의 마음챙김과 사상의학
불교와 사상의학 연구회 편/416쪽/23,000원

11 청송의 선과 철학
소광희 외/신국판양장/312쪽/18,000원

12 불교미술사상사론
자현/신국판양장/304쪽/18,000원

13 천수경 연구
정각/신국판양장/500쪽/25,000원

14 역경학 개론
최종남 외/신국판양장/454쪽/23,000원

15 현수 법장 연구
계환/신국판양장/252쪽/15,000원

16 유식삼십송 풀이
후카우라 세이분 저/500쪽/25,000원

17 불교사회복지개론
조보각 외/신국판양장/408쪽/20,000원

18 한국 고대 정토신앙 연구
현송/신국판양장/320쪽/17,000원

19 경봉 선사 연구
정도/신국판양장/304쪽/17,000원

20 화엄경의 문학성 연구
도업/신국판양장/360쪽/18,000원

21 정토 수행관 연구
법상/신국판양장/524쪽/25,000원

22 정토불교의 역사와 사상
현송/신국판양장/436쪽/23,000원

23 동산의 불교계 정화운동 연구
진관/신국판양장/242쪽/15,000원

24 한국불교 의례체계 연구
이성운/신국판양장/454쪽/23,000원

25 청송의 생애와 선철학
소광희/신국판양장/212쪽/15,000원

26 불교세시풍속
오인/신국판양장/446쪽/23,000원

27 삼계교 사상 연구
법공/신국판양장/424쪽/23,000원

28 범망경보살계본위해
이원정 편/목정배 역/556쪽/28,000원

29 심오한 중도의 새로운 문을 여는 지혜의 등불
게쎄 텐진 남카/신국판양장/484쪽/24,000원

30 중국불교사상사
김진무/신국판양장/496쪽/25,000원

31 승산행원의 생애와 사상
최용운/신국판양장/292쪽/17,000원

32 불상점안의식 연구
해사/신국판양장/488쪽/25,000원

33 불교사회사상의 이해
이병욱/신국판양장/364쪽/18,000원

34 분황 원효의 생애와 사상
고영섭/신국판양장/464쪽/25,000원

35 삼계교 연구
서본조진 저/박부자 역/716쪽/35,000원

36 대각국사 의천 연구
무원·진관 공저/신국판양장/272쪽/16,000원

37 티베트 돈점 논쟁 연구
박건주/신국판양장/364쪽/20,000원

38 중국 불성론
라이용하이 저/법지 역/696쪽/33,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전화 (02) 926-8361 ● 주문 (02) 3672-7181 ● 인터넷 서점: 붓다북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고통 없는 마음 만드는 부처님 가르침 통역자”



불교정신치료 강의

전현수 지음/불광 펴냄/1만 7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한국적 정신치료 2세대로 불교정신치료의 체계를 확립하는 전현수 박사(전현수정신건강의학과의원)의 30년 노정이 한 권의 책으로 결집돼 나왔다.

정신과 전공의 2년차인 1985년 불교에 새롭게 눈 뜬 이래 불교를 통한 정신치료의 길을 걸어온 전현수 박사. 2013~2014년의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을 계기로 ‘불교’와 ‘정신치료’라는 두 길이 ‘불교정신치료’서 하나로 만나게 됐고, 이후 불교정신치료의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하는 데 박사의 모든 노력이 집중된다. 박사는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열 차례의 불교정신치료 워크숍을 열어 스님,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함께 더 나은 정신치료의 길을 모색했다.

워크숍 내용은 모두 녹취됐고, 그 원고를 정리 보완해 〈전현수 박사의 불교정신치료 강의〉로 출간됐다. 전 박사는 이 책의 출간으로 “이제 불교정신치료라는 위대한 여정에 돌 하나가 놓였다”고 평한다. 불교는 그 자체로 이미 완벽한 정신치료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부처님 가르침의 통역자”로 소개하는 전현수 박사. 이 책에는 전 박사가 정립한 불교정신치료의 세 가지 원리를 토대로 도출된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2,600년의 비결’이 체계적으로 실려 있다. 그 오래 전 붓다의 제자들이 그러했듯, 우리는 이 책이 제시하는 길 위에서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전현수 박사의 불교정신치료 강의〉는 ‘고통 없는 마음을 만드는 일에 대한 최고의 안내서’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정신과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서 환자가 자기 문제에 대한 통찰을 얻고는 했는데, 이 사람들이 과거의 자기 문제를 자꾸 반복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스님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환자가 자기 스스로를 보게끔 도와주세요.”

저자, 불교정신 치료학의 체계 확립

“환자가 자기 스스로 보게끔 도와 주자”

‘내 마음’이 그냥 ‘마음’ 되는 것 중요

환자는 알지만 우리는 놓치는 진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로 ‘무아(無我)’가 있다. 우리는 그것을 ‘내가 없다’, 즉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로 흔히 이해한다. 하지만 저자는 “내 것이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가 하나도 없으므로 무아”라고 말한다. 우리는 자기의 몸과 마음을 ‘내 것’으로 여긴다. 그런데 정말 내 것이라면 몸과 마음에 대한 나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어서 그것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 몸이 아플 때는 그냥 바로 안 아프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도 내 마음대로 마음이 평온해지도록 할 수 없다.



저자는 환자들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한다. 진료실에서 “마음이 내 꺼 아닌 건 압니다”라고 얘기하는 환자가 많기 때문이다. 우울하고 싶지 않은데 우울해지고 불안한 생각 안 하고 싶은데 계속 불안한 생각이 드는 경험을 환자들은 늘 한다. 마찬가지로, 몸이 아픈 사람들은 몸이 자기 말을 안 듣는다는 걸 잘 안다.

‘내 마음’이 그냥 ‘마음’이 된다면

따라서 ‘나’라는 잣대가 떨어져 나가서 ‘내 마음’이 그냥 ‘마음’이 되는 것이 정신치료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저자의 오랜 관찰에 따르면, 마음이 힘든 사람들은 자기가 잘 사나 못 사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등을 늘 주시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주의가 자기 자신에게로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다보니 힘든 일에 맞닥뜨렸을 때 ‘나는 왜 이러나?’ ‘내 인생은 잘 풀리는 게 하나도 없네’와 같이 스스로를 더 힘들게 하는 반응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은 주의가 바깥으로 가 있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이 어떻게 갈리는지 등을 잘 관찰하여 그 이치를 잘 파악하고 있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 때도, 마치 의사가 그러하듯 우선 ‘내 마음’이 아닌 ‘마음’을 객관적으로 살핀다. 그런 다음, 마음을 힘들게 하는 조건은 줄이고 마음이 좋아지는 조건을 늘리는 쪽으로 반응한다.

“완전히 해결하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삶의 아이러니”

아울러 저자는 결과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정신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현실의 삶이 이러한 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달리 될 수 있었다면 이미 달랐을 것이다. 삶이란 오직 현실 하나뿐이므로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도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우리는 현실을 밀어내는 데 온 힘을 쏟는다.

또한 우리는 거의 모두 불완전한 존재들이라 세상과 자기를 잘못 보고 잘못 대응하는 걸 완전히 피할 수 없다. 다만 그에 따라 발생하는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면서 상황을 개선하는 조건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갈 수는 있다. 받아들이는 태도가 더욱 절실히 요청되는 이유다. “자기가 무엇을 불편해하는지 잘 살펴보고 그 불편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걸 없애려고 하거나 거기에 저항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완전히 해결하려 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삶의 아이러니입니다. 힘들고 찝찝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양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번 지켜본다’는 호기심을 품고서 그렇게 해보세요.”

지극한 연민, 그것이 인간에게 바치는 보살의 공양



화신불

남지심 지음/모과나무 펴냄/1만 3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이 책은 불교 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서는 남지심 작가(오른쪽 사진)의 신작 장편소설이다. 글로써 세상과 소통한 지 40여 년, 남 작가는 이번 책 〈화신불〉을 통해 의상대사와 원효대사를 다시 생각한다. 명성 스님의 유발상좌로 소설 〈명성〉 〈한암〉을 집필한 작가는 누구에게나 익숙한 큰스님 두 분 이야기를 우리 시대에 맞게 의미를 되살려 재구성했다. 그러면서 두 스님보다 더 우리 귀에 익숙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의 참뜻을 헤아려본다. 어쩌면 1천 년 전부터 이어진 인연으로 우리 모두 하나하나의 화신불이 되어 세상을 밝히려는 꽃 같은 이야기가 펼쳐진다. 의상과 원효, 자비와 공덕으로 가득한 두 세계가 만났다

의상대사를 연구하는 강현표 교수는 강의를 위해 낙산사에 갔다가 우연히 한 여인을 만난다. 바다를 마주하고 관세음보살을 찬탄하는 게송을 읊고 있는 여인에게서 묘한 느낌을 받는다. 다음날 자신의 강의 시간에 그 여인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여인의 이름은 유향이다. 천 년 전 인물인 의상대사를 이야기하는 자리에 모인 사람들, 이들의 인연은 어디서부터 이어진 것일까? 강현표와 유향은 과연 처음 만나는 인연인 것일까?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거명한 왕들의 이름을 들으면서 의상 스님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가장 역동적인 시기에 사셨음을 알았을 겁니다. 스님의 청년기는 신라 백제 고구려가 서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각축전을 벌였고, 장년기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전쟁의 후유증을 안던 시기였으며, 노년기는 삼국을 통일한 신라가 새로운 통치 이념을 갈망하던 시기였습니다. 1,300년 전 이 땅에 사셨던 위대한 고승 의상대사를 공부하면서 작금의 현실이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오늘을 직시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삼국통일의 역동기에 의상대사가 보여주셨던 행(行)을, 남북통일을 성취해야 하는 오늘의 우리들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를 같이 고민해보려 합니다. 유익한 공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 년 전에도 지금도 자비가 가장 절실한 이들은 ‘없는 사람’들이다. 기댈 곳이 없고, 마음 둘 곳이 없고, 하루하루 연명하느라 벅찬 이들이야말로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공덕이 필요하다. 남 작가는 서로가 서로에게 자비의 관세음보살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어쩌면 〈화신불〉의 진짜 주인공은 이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민초들이겠다. 의상대사와 원효대사 역시 홀로 위대해진 것이 아니다.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왜 세상은 괴로운 것인지, 왜 공덕을 베풀며 살아야 하는지, 왜 다시 일어서야 하는지 끊임없이 질문하며 부딪혀온 중생들이 있기에 가능했다. 남지심 작가는 지금의 우리와 다르지 않은 천 년 전의 사람들을 눈앞에 보이듯이 그려내고 있다. 사랑에 아파하고 기약 없는 미래에 힘들어하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에 따뜻한 시선을 보낸다.

남지심 작가는 생활 속에서 '관세음보살 화신불 운동'을 펼치자고 제안한다.

남 작가는 “〈관세음보살 화신불 운동〉은 불자 스스로가 관세음보살이 되어 주위를 맑히고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자는 취지이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는 것이 자비심이다. 내 마음 안에 사랑과 연민이 샘물처럼 끝없이 솟아나기란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 그래서 뜻을 같이하는 도반들이 모여 서로 격려하고 탁마하면서 자신을 맑히고 세상을 밝혀 나가는 일을 함께하자는 것이 화신불 운동이다. 한 그루의 나무가 홀로 서있는 것보다는 서로 모여 숲을 이루었을 때 자신도 보호되고 전체도 장엄되는 이치이다”

사랑과 연민의 꽃이 되어 살아가고자 한다면 〈화신불〉속에 나와있는 이야기를 귀기울여 들어보자. 나 자신, 그리고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말이다.



소형난로

사천왕 대형 난로

(고압노즐 회전분식형 소각 기능)

소형난로	폭 600mm × 길이 1,000mm × 높이 1,500mm × 두께 9t 재질 : STEEL SS 400 내구성발열온도 : 700~800℃
중형난로	폭 800mm × 길이 1,300mm × 높이 1,650mm × 두께 12t 재질 : STEEL SS 400 내구성발열온도 : 600~700℃
대형난로	폭 1,000mm × 길이 2,000mm × 높이 2,150mm × 두께 12t 재질 : STEEL SS 400 내구성발열온도 : 500 ~ 600℃
공양초집	폭 800mm × 길이 1,600mm × 높이 2,030mm 재질 STS 304



중형난로 / 대형난로

난로 할부판매 가능합니다



공양 초집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www.shcandle.com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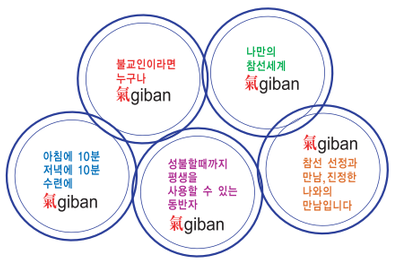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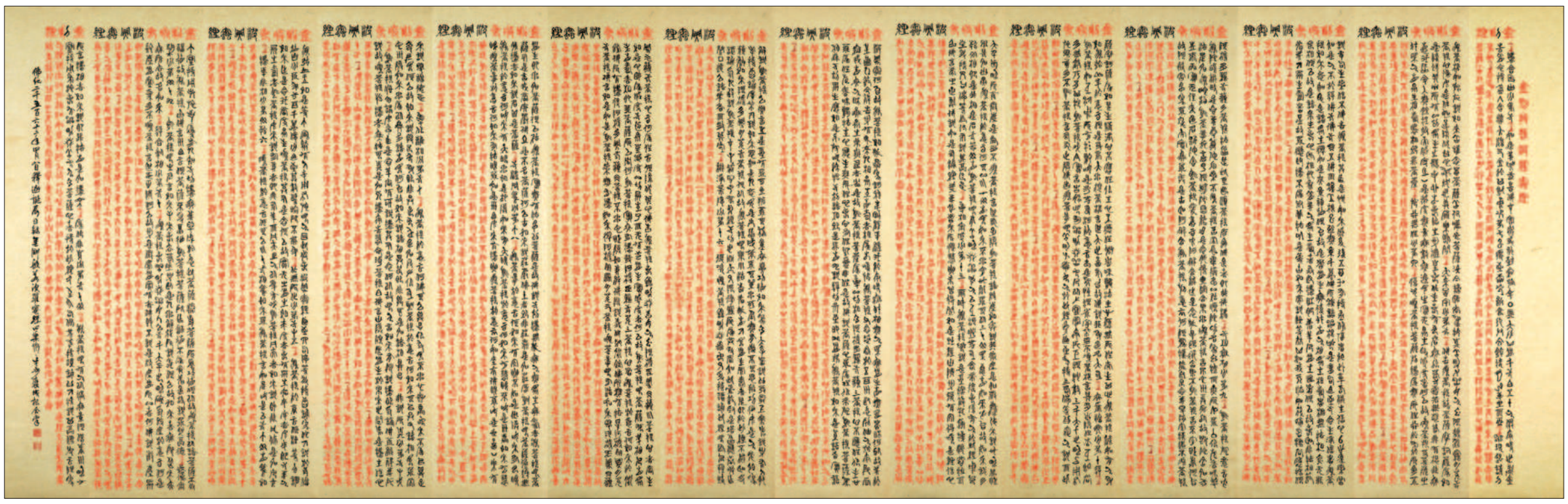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배성근 作, 〈금강반야바라밀경〉. 작가는 5천447자에 달하는 〈금강경〉을 한 자 한 자 금문체로 옮겨 완성하는 데 1년이 걸렸다.

리뷰 | 배성근 서예가 9회 개인전

365일 一念으로 쓴 〈금강경〉

4.18~23 울산문화예술회관 개인전서 40여 점 전시
금문체 5천447자 〈금강경〉 원고 포함 1년 6개월 걸려 완성
지금까지 다양한 서체로 〈금강경〉 10 차례 옮겨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금문체의 아름다운 조형미로 그려낸 〈금강경〉을 만난다. 14폭의 병풍에 담긴 〈금강경〉은 중견 서예가 배성근 씨의 작품으로, 1월 18일부터 23일까지 울산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장에서 열린 그의 아홉 번째 개인전을 통해 선보였다. 6개월의 원고 작업을 포함해 총 1년 6개월에 걸쳐 완성된 역작이다.

〈금강경〉 第十分 '장엄정토분(莊嚴淨土分)'의 한 문장,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 나무꾼이었던 육조 혜능은 우연히 듣게 된 이 한 문장으로 출가하게 된다. 오조 홍인은 "〈금강경〉만 몸에 지니고 있어도 곧 스스로 견성하고 성불하리라."고 했다. 몸에 지니고만 있어도 '성불'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읽고 쓰기까지 한다면 그것은 더 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해서 많은 불자들이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고 사경한다. 하지만 〈금강경〉 사경은 '일념', '일심'이 아니면 완주하기 어려운 일이다.

중견 서예가 우보 배성근 씨는 '고전을 거부하지 않고, 시대를 외면하지 않고'를 주제로 이번 전시를 열었다. 병풍 4벌을 비롯해 대작, 소품 등 4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전시 때마다 새로운 주제와 새로운 형식의 작품을 선보였던 배 서예가는 이번 전시에서 〈금강경〉을 비롯해 〈동다송〉, 〈화엄경약찬게〉 등 불교적인 작품을 선보였다. 특히 14폭 병풍에 담긴 금문체의 〈금강반야바라밀경〉은 사전 원고 작업을 포함해 총 1년 6개월에 걸쳐 완성한 역작이다. 배 서예가는 모두 5천447자에 달하는 〈금강경〉을 금문체(청동기에 주조되거나 새긴 문자)로 완성했는데, 경전의 글자 한 자 한 자를 자전에서 찾아 금문체로 옮겼다. 특히 자주 반복되는 글자들은 다양한 형태로 옮겨 적어 시각적인 지루함을 덜고 조형미를 극대화했다. 또한 오자와 탈자를 방지하기 위해 〈금강경〉을 금문체로 옮기기 전에 각 글자의 금문체를 자전으로 확인한 후 한 자 한 자 미리 적는 원고 작업을 거쳤다. 원고 작업만 6개월이 걸렸다. 이번 전시에서는 각 작품의 원고 초안도 함께 전시됐다.

배 서예가는 지금까지 각기 다른 서체로 열 차례 〈금강경〉을 썼다.

"〈금강경〉은 힘든 작업입니다. 특히 금문체로 옮기는 작업은 그 중에서도 좀 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금강경〉을 씁니다. 힘든 만큼 보람도 크지요. 글씨를 쓰는 일 자체가 수행한다는 개념이 아니면 끝까지 할 수 없는 일이죠."

배 서예가는 다른 글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금강경〉 등 경전을 옮기는 일은 단순히 글씨를 쓰는 일이 아니라고 했다. 경전 한 자 한 자에 담긴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며, 법향을 그려내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금강경〉은 많은 글자를 써야하기 때문에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가 달라지지 않기 위해선 처음 마음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 마음으로 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 한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작품은 날아가는 것이다. 그가 어렵지만 〈금강경〉을 여러 차례 써온 것은 여러 가지로 〈금강경〉이 가진 매력과 의미 때문이다.

이번 〈금강경〉은 금문체로 썼는데, 금문체는 조형미가 뛰어난 서체로 서예가들이 작품에 많이 쓰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상용되는 서체가 아니기 때문에 작업이 그 만큼 어렵다.

배 서예가는 이번 전시에서 〈금강경〉 외에도 전서, 예서, 행서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존심', '심곡', '진실' 등의 작품을 선보였다. 배 서예가는 앞서 말한 이번 전시의 주제에 대해 "서예의 기초와 기본을 지키되, 현재의 정서와 시대성을 수용하겠다는 다짐이다"며 "기와집에만 어울리는 서예가 아닌, 현대의 주택에도 어울릴 수 있는 서예를 하겠다."고 했다.

행서, 예서, 전서 등 모든 서체를 섭렵한 배성근 서예가는 이번까지 아홉 차례 개인전과 20여 차례의 초대, 단체전을 열었다. 대한민국 서예대전 심사위원, 전북서예대전 심사위원장, 대한민국 서예대전 행서 심사 분과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우보서실을 운영하고 있다.

"흐르는 물 위에 발자국 찍기"

공유스페이스 선+ 재개관기념 초대전
지운스님 '흐르는 물 위에~' 展
2018년 1월 17일(수)부터 30일까지

갤러리 '공유스페이스+'는 1월 17일부터 30일까지 다시 개관기념 초대전, 지운 스님의 '흐르는 물 위에 발자국 찍기' 展을 연다.

불교와 전통문화 그리고 현대미술 등 다양한 문화예술의 새로운 마당을 펼치기 위해 다시 개관한 '공유스페이스 선+'는 지난 10년 동안 비영리 갤러리로서 선(禪)을 중심으로 한 미술 작품을 전시해왔던 스페이스 선+의 새로운 이름이다.

이번 전시는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새 이름의 공유스페이스 선+가 마련한 첫 번째 초대전으로, 지운 스님이 현대인의 불편한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출간한 책 〈명상 깨달음을 논하다 1〉, 〈명상 지혜를 논하다 2〉에 수록된 그림의 원화들과 글을 선보인다. 또한 위빠사나와 간화선을 아우르는 생활 속 실천 명상시간도 진행한다.

운성 대강백의 맥을 이은 지운 스님은 송광사, 동화사 강주와 조계종 행자교육원 교수사, 기본선원 교선사(敎禪師)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동화사 율주, 보리마을자비선명상원 선원장을 맡고 있다. 1회의 선화전과 8회 사진전을 열었으며, 〈찻잔 속에 달이 뜨네〉 〈차 수행법〉 원측소에 따른 〈해밀심경〉 초판본 등 다수의 저서와 번역서가 있다. 문의 / 02-732-0732 박재완 기자



지운 作, '흐르는 물에~ 3'/수묵담채

제4회 불교무용대전 참가 공모

공모 접수 1. 11~2. 1 오후 6시까지
불교무용대전 4. 6~22 / 27, 28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는 불교무용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제4회 불교무용대전의 공모를 진행한다. 불교문화단체 구슬주머니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불교무용대전은 4월 6일부터 22일까지 성균소극장(매주 금~일)에서, 27일과 28일은 남산국악당(금, 토)에서 진행된다.

공모 접수 기간은 1월 11일(목)~2월 1일(목) 오후 6시까지이며, 접수 방법은 조계종 홈페이지(http://www.buddhism.or.kr)에서 양식을 받아 이메일(factory2013@naver.com/김민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불교를 소재로 한 모든 무용의 발표를 원하는 개인과 단체면 누구나 가능하다. 지원 분야는 전통과 창작, 단독과 합동공연 분야에서 현대, 발레, 한국 등 모든 장르가 가능하다. 시상 내역은 대상(조계종 총무원장상), 최우수작품상(한국춤예술센터장상), 비평가상 등이다. 우수작에 한하여 추후 불교축제 및 사찰공연에 추천된다. 문의/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02)2011-1770

박재완 기자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를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사랑이 되겠습니다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民衆醫術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당뇨, 고혈압 에서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 디스크, 협착증 및 각종 질병 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 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 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 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냄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응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中 근대불교학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주목! 학술서

김영진 교수의

'중국 근대불교학의 탄생'




장타이옌


량치차오


후스


양런산


어우양징우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근대는 역동적 공간이었다. 서구의 산업 문명과 더불어 문화 · 학문 전 분야서 동양과 서양이 교차됐다. 불교도 다르지 않았다. 서양의 학문 방법론이 유입되면서 중국의 많은 불교학자들은 부조화를 경험했다. 그들은 처음 접한 서양의 불교 연구법을 사용하여 전통의 일부였던 불교를 연구하고 설명해야 했다.

김영진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가 최근 내놓은 〈중국 근대불교학의 탄생〉은 근대 공간에서 중국의 불교학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추적하는 연구서다.

책은 크게 문헌학, 역사학, 철학의 세 갈래로 중국 근대불교학의 형성 과정을 추적한다. 또한, 형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상가와 학자들도 다루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불교를 혁명 종교로 각색한 장타이옌(章太炎), 불교에 계몽의 옷을 입힌 량치차오(梁啓超), 백화문 연구에서 선종 연구에 도달한 후스(胡適) 등이다. 저자는 이들의 노력으로 탄생한 중국의 근대불교학에서 동아시아 전통 종교와 학술이 '근대'라는 시공을 맞아 기꺼이 감내한 자기 변혁과 동서(東西) 학술의 교차가 빚은 창조성을 확인하고자 했다.

김 교수의 연구서는 매우 친절하다. 근대 서구 학문의 방법론들이 기존의 불교학과 어떻게 충돌하고 융합돼 가는지를 분야와 시기별로 잘 조망하고 있다.

근대 시기로 접어들면서 서구 불교학을 전면적으로 수용한 일본과 달리 근대 초기 중국 불교학자들은 전통적인 입장과 근대적인 태도를 공유했다. 일부 학자들은 전통적인 교감학을 통해서 불교 문헌학을 진행했고, 1920년대부터 일부 학자들은 서구의 불교 문헌학을 직접적으로 학습하고 활용했다.

특히 저자는 근대 불교학의 초석을 놓은 문헌학 방법론은 실은 불교가 근대시기 정치사상으로서 철학으로 작동하게 된 바탕을 마련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것은 불교 지식을 생산하고 가공하고 또한 확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제1부 '불교경학과 문헌비평'은 서양 근대불교학과 불교문헌학이 중국에 전래된 과정, 중국 불교 지식의 확장과 유통 과정, 그리고 전통 문헌학 방법론의 불교 연구 도입까지, 불교와 문헌학이 만나 새로운 학문적 흐름을 만들어낸 과정을 다룬다.

근대기 서양 학문 방법론 유입

학자들 전통 · 근대적 태도 공유

문헌 · 역사 · 철학으로 흐름 조망

장타이옌 등 사상가들 다루며

東西학문 교차되는 과정 확인

중국 근대 불교학은 문헌학만으로 형성되지 못했다. 저자가 주목한 두 번째 키워드는 역사학이다. 그는 량치차오, 후스 등 근대 학자들의 역사학 방법론을 통한 불교사 연구를 되짚어본다.

특히 주목할 사상가는 계몽 사상가로 잘 알려진 량치차오다. 최초로 근대적 역사학 방법론을 불교 연구에 도입한 량치차오는 고문과 현대문 사이에 발생한 차이를 번역하는 '역고(譯古)'의 방법을 통해 불교 경전의 역사를 되짚어냈다.

이후 선종의 역사를 헉슬리 식 불가지론의 입장에서 연구한 후스(胡適), 정착기의 초기 중국불교사를 사상사적으로 연구한 탕융퉁(湯用彤), 비교언어학을 통해 중국불교를 정리한 천인추에(陳寅格)와 전통적 방법론으로 불교사를 비롯한 종교사 연구를 행한 천위안(陳垣)으로 이어지면서, 역사학의 방법론은 불교사를 서술하여 근대에 불교가 있어야 할 곳을 모색하는 또 하나의 길잡이가 됐다.

제3부 '불교철학의 출현과 교리논쟁'은 서양 철학을 만나면서 중국 근대불교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조명한다. 저자는 새로운 불교철학이 민중 계몽과 사회 개혁을 일으켰던 당시의 사회상을 언급하며 사실상 '철학'의 유입이 중국 근대불교에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왔음을 역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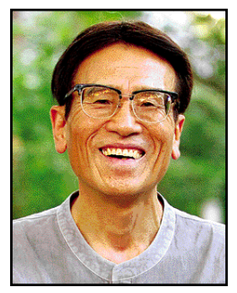
21세기 중국 불교학에 대해서도 저자는 조심스런 전망을 내놓고 있다. 김 교수는 "최근 중국 불교학계는 국학 차원을 벗어나 인도 · 티베트 · 동남아 · 일본 불교 등으로 연구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국가 위상 제고를 위해 사용하든 국민 통합의 이데올로기로 사용하든 불교학은 중국에서 중요한 학문 영역임은 분명하다. 또한 불교 연구의 세계화라는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학 이론 권위자 이승훈 시인 별세

16일 숙환으로… 발인 19일 시인협회장

선불교 · 포스트모더니즘 결합

한국적 탈근대주의 지평 열어



한국 시학 이론의 권위자이자 원로 시인인 이승훈 한양대 명예교수〈사진〉가 1월 16일 오후 11시 20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6세.

1942년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난 이승훈 교수는 1962년 4월 박목월 시인의 추천을 받아 〈현대문학〉으로 등단해 1972년까지 〈현대시〉 동인으로 활동했다. 박사 과정 중이던 1980년에 한양대 인문대 국문과 조교수로 부임해 2008년 정년퇴임하기까지 교편을 잡았다.

이승훈 교수는 한국의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시인이자 이론가였다. 〈모더니즘시론〉, 〈포스트모더니즘시론〉, 〈해체시론〉 등의 저작을 통해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시학이론을 정립했다.

또한, 법호가 방장(方丈)일 정도로 독실한 신심을 가진 불자였던 이승훈 교수는 선과 시학, 포스트모더니즘을 결합시키는 연구를 평생의 업으로 삼았다. 이는 그가 보여준 저작들에서 잘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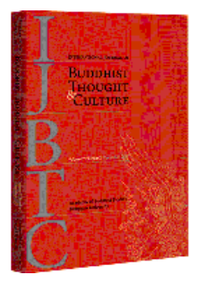
기호학의 시각에서 선사들의 공안을 해석한 〈선과 기호학〉, 선의 시각에서 아방가르드 예술을 해석한 〈아방가르드는 없다〉, 선시를 중심으로 하이데거 철학을 해석한 〈선과 하이데거〉 등을 통해 선의 시학과 시 쓰기를 모색했다. 이런 공로로 이승훈 교수는 2013년 현대불교문학상, 2016년 만해 대상 문예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특2호실)에 마련됐으며 장례는 19일 아침 9시에 한국시인협회장으로 치뤄졌다. 유족으로는 부인(최정자 여사)과 아들 상규(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딸 다영, 며느리 김문정(일산 명지병원 의사), 사위 김성한(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 교수) 씨 등이 있다. 신성민 기자

인류 · 종교 · 예술학서 본 사리 신앙

불교학 영문 저널

IJBTC 27권 2호 발행



불교 의례의 핵심인 사리와 사리함,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신앙과 문화에 대한 국제적 연구 성과를 담은 학술지가 발간됐다. 동국대(총장 보광)는 최근 불교학 영문 저널인 〈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Thought & Culture (이하 IJBTC)〉 27권 2호를 발행했다.

'불교 의례의 핵심: 사리, 사리함 그리고 불상(The Heart of Buddhist Ritual: Relics, Reliquaries, and Icons)'을 특집으로 진행한 이번 IJBTC에는 관련 특집 논문 4편과 연구논문 4편, 관련 서평 2편이 실렸다.

논문 참여 학자들은 하버드대, 콜롬비아대, 교토대, 북경대 등 대표 연구자들로, 국내에서는 서울대와 이화여대 소속 연구자들이 참여했다.

또한 특집 논문 이외에도 '문헌학과 사본 연구', '중론(中論)의 이제설의 중도에 대한 연구', '불교 논사들의 메이지 일본에서의 기독교와 공화주의에 대한 비판 연구', '한국의 사례를 통한 동아시아 불교 의례 연구 재검토' 등 다양한 논문들이 게재됐다.

정승석 동국대 불교학술원장은 "인류학과 문화연구의 영향으로 불교연구에 있어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고 불사리(佛舍利)에 관한 연구도 활발해졌다"면서 "이번 호의 논문들을 통해 교리, 인류학, 종교학, 예술학 측면에 있어 불사리 등 불교의 유물과 문화에 대한 비판적 연구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IJBTC는 국내 유일의 영문 불교학 전문학술지로 김종욱 동국대 교수와 리처드 맥브라이드 하와이 브링엄영대 교수가 공동 편집장을 맡고 있으며, 인도 · 미국 · 태국 · 대만 · 영국 등 9개국 해외 학자가 편집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0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로 선정됐으며, 현재 연2회(6월, 12월) 발간된다. 신성민 기자

韓日 교장문헌 연구 성과 공유하는 자리 마련된다

고려대장경연구소(이사장 종림)는 2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일본 구온지(久遠寺) 문고 및 미노부산(身延山)대학 도서관 소장 교장 문헌'을 주제로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모치즈키 가이에 국제일련학연구소장이 '미노부산 소장 논서에 대해서'를, 기무라 주이치 미노부산대학 교수가 '미노부문고 연혁사 연구'를 각각 발표한다. 한국 측 발제자로는 최종남 중앙승가대 교수가 '태현의 보살계본종요 유통본 서지조사 및 대조연구'를, 박용진 능인대학원대학 교수가 '태현선(選) 약사경고적기의 유통과 의미' 등을 각각 살펴본다. 신성민 기자

가야산 · 상왕산 사지 정비된다

서산시, 사찰지 활성화 정비 나서

서산시가 가야산과 상왕산의 옛 사찰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비에 들어갔다.

서산시는 "가야산과 상왕산의 서산 지역에 있는 옛 사찰지 200여개소 중 서산 지역에 있는 88개소에 대한 위치 정보 관측 내역 기록화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가야산과 상왕산에는 백제시대부터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존재했던 많은 사찰과 암자가 폐사됐지만, 석탑 부재들과 와편, 석축 등 많은 유적과 유물들은 흔적을 간직한 채 남아 있다.

특히 보현사지와 수정암지, 백암사지 등에는 석탑 부재 등이 그대로 남아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

이에 따라 서산시는 산재돼 있는 옛 사찰들을 조사 · 연구해 위치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기록화해 역사 · 학술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사업을 진행했으며, 불자들과 불교문화재에 관심이 있는 많은 시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확보된 위치 정보를 구글어스에 표시하고 다음맵과 네이버맵 등에 등재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한 활동과 아라메길, 내포문화숲길, 백제 미소길을 연계 활용한 정비사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산시 관계자는 "백제불교문화특구인 가야산과 상왕산의 중요성을 전국에 알리는데 노력하겠다"면서 "보원사지와 마애여래삼존상, 해미읍성, 용현계곡, 가야산 일대를 연계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옛 절터들과 등산로를 연계한 코스 개발 등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고 내포 지역만의 특색 있는 관광컨텐츠 개발 등 생태관광과 힐링공간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성민 기자

사찰 증축
사찰 개축

■ 가건물
(주차장, 공양간, 창고)

■ 조적, 미장, 마루 일체

■ 불단 샌딩, 법당 샌딩

■ 실내 인테리어 일체

전화 02)990-5121
010-5309-2119

경원 불사



경북 안동시 풍산읍 높은산고지에서 약사사스님이
3년생 토종하수오를 농사 지어 정성껏 만든
토종하수오 진액을 판매합니다.

◆하수오의 효능 : 신체노화 방지. 탈모와 흰머리를 검게해주고 모발건강에 효능. 관절염 무릎통증에도 효과. 신장기능을 강화시킴. 허리를 튼튼하게 해주고. 혈압을 강화. 동맥경화예방에 좋은 효능. 염증을 완화. 가래와 담을 제거. 종기나 치질. 만성피로의 개선.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하는 작용. 갱년기에 좋고. 고지혈증. 빈혈. 좋은 건강보조식품이니 드시고 백세인생을 건강하게 사세요.

제품 문의 : H·P 010-9692-5775

▶금액 : 150.000원 (무료배송) 50팩

입금 : 농협 351-0450-9156-23 [예금주 : 약사사]

경북 안동시 풍산읍 신양 3리 11번지 대한불교 약사사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 대북


▶ 2자

▶ 태징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764-2159 / 010-5264-3906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사형수 포교 50년
삼중 스님의 **남기고 싶은 인연**
② 사형수 양동수 씨의 모친 故 김장순

사형수 아들 살린 지극한 '母情佛心'

아들 죄 자신의 죄로 받아들인 모정
진심과 정성이 상상못한 기적 만들어
법무장관, 대통령까지 마음 움직여
사형수에서 감형, 가석방으로 출소
아들 출소 못 보고 안타깝게 타계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깊이를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고귀한 것이다. 그래서 그 모정이라는 것은 종종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낸다. 나의 어머니가 그랬고, 우리 모두의 어머니가 그렇다. 이번에 이야기하고 싶은 인연의 주인공은 바로 '어머니'다. 1977년 사형수가 되었던 양동수의 노모 김장순 씨다.

1975년 12월 24일, 양동수(당시 26세) 씨는 크리스마스로 들뜬 기분에 친구들과 술을 마셨고, 취기가 오른 그는 변심한 여자 친구의 집을 찾아갔다. 하지만 찾아간 여자 친구는 없고, 가정부가 자고 있었다. 양 씨는 순간적인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가정부를 추행하고 결국 살인까지 저지르고 말았다. 소식을 접한 양 씨의 노모 김장순 씨는 기가 막혔다.

1심 사형, 2심 사형,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1977년 2월 양 씨의 사형이 확정됐다. 김장순 씨의 길고도 눈물겨운 모정의 여정은 시작됐다. 청천벽력이었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것이 자식 아닌가. 그런 아들이 그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사형수가 된 것이다. 김장순 씨는 자식이 지은 죄와 그로 인한 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 두 가지를 모두 떠안고 함께 겪기로 결심했다.

김장순 씨는 대구로 이감된 아들을 따라 진주서 대구로 이사했다. 그는 교도소 옆에 한 평 반, 월세 5천 원짜리 방을 얻었다. 아들을 매일 만나기 위해서였다. 아들의 죄가 바로 자신의 죄라고 생각한 김장순 씨는 아들을 매일 면회하면서 아들과 함께 옥살이를 한 것이다. 독실한 불자인 김장순 씨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 3시에 일어나 인근에 있는 화장사를 찾아 예불을 올렸다.

"못난 어미가 먼저 눈 감을 때까지 제 아들의 목숨만은 꼭 지켜주십시오" 빌고 또 빌었다.

그리고 예불을 마친 김장순 씨는 어김없이 아들을 만나기 위해 교도소로 달려갔다. 아직 살아있는 아들을 만나면 그는 그제야 작은 안도의 숨을 쉬었다. 그렇게 김장순 씨는 3년을 살았다. 김장순 씨는 자신도 공범자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병이 나도 약조차 먹지 않았다. 그리고 늘 입버릇처럼 말했다.



1978년 12월 27일, 대구교도소 앞에서 사형수인 아들의 감형 소식을 듣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기뻐하는 양동수의 노모 김장순 보살 〈사진 왼쪽〉. 그는 안타깝게도 아들의 가석방 출소를 끝내 보지 못하고 1992년 타계했다.

"아들의 사형이 집행되면 내 손으로 화장할 겁니다. 꿀을 섞어 산에다 뿌릴 겁니다. 아들의 마지막 시신을 산짐승들에게라도 주어야 그나마 저와 제 아들의 죄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그로부터 그 말을 들은 나는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교화활동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그때처럼 가슴이 먹먹한 적은 또 없었다. 내가 양 씨의 어머니를 알 게 된 것은 다른 사형수였던 방 씨 때문이었다. 나는 양 씨를 교화하기 전에 같은 사형수인 방 씨를 교화하고 있었다. 방 씨는 나에게 "저는 죽음으로 죄 값을 치르고 싶습니다. 제가 더 큰 죄를 지었으니, 저 보다는 양 씨를 위해 노력해 주세요"라고 말했다. 그래서 양 씨의 어머니를 알 게 된 것이다. 김장순 씨의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과 또 피해자를 생각하는 마음을 하루하루 보면서 내 마음 역시 견딜 수가 없었다. 양 씨의 죄를 어쩔 수는 없지만 한 어머니의 애틋한 마음이라도 알려 그의 말대로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만이라도 형 집행을 미룰 수 있다면, 하는 바람이었다. 나는 서명운동을 벌였고, 1만여 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들고 법무장관을 찾았다. 당시 이선중 장관은 처음엔 당치 않는 소리라고 외면했지만 양 씨 어머니의 눈물겨운 사연을 들려주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모든 것은 '인지상정'이었다. 모두 누군가의 어머니이고 그들의 자식이기 때문이다. 장관의 마음이 움직이고, 당시 박정희 대통령에게도 이 눈물겨운 사연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1978년 12월 27일, 양 씨는 무기수로 감형된다. 그때의 기쁨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다. 양 씨의 노모가 만세를 부르며 얼싸안고 울던 모습은 지금도 진한 감동으로 어제 일 같이 생생하다. 출가자의 몸이기 이전에 사바의 같은 중생으로서 많은 것을 배웠다.

아들을 구사일생으로 살려낸 노모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아들의 죄 값을 함께 치르겠다던 그였다. 그래서였을까. 김장순 씨는 얼마 후 백내장에 걸려 앞을 보지 못하게 됐다. 여러 해 병마와 싸우던 양 씨의 어머니 김장순 씨는 결국 1992년 고단한 생을 마감했다.

1996년, 양 씨는 사형수로 확정된 지 21년 만에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그리고 출소와는 상관없이 늘 죄인으로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했다. 결국 김장순 씨는 아들의 석방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양 씨는 어머니의 뜻에 따라 교도소 안에서 법사 자격시험에 합격했다. 양 씨는 출소 후 법사로 살면서 어려운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등 많은 이타행으로 속죄하는 삶을 살고 있다. 비록 한 순간의 어긋남으로 여러 사람이 슬픔에 들었지만, 또한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인해 삶의 소중함이 더욱 고결해질 수 있었다. 그렇게 법은 매 순간 우리 곁에 있었다.

정리=박재완 기자



이란 보살의 '밥 짓는 소리'
② 고우 스님 · 남지심 작가

병도 친구가 된다는 말이 있다. 건강을 추스르기 위해 봉화 각화사 서암에 머무시던 고우 스님이 그랬다. 가끔 스님을 뵈러 서암을 찾곤 했는데, 나무와 이야기 나누고 산새들 벗 삼아 숲을 걷고 있는 스님을 볼 때면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날 스님은 '본래 자리'를 보여주셨는데, 병마저 품어 안을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었다.





26년 전이다. '우담바라'의 작가 남지심 선생님과 처음 만난 날이었다. 선생님은 신심 깊은 보살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다고 했다. 나의 원이 무엇이냐며 물었고, 나는 주부로 성불하고 싶다고 답했다. 그때 남지심 선생님은 "꿈도 야무지셔라"고 했다. 그리고 26년이 흘렀다.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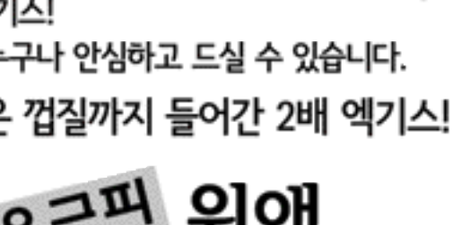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	연 락 처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0-2813-8008
부 산 지 사	이 도 경	051)405-9402 /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512-5003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0-8642-7733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질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황금룡을 집안으로

황룡나한과 복호나한

황룡나한은 용위에 큰복을 실어다 줄 것이며
복호나한은 악귀를 물러치고 삼재를 소멸하여 들어온 복을 지켜 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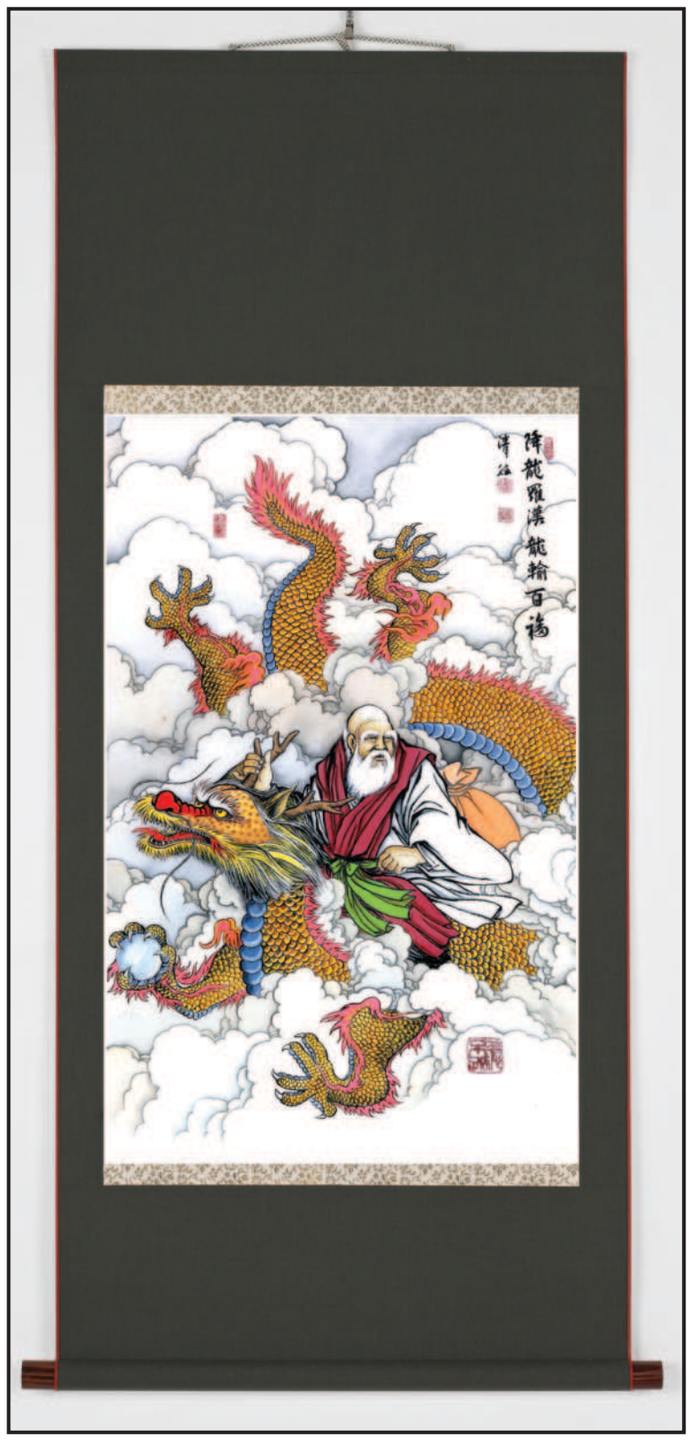
나한은 6가지 신통력과 8가지 해탈법등 삼장에 두루 통달하여 열반에 들지않고 영생을 누리며 번뇌를 아주 떠난 부처에 버금가는 성자 이시다.

황룡나한은 미륵불의 화신이라고 하며, 황금룡을 타고 다니며 중생들에게 복을 전해 주신다고 하며 복호나한은 맹수를 다스리고 악귀를 물리치며 삼재을 소멸하여 중생들의 수호신이 되어 준다고 한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전 18명의 나한들에게 부탁 하시기를 미륵불께서 세상에 나오실때까지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들의 복전이 되어줄것을 당부 하였으니 16명의 나한들은 그들의 권속들과 함께 세상의 여러곳에 거처하며 불법을 설파하고 황룡나한과 복호나한은 거처를 정하지 않고 세상을 두루 돌며 중생들에게 복을 전하고 악을 몰아내며 중생들의 수호신이 되고 있다.

- 족자 크기 : 세로 120cm × 가로 54 cm
  금액 : 10만원
  족자 2벌 구입시 19만원에 드립니다.
- 그림 크기 : 세로 67cm × 가로 44cm
  금액 : 그림만 7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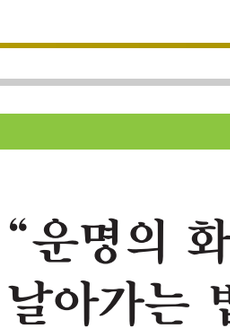
구입하시는 모든 분께 18나한 설명서 를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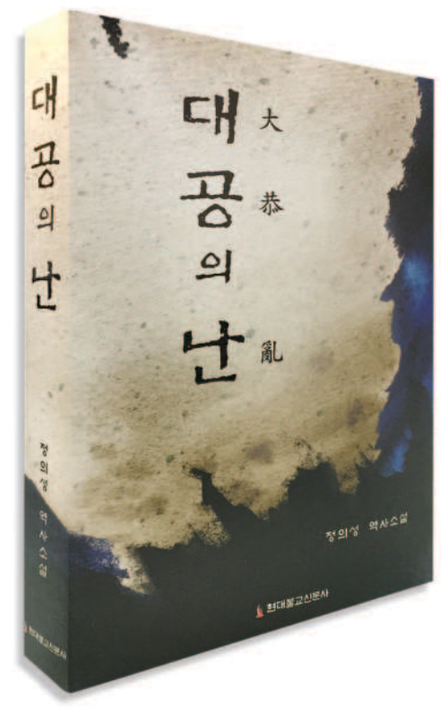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 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 大恭의 난 亂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 02)2004-8216

BTN 대표이사 서성우